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1167-01

2015. 12.

농촌고령자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촌고령자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연구기관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조 미 형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박 지 연 연구원

요 약

연구의 배경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전업농 중심의 생산지원에 치중한 정책에서 고령농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농촌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경제활동 및 소득지원 욕구를 가진 집단과 복지서비스 수요 집단이 구분되어왔다. 하지만 평생 농사일을 해 온 농촌고령자의 경우 대다수가 공적 연금의 수혜를 받지 못해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이 확보되고, 살아 온 지역을 떠나지 않고 여생을 무료하지 않게 보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공표된 자료 2차 분석, 인터뷰 등을 통해 농촌고령자의 생활 및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방향 및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실태 분석을 위해 노인실태조사(2014), 농가경제조사(2014) 등의 원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농촌고령자 10명과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2명을 인터뷰 조사하고, 사례 조사를 위해 완주군 두레농장과 상호마을,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텃밭체험강사 프로그램 현장을 방문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결과,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총 200만 명 정도로 전체 노인인구의 30%에 해당한다. 여성노인이 59.5%를 차지하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성비의 차는 커져서 80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인 연가구소득 754만 원 이하

노인은 남성의 9.2%, 여성의 13.6%이다. 남성노인의 56.7%, 여성노인의 36.9%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정부지원일자리 참여비율은 동(20.1%)에 비해 읍·면(7.6%)이 낮았다. 1인 가구가 제외된 농가경제조사(2014) 자료에서 70세 이상 고령 경영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41.4%이고, 연평균 소득은 22,616천 원이며,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8.6%에 그쳤다.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농림어업 종사 노인 중 독거가구는 16.0%이다(노인실태조사, 2014). 서비스 접근성에 있어서는 시장·슈퍼 등 일상용품을 구매하기 곳까지 30분 이상 걸어야 하는 노인이 42.1%에 이르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까지 10분 이상 걷는 노인도 35.2%이다.

또한 인터뷰 조사를 통해 살펴 본 농촌고령자의 삶과 생활을 연령, 경제적 상태, 건강 등에 따라 여덟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지자체의 복지사업 우수 사례 조사 분석 결과, 참여노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농촌노인에게 익숙한 활동을 소득활동과 연계하고, 마을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고령자 대상 정책은 욕구별로 집단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집단은 현재 운영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할 일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정책은 마을 안에서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함께 일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셋째, 55세 이상 중고령자부터 ‘70세 미만 건강한 저소득 노인’은 월 70~8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넷째, ‘가족을 돌보고 있는 노인’은 가족을 남에게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는 쉽지 않으므로, 심리적·정서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농촌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경제적인 안정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듯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이 될 수 있는 소득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서비스의 경우는 형평성(equity)의 관점에서 농촌지역에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resent State of and Policy Improvement Plans for the Aged in Rural Areas

Background of Research

With the rapid aging of the rural population, the need for welfare policy for security for the aged in rural regions has been recognized beyond the policy focusing on production support centered on full-time farmers. Previous studies on the elderly in rural areas tend to divide them into a group that needs economic activities and income support and a group that needs welfare services. However, most of rural elderly people who have farmed all their lives cannot receive benefits of a public pension and have economic difficulty in their old age. Therefore, policy support will be necessary to secure a minimum income to maintain their everyday lives with things to do for their remaining years in the regions where they have lived.

Research Methods

This study examined the living conditions and economic activities of elderly people in rural areas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a secondary analysis of data made public, and interviews, and proposed policy directions and tasks for improvement. To analyze the living conditions, we utilized source data including the *Survey of Living Conditions of the Aged* (2014) and the *Farm Household Economic Survey* (2014), and interviewed 10 rural elderly people and 2 social workers at a senior welfare center. For a case research, we also visited Sangho Village and Dure Farm in Wanju-gun and the field of the program of vegetable garden instructors in Gochang-gun Social Welfare Center.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of this study, the number of people aged 65 or over who live in *eup* (town) and *myeon* (township) areas is 2 million, 30% of Korea's total aged population. Women account for 59.5%, and the older, the more serious the gender imbalance becomes. Seven of 10 people aged 80 or over are women. 9.2% of elderly men and 13.6% of elderly women earn an annual household income of less than 7.54 million won, the level of a single-person household's minimum cost of living. Although 56.7% of elderly men and 36.9% of elderly women are currently working, their participation rate in government-supported jobs in *eups* and *myeons* (7.6%) is lower than that in *dongs* (20.1%). In the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2014) data excluding single-person households, farm operators aged 70 or over account for 41.4%, their average annual income is 22.616 million won, and the proportion of agricultural income is only 28.6%. Single-person households comprise 16.0% of aged people engaged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who live in *eups* and *myeons* (*Survey of Living Conditions of the Aged*, 2014). As for service accessibility, 42.1% of the elderly have to walk more than 30 minutes to a market or supermarket to purchase daily goods, and 35.2% of the elderly walk more than 10 minutes to use public transportation. Through interviews, we classified rural elderly people's lives into 8 types according to age, economic conditions, health, etc. Among local governments' cases, participating elderly people's high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result from the link between familiar activities to the rural elderly and income activities, and the projects of their rewarding activities in communities.

In the policy for the aged in rural areas, groups should be subdivided according to needs as follows. First, for the group of "elderly people who need welfare servic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blind spots in elderly care currently in operation. The policy for "elderly people who need work" is to create jobs to do together in communities regardless of economic levels. "Healthy low-incomers under 70" from 55-year-olds need jobs to secure the stable income more than 0.7-0.8 million won a month. "Elderly people who take care of their family member" need emotional and psychological support because it is difficult to directly lighten the care burden if they think that they cannot leave their family member in another's care.

As shown in rural elderly people's life satisfaction survey results that they are the most dissatisfied with economic unstableness, securing the income that enables basic living is the most important. Also, services should be provided to rural areas in terms of equity.

Researchers: Miyoung Cho, Jiyeon Park
Research period: 2015. 9. - 2015. 12.
E-mail address: miyoung@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2. 선행연구 검토 4
- 3. 연구내용 및 방법 9

제2장 농촌고령자 실태 분석

- 1. 농촌고령 인구 현황 13
- 2. 농촌노인 생활 실태 분석 16
- 3. 농촌고령자 경제활동 실태 분석 50
- 4. 소결 68

제3장 농촌고령자의 삶과 생활

- 1. 농촌고령자 인터뷰 조사 71
- 2. 농촌 노인복지 전문가 인터뷰 90
- 3. 인터뷰 결과 종합 93

제4장 농촌고령자 정책 및 복지사업 현황

- 1.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97
- 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고령자 대상 사업 103
- 3. 지자체 사업 및 기타 사례 106

제5장 농촌고령자 대상 정책개선방안

- 1. 기본방향 131
- 2. 정책 개선 방안 134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144
2. 결론 및 함의	150
참고 문헌	152
부록 1. 어르신 인터뷰 내용	154
부록 2.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155
부록 3. 농촌노인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개요	168

표 차례

제1장

표 1- 1.	연구내용 및 방법	10
표 1- 2.	인터뷰 대상 노인의 특성	11

제2장

표 2- 1.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현황	14
표 2- 2.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성별·연령대별 분포	15
표 2- 3.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연령대별 일반적 특성	17
표 2- 4.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결혼상태별·가구형태별 일반특성분포	19
표 2- 5.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연령·결혼상태별 노인 단독거주 이유	21
표 2- 6.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의 일반특성별 생활상의 어려움	23
표 2- 7.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성·연령별 기혼자녀 동거 이유 · 24	24
표 2- 8.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성·연령별 기혼자녀 동거 시 경제 및 일상생활 분담 방식	25
표 2- 9.	읍·면지역 조손가정 노인의 일반특성	26
표 2-10.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와의 갈등 실태	27
표 2-11.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비동거 자녀 전체와의 왕래/연락빈도	28
표 2-12.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의 제특성	28
표 2-13.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삶의 만족도	30
표 2-14.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가구형태에 따른 경제상태	

	만족도별 연소득수준	31
표 2-15.	농촌노인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32
표 2-16.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연령규범	33
표 2-17.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일반특성별 자살생각 이유 및 시도	35
표 2-18.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일반특성별 이상적인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38
표 2-19.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일반특성별 향후 노후 생활: 활동별 희망정도	40
표 2-20.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및 주된활동: 1~3순위 중복 응답	41
표 2-21.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이용정도와 만족도	43
표 2-22.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일반특성별 경로당 및 복지관 이용 이유	44
표 2-23.	연령대별 IADL의 도움이 필요한 항목 비율	46
표 2-24.	도움을 주는 사람	47
표 2-25.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거주 환경 및 주거 편리성	48
표 2-26.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지역환경: 주요 기관시설과의 도보 이동시간	49
표 2-27.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지역환경: 읍·면동사무소까지 거리에 따른 불편한 점	49
표 2-28.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연령대별 취업상태	51
표 2-29.	농촌노인이 현재 하는 일의 내용	51
표 2-30.	읍·면 노인이 현재 하는 일에 따른 불만내용	53
표 2-31.	농촌노인이 하는 일의 내용에 따른 수입 내역	55
표 2-32.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른 주관적 경제상태 인식 비교	56
표 2-33.	소득수준별 소비지출 내역	57

표 2-34.	가구소득수준별 비소비지출 내역	58
표 2-35.	농가 경영주 연령대별 분포	59
표 2-36.	연령대별 전·겸업, 주·부업·자급 분포	60
표 2-37.	경영주 70세 이상 농가의 소득 현황	61
표 2-38.	경영주 70세 이상 농가 전·겸업별 소득 현황	62
표 2-39.	경영주 70세 이상 농가 전·겸업별 이전소득 현황	62
표 2-40.	농림어업 종사 노인의 가구형태별 수입 내역	64
표 2-41.	농림어업 종사 노인의 가구형태별 소득수준 분포	66

제4장

표 4- 1.	2015년 노인보건복지사업 개요	98
표 4- 2.	2015년 노인정책관실 주요사업 예산현황	100
표 4- 3.	농촌노인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103
표 4- 4.	개소별 지원내용	107
표 4- 5.	완주군 두레농장 운영현황(2014.12.)	108
표 4- 6.	상호마을 공동문화조성사업 내용	125

제5장

표 5- 1.	노인 욕구별 정책 대상 집단 및 필요한 지원	132
---------	--------------------------------	-----

부록 2)

부표 2- 1.	광역치매센터 지정현황('13. 7. 10. 지정)	155
부표 2- 2.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내용	158
부표 2- 3.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유형별 예산지원 기준	159
부표 2- 4.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분야	159
부표 2- 5.	단기가사서비스 개요	163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 1. 읍·면동 연령대별 노인 인구 비율	15
-----------------------------------	----

제4장

그림 4- 1. 두레농장 일자리 기본설계	107
그림 4- 2. 두레농장 버섯 재배 시설 및 활동 공간	114
그림 4- 3. 도산마을 체험강사프로그램 활동 현장	119
그림 4- 4. 화산면 상호마을공동체가 만든 마을신문	126
그림 4- 5. 상호마을 모습	128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영세 고령농이 증가하고 있어 전업농 중심의 생산지원에 치중한 정책에서 고령농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기존의 농업정책은 전업농 중심의 생산지원에 치중하였으며,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보장적 대책은 소홀하여 고령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생계형 영농을 지속하고 있다(김정호 외, 2007).¹⁾
 - 농촌지역에서 농업정책과 병행한 주민 복지 분야 정책 수요가 증대되는 상황이다(성주인 외, 2014).

1) “농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경영주체인 농가가 적정 수준의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모화·전문화된 농업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며, 특히 생산성이 저하되는 고령 농업인의 유연한 은퇴와 경영이양이 중요한 과제이다”(김정호 외, 2007: p.1).

- 최근에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농촌노인 복지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그동안 농촌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경제활동 및 소득지원정책과 복지서비스가 분리되어 진행되어 왔다. 즉 고령 농업인의 소득활동과 복지서비스를 통합한 접근은 찾아보기 어렵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농지연금, 경영이양직불제 등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박대식, 2004; 박대식·최경환, 2006; 김정호 외, 2007; 박대식 외, 2009; 홍봉수, 2014)나 농촌노인 대상 복지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박대식·최경환, 2006; 조미형 외, 2013, 최윤지, 2014),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 노인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4고(苦)로 불리는 빈곤, 질병, 사회적 역할 상실, 외로움 등을 덜어 줄 수 있어야 한다.
 - 4고 중에서도 빈곤 문제는 다른 문제들에 비해 우선한다. 빈곤한 노인은 의료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여 질병이 악화되고, 사회적 활동도 제약 받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 달에 20만 원 받는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참여 신청 시 경쟁이 치열하여 참여 여부를 놓고 마을 노인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 경로당에서 체조하고 노래하는 등 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입이 있는 활동에 대한 욕구도 간과할 수 없다.
- 농촌노인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평생 해 온 농사일이 가지는 의미를 비롯하여 노인으로서 삶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은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 농촌노인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하겠다고 생각한다. 비록 수입이 얼마 되지 않아도 논밭에 잡초가 무성한 것을 보지 못하여 농사일을

놓지 못한다.

- 또한 평생 일을 해 왔기에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못 견뎌하여 스스로 일을 찾는 경향도 있다.
 - 하지만, 농사일이 노인의 건강상태로는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놓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농촌노인이 본인의 건강수준만큼 힘에 부치지 않고 즐겁게 일을 하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이것이 풀어야 할 숙제인 것이다.
- 농촌은 빈곤인구율 대비 생활수급대상자가 적고(문진영·김미곤·여유진, 2008; 최경환 외, 2012), 도시지역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은 고령자가 많아 곤궁함에도 고령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득활동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농촌 지역은 소득활동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접근의 필요성이 도시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 노인실태조사(2014) 자료에 따르면, 동지역의 무학 고령자의 비율은 26.8%인데 비해, 읍·면지역의 무학 고령자 비율은 42.8%이다.
 - 공적소득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생산 활동을 통한 소득 확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고령자의 생활 전반 및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소득 지원 방안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 공적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된 농촌고령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지원과 함께 평생을 살아온 지역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 노인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의 논의가 아닌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 부족하거나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발굴하는데 집중한다.

2. 선행연구 검토

2.1. 농촌노인의 경제활동 및 노후 관련 연구

- 농촌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실태를 분석한 연구(박대식, 2004; 박대식·최경환, 2006; 박대식·최경환·윤병석, 2009), 농업인의 노후 관련 연구(김정호 외, 2007; 최경환·황의식, 2007; 최경환 외, 2012) 등에서는 소득 대책으로 국민연금, 공적부조, 경로연금, 긴급지원제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 61세 이상 고령농업인들의 노후 소득실태를 분석한 결과, 농업소득이 주를 이루며, 소득으로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이 34.8%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경환·황의식, 2007).
 - 박대식 외(2009)의 연구에 의하면, 영세·고령농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7%이고, 건강보험은 75.2%가 가입하고 있으며, 미가입자가 19.6%에 이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복지패널데이터 2차 원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농어촌에서 빈곤인구율 대비 수급인구율이 낮아(대도시 93.5%, 중소도시 66.3%, 농어촌 48.6%) 농촌의 빈곤인구에 대한 생활보장이 미흡²⁾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진영·김미곤·여유진, 2008; 최경환 외, 2012).
 - 농촌고령자의 74.9%가 현재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대답하였다(박대식·최경환, 2006). 이에 농촌의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농업인 노후준비 실태 정기 조사,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 유도, 여성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 권장, 국민연금 가입 수준 향상 유도, 농지연금제도 개선, 고령

2) 2010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1). 이는 농촌에 기초수급대상자에는 미치지 못하나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에는 포함되는 계층의 인구가 도시에 비해 많음을 보여준다.

농업인 일자리 창출, 농업인의 노후준비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제안하였다(최경환 외, 2012).

- 고령농가는 대체로 독거노인 또는 노부부 형태의 영세농으로 경지규모는 1 ha 미만, 농산물 판매액은 500만 원 미만의 자급적 형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품목은 논벼(56.2%)와 채소 생산(16.3%)이 주를 이룬다(김정호 외, 2007).
 - 농가노인의 86.7%가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사일을 하는 이유로 61.1%가 농사일 밖에 모르기 때문, 23.8%가 돈이 필요해서라고 대답했으며, 응답자의 83.3%는 거동할 수 있는 한 계속 농사를 짓겠다고 하였다(박대식·최경환, 2006).
 -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노인들 중 절반이상이 농사일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음에도 농사일을 하고 있으며,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중 농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12.8%에 불과하여 대다수가 농업 이외의 소득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대식 외, 2013).
- 고령농업인들은 소득원 부족으로 생계형 영농이 불가피한 실정이다(김정호 외, 2007).
 - 고령농의 은퇴를 유도하면서 전업농의 규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도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2006년 농가경제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고령농은 농가소득이 2,063만 원인 반면 가계 지출은 2,113만 원으로 소득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정호 외(2007) 연구³⁾에서 고령농은 평균 111만 원의 사적이전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적이전소득이 없는 경우가 35.2%인 반면, 200만 원 이상도 6.2%나 되

3) 박대식·최경환(2006) 연구에서 2005년에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이다.

어 고령농업인 간에 사적이전소득의 차이가 컸다.

- 농외 경제활동의 월평균 수입은 평균 56만 원이고, 겸업농가의 소득은 전업농가의 소득보다 50%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박대식·최경환, 2006; 김정호 외, 2007).
 - 그럼에도 농외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비율은 11%에 그치는 것은 건강이 좋지 않아도 농사일은 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농사 외의 활동은 어렵게 느끼기 때문이다.
 - 고령 농업인이 농외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45.2%, ‘건강이 좋지 않아서’ 28.2%, ‘농사일이 너무 바빠서’ 12.1% 등이었다.
- 농촌의 노인일자리사업⁴⁾ 참여 경험을 분석한 박대식 외(2013)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농촌노인의 10.7%가 현재 참여하고 있고, 참여한 적이 있는 노인은 6.9%, 참여한 적이 없는 노인이 82.4%이었다.
 - 면단위 거주 노인의 경우 시·군청 소재지까지 가기 위해서 교통비가 많이 들고 통근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노인일자리사업은 농번기나 농한기 같은 농업의 계절적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어⁵⁾ 농촌노인의 참여가 도시지역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 최윤지(2014)는 농촌지역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제시하였다.

4)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장진입형(인력파견형, 시장형)과 사회공헌형(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이 있으며, 사회공헌형 사업은 9개월 동안 20만 원이 지급된다(박대식 외, 2013).

5) 노인일자리사업은 연중(9개월 혹은 12개월) 참여해야 하지만, 농촌노인은 농번기에는 농사일에 참여하고, 농한기에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 고령으로 노동이 불가능하나 토지를 보유할 경우 힘겹게 일을 하려고 하는 농업인을 위한 ‘농사일 도우미’, 농촌의 노인일자리 부족에 대한 노인 일자리 창출, 독거노인 증가와 주거생활 부담을 덜기 위한 공동취사활동, 보조금을 받기 힘든 고령 영세농업인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등

2.2. 농촌노인의 생활 실태 분석

- 노인실태조사(2014) 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도움의 경우 자녀로부터 현금지원 수혜율이 동부노인(48.8%)이 읍·면부 노인(28.3%)보다 높으며, 제공률은 동부노인(33.9%)이 읍·면부 노인(28.1%)에 비해 약간 높지만, 현물지원의 경우 수혜율이 읍·면부 노인(83.8%)이 동부 노인(79.6%)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2014).
 - 읍·면부 노인들은 동거자녀들에게 주는 것도 적고, 받는 것도 적었다.
 - 비동거 자녀로부터 현금을 주고받고 현물을 받는 정도는 도농간 차이가 거의 없지만, 비동거자녀에게 현물제공을 하는 경우는 동부보다 읍·면부 노인에서 더 많았다.
- 농촌에서 고령자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월 평균 생활비는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김정호 외(2007) 연구에서는 고령 농업인의 월평균 생활비는 64만 원, 노인가구의 생활비는 55만 원, 노인/자녀가구의 생활비가 94만 원으로 나타났다.
 - 박대식 외(2013) 연구에서는 응답 노인의 58.7%가 월 평균 생활비는 5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 23.3%는 50만 원 이하라고 답하였다.
- 농촌노인의 39.2%가 현재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의료비 부담을 꼽았으며, 36.1%가 생활비 부족, 17.9%가 건강상 문제 등이라고 하였다. 농촌

- 노인의 지출항목은 주거비(45.3%), 의료비(30.0%) 순으로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박대식 외, 2013).
- 고령농업인 중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57.7%, 건강상태가 아주 좋다고 느끼는 경우는 2.8%로, 대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김정호 외, 2007).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IADL 8개 항목(청소, 식사준비, 빨래, 걸어서 외출, 교통수단 이용 외출, 장보기, 전화걸고 받기, 약먹기)을 모두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노인은 45.9%에 그쳤다(조미형 외, 2013).
 - 읍·면부 남성노인은 질병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34.3%, 3개 이상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13.2%였는데 반해 여성노인은 질병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15.0%, 3개 이상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32.6%로 여성노인이 남성에게 비해 질병유병률이 높았다.
 -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감 모두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23.9%)이 남성노인(16.7%)에 비해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며,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남성이 24.1%, 여성이 30.0%였으며, 우울감을 경험한다는 비율은 남성이 19.0%, 여성이 34.3%로 나타났다.
 - 농촌지역에서는 하루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노인이 24.3%, 공동급식이나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이 1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식생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음식섭취가 부족하다는 대답은 남성노인의 9.9%, 여성의 16.5%였다(조미형 외, 2013).
 - 2005년 농업총조사 자료 분석에 따르면 60~70대 농가의 세대구성 중 1인 및 1세대 농가가 74%이상을 차지하여 상당수가 독거 또는 노부부 2인 가구인 것으로 파악된다(김정호 외, 2007).

- 남성 고령농업인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70.6%인 반면, 여성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31.1%인 것으로 나타났다.
-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의 비율은 동부 노인의 6.8%, 읍·면부 노인의 5.2%였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에 의하면, 고령자는 55세 이상이고,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이다.
-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농촌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80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증가하고,⁶⁾ 농업인의 은퇴 연령은 타 직종에 비해 늦은 현실을 감안하여 ‘65세 이상 노인’으로 설정한다.
 - 이하 고령자라는 용어를 상황에 따라 ‘노인’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 본 연구에서는 농촌을 읍·면지역으로 설정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면, 농촌은 읍·면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 제공되는 자료(2014년도 노인실태조사)가 읍·면을 합쳐서 제공하고 있어서, 읍과 면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6) 2010년 인구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 읍지역에 559,656명, 면지역에 1,246,724명 등 총 1,806,380명의 노인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연령대별 분포(읍/면)를 살펴보면, 65~74세 59.8%/56.2%, 75~84세 33.0%/35.9%, 85세 이상 7.2%/7.9%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미형 외, 2013).

3.1. 연구 내용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 제2장에서는 공표된 노인 관련 통계 원자료를 활용하여 농촌고령자 실태를 분석한다.
 - 제3장에서는 농촌노인 및 노인복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농촌고령자의 삶과 생활을 파악한다.
 - 제4장에서는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의 보건복지사업이나 지자체 정책 사례를 조사한다.
 -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개선방안을 제안한다.

표 1-1. 연구내용 및 방법

내용	연구방법
농촌고령자 실태분석	○ 노인실태조사(2014), 농가경제조사(2014), 노인일자리 참여 실태조사(2013년) 자료 분석
농촌고령자 인터뷰	○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부터 추천받기도 하고,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이용 어르신 인터뷰 진행
농촌고령자 대상 정책 및 사례조사	○ 현재 시행 중인 정부의 주요 노인복지정책 및 사업 ○ 농촌고령자 대상의 사업 및 정책 사례 · 완주군 두레농장 및 상호마을,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의 텃밭체험 강사 프로그램

3.2. 연구 방법

- 이 연구에서는 농촌고령자 관련 국내외 문헌 고찰, 공표된 노인 관련 통계 자료 분석, 농촌노인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국내외 사례 조사 등을 진행하였다.
 - 첫째, 노인실태조사(2014년), 농가경제조사(2014년), 노인일자리 참여

실태 조사(2013년)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읍·면 단위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생활 실태를 파악하였다.

- 둘째, 통계 수치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농촌고령자의 생활상을 파악하기 위해 가능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표 1-2).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인터뷰는 30분~1시간가량 진행되었으며, 1명 단독, 혹은 2명을 함께 만났다.
- 셋째, 농촌지역 거주 노인이 사업 대상이 되는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노인 대상 사업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농촌고령자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나 정책 사례로 마을 단위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완주군 두레농장과 상호마을 사례,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의 텃밭체험 강사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표 1-2. 인터뷰 대상 노인의 특성

	성별	연령	특이사항	거주지	비고(추천)
1	남	83세	농어촌희망재단 텃밭체험프로그램 참여	고창군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2	여	66세	농어촌희망재단 텃밭체험프로그램 참여		
3	여	78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김제시	김제노인복지관
4	여	73세	前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5	남	66세	前 자활사업 참여		
6	여	71세	복지관 이용 노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의성군	의성군노인복지관 분관
7	여	80세	복지관 이용 노인		
8	남	77세	두레농장 참여 노인	완주군	완주군청
9	여	70대	경로당 급식 이용 노인(2명)		-

제 2 장

농촌고령자 실태 분석

1. 농촌고령 인구 현황

- 2014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6,520,647명 중에서 면지역에 1,306,610명, 읍 지역에 656,280명이 거주하고 있다. 즉, 총 1,962,890명의 노인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것이다(표 2-1).
 - 지역별 노인 규모는 동지역 70%, 면 20%, 읍 10% 등이며,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농촌노인은 30% 정도라고 할 수 있다.
-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성별 분포는 여성노인과 남성노인 비율이 3:2 정도로 여성이 많다(표 2-2).
 - 읍·면 지역은 여성노인의 비율이 59.3%(읍), 59.7%(면)이며, 이에 비해 남성노인은 40.7%, 40.3%이다.
 - 동지역의 경우에도 여성 57.6%, 남성 42.4%로 성별 분포에 있어서는 읍·면지역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읍·면·동 연령대별 노인인구 비율을 비교하면, 면지역의 경우 노인인구의

절반 정도는 7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1).

- 75세 이상 노인비율은 면지역에서 48.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읍 43.6%, 동 37.8% 순이다.

○ 나이가 많아질수록 여성노인의 비율이 높아진다(표 2-2).

- 69세 미만의 노인은 성별 비율의 차이가 미미하지만, 점점 증가하여 80세 이상 노인의 성비는 7:3 정도로 여성노인의 비율이 2배 이상 높다.

표 2-1.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현황

(단위: 명)

		전체	65-69	70-74	75-79	80세 이상
전국	남	2,726,935	994,183	800,094	540,915	391,743
	여	3,793,712	1,085,162	1,000,828	804,767	902,955
	계	6,520,647	2,079,345	1,800,922	1,345,682	1,294,698
동	남	1,932,538	743,734	573,915	361,691	253,198
	여	2,625,219	819,595	698,136	525,003	582,485
	계	4,557,757	1,563,329	1,272,051	886,694	835,683
읍	남	267,268	91,635	77,131	56,596	41,906
	여	389,012	99,584	102,351	88,132	98,945
	계	656,280	191,219	179,482	144,728	140,851
면	남	527,129	158,814	149,048	122,628	96,639
	여	779,481	165,983	200,341	191,632	221,525
	계	1,306,610	324,797	349,389	314,260	318,164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청,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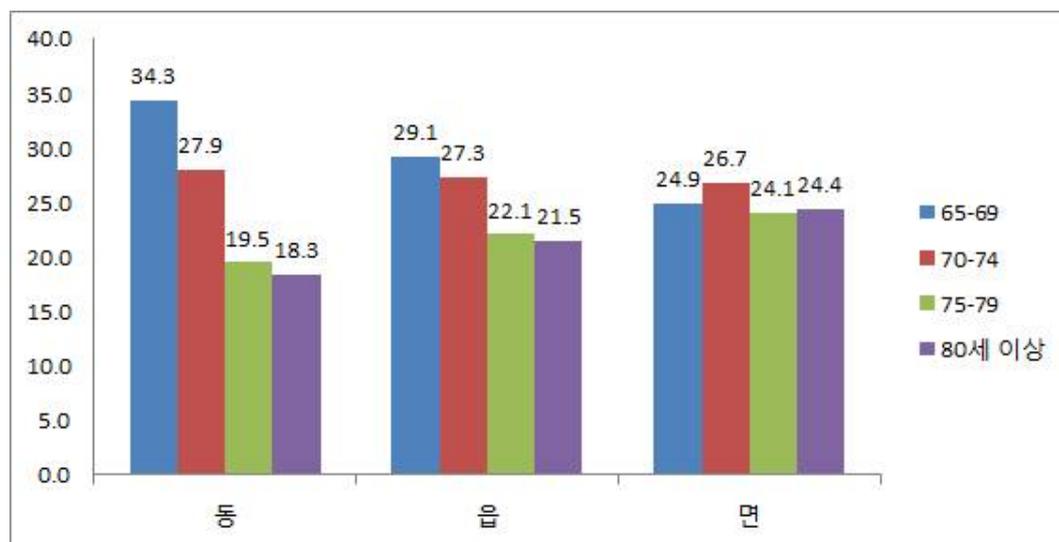
표 2-2.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성별·연령대별 분포

(단위: %)

		전체	65-69	70-74	75-79	80세 이상
동	남	42.4	16.3	12.6	7.9	5.6
	여	57.6	18.0	15.3	11.5	12.8
읍	남	40.7	14.0	11.8	8.6	6.4
	여	59.3	15.2	15.6	13.4	15.1
면	남	40.3	12.2	11.4	9.4	7.4
	여	59.7	12.7	15.3	14.7	17.0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청, 2014)

그림 2-1. 읍·면동 연령대별 노인 인구 비율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청, 2014)

2. 농촌노인 생활 실태 분석

2.1. 농촌노인의 일반적 특성

- 노인실태조사 2014년도 자료에서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 3,44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표 2-3).
- 결혼상태의 경우, 남성노인 중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10.4%이지만, 여성노인은 58.1%이다.
 -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차이는 더욱 커져서 80세 이상 84세 미만 여성노인 중에서 74.8%는 배우자가 없으며, 85세 이상은 8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구형태는 남성노인 중 9.0%는 독거가구이고, 노인부부가구는 69.2%이고, 17.5%는 자녀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노인 중에는 38.9%가 독거가구이고, 33.7%는 부부가구이며, 24.7%는 자녀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 중에서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높다.
- 교육수준의 경우 남성노인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별로 없다. 글자를 모르는 무학 노인은 4.1%(69세 이하 노인 중 1.8%), 글자 해독은 되는 노인이 14.8%이다. 이에 비해 여성노인은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 65세 이상 69세 이하 여성노인은 글자를 모르는 노인이 9.2%, 글자 해독은 되는 노인은 20.7%이지만, 85세 이상 여성노인의 42.3%는 글자를 모르며, 42.5%는 글자 해독이 되는 수준으로 85% 정도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로 남성노인의 경우 70세 미만 노인의 74.3%, 여성노인은 54.7%가 일을 하고 있다.
 -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취업률은 감소하지만, 80세 이상이 되어도 남성노인의 18.5%, 여성노인의 9.2%는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가구소득수준은 제1분위까지(연간 754만 원 이하)가 남성노인의 14.1%, 여성노인의 32.7%에 이른다.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IADL이나 ADL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은 남성의 12.7%, 여성의 28.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연령대별 일반적 특성

(단위: %)

		연령					계	
		65-69	70-74	75-79	80-84	85세 이상		
남	계	29.6	27.1	22.7	12.1	8.5	100.0	
	결혼 상태	배우자 있음	91.6	91.3	87.3	88.0	85.1	89.6
		배우자 없음	8.4	8.7	12.7	12.0	14.9	10.4
	가구 형태	노인독거	8.2	6.9	11.0	10.2	11.3	9.0
		노인부부	67.8	70.2	67.4	72.7	70.9	69.2
		자녀동거	17.0	18.8	18.0	15.7	16.4	17.5
		기타	7.0	4.1	3.7	1.5	1.3	4.3
	교육 수준	무학(글자 모름)	1.8	3.4	3.5	6.8	12.4	4.1
		무학(글자 해독)	7.0	12.5	19.6	21.4	26.5	14.8
		초등학교	35.1	38.6	38.3	40.9	34.9	37.5
		중학교	24.6	19.4	14.8	11.1	11.1	18.2
		고등학교	20.6	17.6	13.9	18.1	8.6	17.0
		대학(4년 미만)	3.3	2.0	2.7	0.4	0.0	2.2
	현 취업 상태	대학교 이상	7.5	6.5	7.3	1.3	6.4	6.3
		취업중	74.3	60.0	53.2	40.8	16.6	56.7
	연가구 소득	미취업	25.7	40.0	46.8	59.2	83.4	43.3
		제1분위	9.2	10.1	16.9	20.0	28.3	14.1
		제2분위	14.2	21.4	29.8	41.5	33.6	24.6

			연령					계	
			65-69	70-74	75-79	80-84	85세 이상		
여	기능 상태	제3분위	21.7	26.3	26.2	16.2	18.9	23.1	
		제4분위	34.5	25.7	16.4	11.1	10.8	23.2	
		제5분위	20.4	16.4	10.8	11.3	8.4	15.0	
	기능 상태	제한 없음	96.9	92.3	86.5	76.8	55.7	87.3	
		제한 있음	3.1	7.7	13.5	23.2	44.3	12.7	
	계			21.8	24.5	25.0	16.7	12.1	100.0
	결혼 상태	배우자 있음	66.4	50.6	37.9	25.2	11.3	41.9	
		배우자 없음	33.6	49.4	62.1	74.8	88.7	58.1	
	가구 형태	노인독거	21.1	35.3	47.0	50.4	45.6	38.9	
		노인부부	53.7	41.2	29.1	20.4	10.5	33.7	
		자녀동거	22.1	19.3	21.9	27.0	43.4	24.7	
		기타	3.1	4.2	2.0	2.3	0.5	2.6	
	교육 수준	무학(글자 모름)	9.2	16.7	24.3	35.4	42.3	23.2	
		무학(글자 해독)	20.7	32.8	44.6	41.1	42.5	35.7	
		초등학교	48.9	38.8	24.9	19.9	12.7	31.2	
중학교		8.9	7.1	2.8	2.1	1.4	4.9		
고등학교		9.4	3.0	2.6	0.3	1.0	3.6		
대학(4년 미만)		1.2	0.1	0.5	0.0	0.0	0.4		
현 취업 상태	대학교 이상	1.7	1.5	0.2	1.2	0.0	1.0		
	취업중	54.7	48.0	35.7	21.6	6.3	36.9		
연가구 소득	미취업	45.3	52.0	64.3	78.4	93.7	63.1		
	제1분위	13.6	27.3	41.1	45.4	43.0	32.7		
	제2분위	19.2	28.1	23.8	19.8	15.2	22.1		
	제3분위	25.4	18.4	16.2	11.5	15.4	17.8		
	제4분위	21.6	16.4	10.7	11.7	16.8	15.4		
	제5분위	20.3	9.8	8.3	11.6	9.6	12.0		
기능 상태	제한 없음	88.9	79.3	72.2	57.7	44.4	71.8		
	제한 있음	11.1	20.7	27.8	42.3	55.6	28.2		

주: 연가구소득 5분위: 1분위(754만 원 이하), 2분위(754만 원 초과~1,208만 원 이하), 3분위(1,208만 원 초과~ 1,946만 원 이하), 4분위(1,946만 원 초과~ 3,426만 원 이하), 5분위(3,426만 원 초과)(2014 노인실태조사 보고서 사용기준 적용)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표 2-4.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결혼상태별·가구형태별 일반특성분포

(단위: %)

			결혼상태		가구형태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노인 독거	노인 부부	자녀 동거	기타
남	교육 수준	무학(글자 모름)	75.1	24.9	19.7	68.3	9.3	2.8
		무학(글자 해독)	83.4	16.6	13.4	67.2	15.4	3.9
		초등학교	90.5	9.5	7.5	69.7	17.7	5.2
		중학교	92.8	7.2	4.8	69.8	20.8	4.6
		고등학교	90.0	10.0	8.5	69.3	19.0	3.2
		대학(4년 미만)	86.3	13.7	23.5	42.3	31.7	2.5
		대학교 이상	98.4	1.6	8.6	78.9	8.1	4.3
	현 취업 상태	취업중	92.8	7.2	6.4	73.0	16.6	3.9
		미취업	85.3	14.7	12.3	64.2	18.6	4.9
	연가구 소득	제1분위	66.1	33.9	34.6	63.3	1.8	0.2
		제2분위	93.6	6.4	7.4	87.3	1.6	3.6
		제3분위	94.2	5.8	4.6	77.8	11.1	6.5
		제4분위	93.9	6.1	3.6	64.6	26.8	4.9
		제5분위	91.2	8.8	2.3	38.9	53.7	5.1
기능 상태	제한 없음	90.1	9.9	8.6	68.6	18.0	4.8	
	제한 있음	85.7	14.3	11.5	73.5	13.9	1.2	
여	교육 수준	무학(글자 모름)	23.3	76.7	51.3	19.2	27.0	2.5
		무학(글자 해독)	33.2	66.8	45.0	27.3	25.2	2.5
		초등학교	57.0	43.0	27.0	45.8	24.2	3.0
		중학교	64.5	35.5	25.8	48.7	24.4	1.1
		고등학교	77.4	22.6	21.6	56.1	18.7	3.6
		대학(4년 미만)	85.5	14.5	14.5	70.2	15.3	0.0
		대학교 이상	55.4	44.6	39.9	55.4	0.0	4.8
	현 취업 상태	취업중	56.4	43.6	30.9	47.1	19.5	2.5
		미취업	33.4	66.6	43.6	25.9	27.8	2.7
	연가구 소득	제1분위	15.0	85.0	81.1	14.6	3.4	0.8
		제2분위	53.6	46.4	36.1	50.6	7.8	5.5
		제3분위	59.8	40.2	20.0	50.9	24.7	4.4
		제4분위	54.6	45.4	4.6	40.6	53.2	1.6
		제5분위	50.6	49.4	0.9	20.4	77.7	1.0
기능 상태	제한 없음	46.1	53.9	38.4	36.8	22.1	2.7	
	제한 있음	31.3	68.7	40.1	26.0	31.4	2.5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 <표 2-4>에서는 결혼상태 및 가구형태별로 농촌노인의 일반적 특성 차이를 살펴보았다.
-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 중에서 독거노인 비율이 남성노인은 11.5%이지만, 여성노인은 40.1%에 이른다. 하지만, 기능제한이 있는 남성노인은 자녀동거비율이 13.9%이지만 여성노인은 31.4%인 것으로 나타났다.
 - 남성노인은 거동이 불편하면 배우자와 함께 지내다가 사망하면 여성노인은 혼자 살게 된다. 또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에도 남성노인이 먼저 사망하고 여성노인 홀로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노인의 자녀와 동거 비율은 낮고, 여성노인의 독거 비율과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 무학인 노인 중에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수준 제1분위(연간 754만 원 이하)에 속하는 저소득노인은 여성노인 비율이 높다. 특히 1분위인 여성노인의 81.1%가 독거가구, 1분위인 남성노인의 34.6%가 독거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배우자와 사별 후 남겨진 여성노인의 취약한 상황이 드러난다.
- 취업중인 노인 중에서 노인부부 가구의 취업률이 더 높다.

2.2. 농촌노인 거주실태

2.2.1. 독거 및 부부가구 노인

- 앞의 <표 2-3>에 의하면, 노인 독거 혹은 부부가구의 비율이 남성노인 중에는 78.2%이고, 여성노인 중에는 72.6%에 이른다.

- 이들이 단독거주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성별과 연령, 가구형태, 기능상태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표 2-5).
- 노인부부가구는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기 싫어서 부부가 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노인 29.1%, 여성노인 31.5%로 가장 높다.
 - 노인독거가구는 자녀가 결혼해서(남성노인 33.0%, 여성노인 36.0%) 혹은 자녀가 직장(학업)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어서(남성노인 34.5%, 여성노인 30.5%) 혼자 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 기능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거주 하는 이유는 살고 있는 곳을 떠나기 싫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노인 28.7%, 여성노인 27.8%로 높다.
 - 노인 단독거주 하는 이유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건강해서, 개인(부부)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등 노인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 반면에 자녀가 결혼해서, 자녀가 타 지역에 있어서 등 상황이 단독거주를 선택하게 한 것이다.

표 2-5.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연령·결혼상태별 노인 단독거주 이유
(단위: %)

		연령대					가구형태		기능상태	
		65-69	70-74	75-79	80-84	85세 이상	노인 부부	노인 독거	제한 없음	제한 있음
남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6.6	2.5	3.0	0.0	4.1	7.7	3.1	4.0	1.4
	건강해서	1.0	2.5	1.4	0.5	0.0	1.6	1.3	1.5	0.0
	개인(부부)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15.2	10.8	9.7	11.8	9.4	13.3	11.6	12.2	9.3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기 싫어서	11.4	7.8	17.4	18.4	15.7	29.1	10.9	10.8	28.7
	자녀가 결혼해서	20.2	39.6	28.4	29.6	40.2	8.9	33.0	31.7	19.8
	자녀가 따로 살기를 원해서	4.6	3.2	7.5	5.8	6.2	16.3	3.7	4.6	9.2
	자녀가 직장(학업)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어서	38.3	30.8	30.0	30.1	22.0	12.5	34.5	32.8	25.7

		연령대					가구형태		기능상태	
		65-69	70-74	75-79	80-84	85세 이상	노인 부부	노인 독거	제한 없음	제한 있음
여	자녀의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아서	0.2	1.3	2.7	2.0	2.4	3.3	1.3	1.1	4.5
	기타	2.6	1.6	0.0	1.6	0.0	7.3	0.6	1.4	1.4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2.7	2.1	0.0	0.6	0.5	0.6	2.1	1.4	0.9
	건강해서	2.0	1.9	1.3	2.2	0.0	1.1	2.2	1.9	1.0
	개인(부부)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12.8	12.4	9.8	8.5	7.7	11.0	10.4	10.6	11.2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기 싫어서	12.7	17.5	25.9	34.2	31.3	31.5	12.3	20.9	27.8
	자녀가 결혼해서	33.9	23.9	23.0	22.5	14.3	15.2	36.0	27.3	17.6
	자녀가 따로 살기를 원해서	5.6	9.9	8.5	9.1	9.6	11.7	4.6	8.3	8.8
	자녀가 직장(학업)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어서	25.8	28.0	26.5	18.0	25.8	20.8	30.5	24.7	27.0
	자녀의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아서	1.8	3.1	4.5	4.9	7.0	5.9	1.4	3.7	4.1
기타	2.8	1.0	0.5	0.0	3.8	2.1	0.5	1.2	1.7	

주: 노인부부가구와 노인독거가구만 분석한 것임.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 이들이 단독거주하면서 힘든 점을 살펴보면(표 2-6),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연가구소득이 제5분위(3,426만 원 이상)에 속하는 노인 단독가구의 대부분은 남녀 구분 없이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 남성노인은 80세 이상이 되면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을 힘들어한다. 남성독거가구는 가사일 등 일상생활 문제를 처리하기 어려워하는 비율이 28.3%이며, 심리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으로 힘들어 하는 비율이 31.4%이다. 소득수준이 제2분위 이하인 노인은 경제적 불안감도 크며,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도 돌봄이나 일상생활 문제 처리보다도 경제적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노인은 일반특성에 상관없이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을 어려운 점으로 꼽고 있다.

표 2-6.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의 일반특성별 생활상의 어려움
(단위: %)

		노인단독가구 생활상의 어려움						
		없음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음	가사일 등 일상생활 문제를 처리하기 어려움	경제적 불안감	안전에 대한 불안감	심리적 불안감· 외로움	
남	연령	65-69	19.9	21.8	10.2	22.1	4.1	21.8
		70-74	14.8	18.9	13.3	25.1	5.7	22.1
		75-79	12.0	21.7	15.0	19.9	4.5	26.3
		80-84	3.4	31.6	17.2	21.8	5.8	20.2
		85세 이상	5.3	30.6	17.4	21.6	3.1	22.0
	가구 형태	노인독거	7.1	19.7	28.3	12.4	1.1	31.4
		노인부부	14.3	23.4	11.7	23.6	5.2	21.6
	현 취업 상태	취업중	12.9	20.8	15.7	19.7	5.7	24.9
		미취업	14.1	26.1	10.7	25.9	3.4	19.7
	연가구 소득	제1분위	5.7	24.7	17.1	29.4	0.2	22.8
		제2분위	8.9	27.6	15.4	27.1	3.1	17.4
		제3분위	9.2	23.0	12.7	23.3	4.4	27.5
		제4분위	20.9	18.0	12.3	15.8	10.1	22.9
		제5분위	40.4	15.0	5.7	2.9	8.3	27.8
	기능 상태	제한 없음	15.1	23.5	12.2	21.2	5.1	22.8
		제한 있음	1.3	19.4	24.1	30.5	2.4	22.3
여	연령	65-69	13.7	27.6	8.9	23.4	3.6	22.7
		70-74	6.0	36.0	16.1	18.7	4.1	19.0
		75-79	3.1	40.6	15.6	18.4	3.8	18.0
		80-84	3.5	39.2	20.6	17.0	1.4	18.3
		85세 이상	2.9	38.6	21.3	12.9	1.9	22.5
	가구 형태	노인독거	3.4	44.7	12.5	16.0	2.1	21.1
		노인부부	9.6	26.0	19.1	22.2	4.7	18.3
	현 취업 상태	취업중	6.3	32.3	14.9	17.5	4.8	24.4
		미취업	6.3	38.6	16.1	19.8	2.3	16.8
	연가구 소득	제1분위	2.5	43.2	16.7	19.0	2.1	16.6
		제2분위	7.2	35.6	12.8	22.3	2.4	19.3
		제3분위	4.9	30.4	14.5	20.4	2.6	27.2
		제4분위	13.2	24.1	18.8	11.3	10.7	22.0
		제5분위	34.8	12.8	19.7	4.8	8.1	19.9
	기능 상태	제한 없음	7.4	36.7	15.3	17.8	3.4	19.3
		제한 있음	3.1	34.2	16.4	21.9	2.9	21.1

주: 노인부부가구와 노인독거가구만 분석한 것임.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2.2.2.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 농촌노인이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은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여성노인은 본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같이 살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 외로워서 자녀와 같이 산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고, 자녀와 같이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노인도 연령이 적을수록 낮아져서 70세 미만 노인은 6.4%만 자녀와 같이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70세 미만 노인은 자녀에게 가사나 육아의 도움이나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같이 살고 있는 비율이 높지만, 75세 이상이 되면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과 돌봄을 받기 위해서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의 조사결과로 현재의 70세 미만 노인이 85세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자녀와 동거할 확률은 현재보다 훨씬 낮아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표 2-7.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성·연령별 기혼자녀 동거 이유

(단위: %)

	성		연령				
	남	여	65-69	70-74	75-79	80-84	85세 이상
자녀와 같이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17.3	21.3	6.4	12.9	20.9	30.6	25.8
혼자 또는 배우자와 사는 것만으로는 외로워서	1.9	4.9	1.0	6.1	2.7	4.6	5.5
나 또는 배우자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11.7	21.3	10.9	11.1	16.5	19.6	32.5
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20.7	26.9	17.5	24.5	28.3	28.2	24.8
자녀에게 가사, 육아 등의 도움을 주기 위하여	19.5	14.6	29.0	17.4	10.0	10.0	9.6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27.4	10.9	35.2	25.9	7.0	7.0	1.8
기타	1.3	0.2	0.0	2.1	0.3	0.0	0.0

주: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379가구만 분석한 것임.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제생활이나 일상생활 분담방식을 살펴보면, 여성노인은 생활비 부담 등의 경제생활을 자녀가 부담하는 비율이 74.3%이고, 남성노인의 45.0%는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8).
- 경제생활은 75세 미만 노인의 절반 정도가 생활비를 공동부담하며, 80세 이상 노인은 90% 정도가 자녀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상생활은 80세 정도까지는 공동부담하며, 특히 70세 미만 노인은 자녀가 부담하는 비율이 9.3%에 그친다.
 -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농촌노인은 자녀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지만, 가사 등의 일상생활은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 해결하거나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성·연령별 기혼자녀 동거 시 경제 및 일상생활 분담 방식

(단위: %)

		생활비 부담 등의 경제생활				가사 등의 일상생활			
		부모가 부담	자녀가 부담	공동부담	각자 알아서 따로 하는 편	부모가 부담 (수행)	자녀가 부담 (수행)	공동부담 (수행)	각자 알아서 따로 하는 편
성	남	10.4	43.1	45.0	1.5	14.7	26.7	53.3	5.4
	여	5.8	74.3	18.6	1.2	13.6	42.0	42.0	2.3
연령	65-69	19.6	34.6	43.8	2.0	22.7	9.3	67.6	0.3
	70-74	6.9	38.8	50.0	4.3	15.3	26.2	55.2	3.2
	75-79	5.9	64.2	29.1	0.8	8.8	24.0	61.3	5.9
	80-84	1.1	89.4	9.5	0.0	13.0	53.6	28.2	5.2
	85세 이상	5.9	88.9	5.3	0.0	13.5	64.6	21.9	0.0

주: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379가구만 분석한 것임.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2.2.3. 조손가정 노인

- 노인실태조사 자료에서 읍·면지역 노인 중 조손가정은 2.1%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9).

- 조손가정 노인 중 81%가 70세 이상이며, 85세 이상 노인 4.0%를 포함하여 80세 이상 노인이 14.1%에 이른다.
 - 손자녀를 돌보고 있지만, 글자를 모르는 노인이 17.7%이고, 글자 해독은 되지만 공교육을 받지 못한 노인도 2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생의 손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나 학업 지원 등이 어려운 노인이 47.3%로 절반 정도에 해당된다.
- 소득수준도 제1분위에 속하는 연간 754만 원 이하인 노인이 6.0%이고, 제2분위(1,208만 원 이하) 노인이 42.4%, 제3분위(1,946만 원 이하) 노인이 35.5%이며, 32.2%의 노인은 현재 취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읍·면지역 조손가정 노인의 일반특성

(단위: %)

		비율			비율			비율
연령	65-69	19.0	교육 수준	무학(글자 모름)	17.7	소득 수준	제1분위	6.0
	70-74	39.1		무학(글자 해독)	29.6		제2분위	42.4
	75-79	27.9		초등학교	41.2		제3분위	35.5
	80-84	10.1		중학교	6.0		제4분위	12.0
	85세 이상	4.0		고등학교	5.5		제5분위	4.1
성	남	41.7	취업 상태	취업중	32.2			
	여	58.3		미취업	67.8			

주: 조손가정에 해당하는 71명을 분석한 것임.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2.3. 농촌노인의 가족 관계

2.3.1. 배우자와의 관계

- 농촌노인 중 지난 1개월간 배우자와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15.2%이며, 갈등의 이유는 음주, 흡연, 늦은 귀가 등 생활습관 차이가 68.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제적 문제가 11.8%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10).

-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부간 가사분담으로 인한 갈등이 증가하는 것이 볼 수 있다. 75세 이상 노인은 경제적 문제보다는 가사분담으로 인한 갈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와의 갈등 실태
(단위: %)

		갈등경험률							
		계	성		연령				
			남	여	65-69	70-74	75-79	80-84	85세 이상
전체		15.2	15.6	14.6	15.7	17.5	13.9	13.5	9.1
갈등이유	경제적 문제	11.8	12.3	10.9	10.8	10.3	17.1	7.4	14.5
	자녀의 진로 문제와 결혼문제	3.4	3.6	3.0	5.8	2.4	1.5	3.7	-
	부모 부양 문제	0.2	0.4	-	-	-	1.1	-	-
	부부간 가사 분담	8.6	8.2	9.1	4.8	9.0	11.0	13.3	12.1
	배우자의 여가생활과 사회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	3.2	2.7	4.0	4.3	3.5	3.1	-	-
	생활 습관(음주, 흡연, 늦은 귀가 등) 차이	68.4	69.1	67.3	73.2	67.3	62.2	66.9	73.4
	기타	4.5	3.6	5.7	1.0	7.5	3.9	8.7	-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배우자가 있는 노인 2,137명을 분석한 것임.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2.3.2. 자녀와의 관계

- 비동거 자녀와의 왕래빈도를 살펴보면, <표 2-11>과 같다. 자녀가 거의 매일 왕래하는 노인은 7.8%이고, 31.9%는 월 1회 정도 왕래하며, 24.5%는 분기 1-2회로 명절이나 생일 등에만 왕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주 1회 이상은 자녀와 연락을 하고 있으며, 매일 연락하는 노인은 26.7%이지만,

월1회 정도 연락하는 노인도 19.1%인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노인가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는 장남 32.2%, 장녀 25.2%, 차남 14.6%, 차녀 10.8%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12).
 - 이들은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걸어서 30분 이내 거리에는 10.3%, 자동차로 30분 이내 거리에 21.2%가 거주하며, 46.4%는 자동차로 1시간 이상 거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비동거 자녀 전체와의 왕래/연락빈도

(단위: %)

	거의 매일	주 2,3회	주1회	월1회	분기 1,2회	연 1,2회	왕래(연락) 없음	전체
왕래빈도	7.8	8.4	16.6	31.9	24.5	9.5	1.3	100
연락빈도	26.7	24.4	23.0	19.1	3.3	1.6	1.9	100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표 2-12.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의 제특성

(단위: %)

특성		비율	특성		비율
형제·자매 순위	장남	32.2	거주 거리	걸어서 10분 이내	4.0
	차남	14.6		걸어서 10~30분 이내	6.3
	삼남 이상	7.3		자동차로 30분 이내	21.2
	장녀	25.2		자동차로 30분~1시간 이내	21.5
	차녀	10.8		자동차로 1~2시간 정도	22.7
	삼녀 이상	7.5		자동차로 2~3시간 정도	10.8
				자동차로 3시간 이상	12.9
		기타·해외거주	0.6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2.4. 노후 생활과 삶의 질

2.4.1. 농촌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 농촌노인의 노후 생활에 대한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표 2-13),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75.4%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배우자와의 관계 68.9%, 친구·지역사회관계 61.6% 순으로 높은 편이지만, 경제상태에 대해 만족하는 노인은 15.5%에 그치고, 건강상태(27.5%)나 사회여가문화활동(33.8%)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비율이 낮다.
 -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삶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특히 건강상태에 있어서는 남성노인은 만족하는 비율이 36.8%이지만, 여성노인은 21.3%에 그쳤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남성노인은 75.0%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노인은 60.2%로 그 차이가 크다.
 - 고연령, 미취업, 기능제한 등의 특성을 보이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가구나 자녀동거 노인의 만족도가 독거노인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구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상태,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회여가문화활동 및 친구·지역사회 관계마저도 가구소득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상태에 대해서는 여성노인의 12.5%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높은 노인의 경우에도 경제상태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 남성노인의 경우 가구소득이 제5분위에 속하는 노인의 39.3%만이 만족하고, 여성노인의 17.6%만이 경제상태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2-13.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삶의 만족도

(단위: %)

		만족하는 비율 ¹⁾						
		건강 상태	경제 상태	배우자 와의 관계	자녀와 의 관계	사회여가 문화활동	친구· 지역사회 관계	
전체		27.5	15.5	68.9	75.4	33.8	61.6	
남	소계	36.8	19.9	75.0	76.9	39.0	61.5	
	연령	65-69	49.7	23.1	82.8	80.2	44.4	70.1
		70-74	38.6	23.3	76.9	77.5	39.0	63.8
		75-79	30.4	20.5	71.7	75.1	39.0	58.2
		80-84	23.8	9.7	64.0	77.6	33.1	53.9
		85세 이상	20.5	10.6	63.6	67.9	27.4	42.8
	가구 형태	노인독거	33.8	13.6	38.7	58.7	25.6	47.4
		노인부부	37.9	21.5	74.9	80.5	41.7	64.0
		자녀동거	34.7	17.6	76.8	76.6	38.0	58.5
		기타	34.8	18.2	79.8	60.7	27.6	62.9
	현 취업 상태	취업중	45.6	23.9	77.9	79.8	43.0	69.7
		미취업	25.1	14.6	70.8	73.1	33.5	50.5
	연가구 소득	제1분위	23.4	4.6	62.4	61.6	24.3	43.6
		제2분위	26.6	8.4	72.7	73.0	31.7	53.6
		제3분위	38.4	22.2	76.1	84.0	44.2	67.3
		제4분위	48.7	26.4	73.9	78.4	41.1	66.7
		제5분위	44.8	39.3	87.0	83.7	52.7	73.7
기능 상태	제한 없음	40.3	21.7	76.1	77.5	41.9	64.0	
	제한 있음	10.0	6.7	66.3	72.3	16.4	42.4	
소계		21.3	12.5	60.2	73.4	30.4	61.7	
여	연령	65-69	28.1	12.7	63.5	77.9	35.3	60.6
		70-74	21.4	13.5	63.5	74.4	29.8	64.6
		75-79	16.8	11.5	56.3	73.7	30.5	67.7
		80-84	16.9	11.2	54.5	72.0	31.6	57.8
		85세 이상	23.8	13.9	37.8	72.6	19.8	49.8
	가구 형태	노인독거	19.5	11.4	-	69.0	27.1	64.4
		노인부부	21.7	14.7	59.6	82.1	36.1	62.5
		자녀동거	23.0	12.0	62.6	75.1	29.3	57.5
		기타	25.4	4.4	66.9	44.5	14.8	49.1

			만족하는 비율 ¹⁾					친구·지역사회 관계
			건강 상태	경제 상태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회여가 문화활동	
여	현 취업 상태	취업중	27.9	15.2	62.3	77.3	34.6	67.7
		미취업	17.2	10.8	58.0	72.5	27.8	58.1
	연가구 소득	제1분위	16.9	7.3	43.1	66.4	24.5	60.4
		제2분위	17.5	7.8	61.0	73.5	29.3	59.3
		제3분위	24.3	16.4	60.8	79.2	33.6	67.6
		제4분위	28.4	22.0	61.2	76.8	34.7	60.4
		제5분위	26.6	17.6	70.0	86.8	38.1	62.8
	기능 상태	제한 없음	25.4	14.3	61.6	76.5	35.1	66.2
		제한 있음	10.1	7.6	54.5	68.7	17.8	49.6

주: 1) 5점 척도 중에서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한 값임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표 2-14.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가구형태에 따른 경제상태 만족도별 연소득수준
 (단위: %, 만 원)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함	만족함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노인 독거	응답 비율	0.3	11.4	30.2	47.6	10.4
	본인 총수입액	1,308.4 (625.4)	1,145.5 (911.1)	845.7 (537.9)	635.5 (323.0)	589.4 (268.0)
	가구 총소득금액	1,696.3 (185.6)	1,151.9 (911.8)	873.1 (582.8)	656.6 (352.6)	603.2 (269.9)
노인 부부	응답 비율	0.5	18.1	37.9	36.4	7.0
	본인 총수입액	1,907.9 (1,597.7)	1,613.4 (1,731.0)	981.9 (987.7)	636.1 (610.9)	531.7 (395.9)
	가구 총소득금액	3,326.3 (1,521.9)	2,591.3 (1,980.2)	1,835.8 (1,267.9)	1,270.2 (833.9)	1,097.8 (435.7)
자녀 동거	응답 비율	0.5	13.3	34.2	44.0	8.0
	본인 총수입액	1,676.9 (1,451.6)	1,157.4 (1,467.0)	696.4 (700.6)	565.6 (611.9)	540.7 (452.0)
	가구 총소득금액	5,135.0 (2,735.5)	4,352.7 (2,359.8)	3,373.7 (1,914.7)	3,134.2 (1,898.5)	2,521.7 (1,330.7)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 가구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노인 본인이 수입액이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노인 본인의 총수입액이 어느 정도이면 만족하는지 살펴보았다(표 2-14).
 -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경제 상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연간 소득수준은 850만 원에서 1,15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즉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이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은 본인 소득수준이 연간 700만 원에서 1,150만 원 정도(월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이면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2.4.2. 농촌노인의 연령 규범

- 농촌노인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평균 72.03세(표준편차 6.1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15).
 - 절반 정도의 노인이 70세(69세 9.7%, 70세 40%)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며, 80세 또는 99세부터 노인이라고 응답한 노인도 15%(79세 2.0%, 80세 14.5%)를 넘는다.

표 2-15. 농촌노인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60세	65세	69세	70세	74세	75세	79세	80세	99세	평균 (표준편차)
비율 (%)	2.9	8.8	9.7	40.0	2.1	12.4	2.0	14.5	1.4	72.03세 (6.16세)

주: 제시된 연령부터 노인이라고 인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다. 응답 범주 중에서 응답 비율이 1%가 넘는 연령만 표시한 것이다.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농촌에서는 일할 수 있을 때까지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사실상 내 농사를 짓고 있으면 은퇴 기간이라는 게 없어요. 몸이 건강할 때까지 계속 일을 하시니까요. 어르신들에게 여쭙보더라도 대부분 70대 전후로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다른 일을 좀 찾아봐야겠다 싶은 그 시점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체적인 부분, 건강하고 맞물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노인 안에서도 각각의 경험이나 욕구가 나이대별로 크게 차이가 나요. 생활패턴이나 인식도 다르고 소비 성향도 다르고요.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60세부터인데 70세 미만 분들은 완전히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 노인을 다 하나의 범주 안에 놓고 있으니까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지죠.

(노인복지관 실무자 인터뷰 중)

- 노인들의 연령규범을 살펴보면, ‘노인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좋아보인다는 노인이 65.8%, ‘노인이 일하는 것’은 61.4%, ‘노인이 젊어 보이려고 외모를 가꾸는 것’은 58.3%이지만, ‘노인이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21.1%만이 좋아보인다고 응답하였다(표 2-16).
 -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4가지 모두에서 긍정적인 비율이 높았다. 재혼에 대해서 좋아보인다고 응답한 남성노인은 36.3%인데 비해 여성노인은 10.8%에 그친다.
 - 나이가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이 연령규범에 있어 긍정적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6.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연령규범

(단위: %)

		연령규범 ¹⁾			
		노인이 일하는 것	노인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노인이 젊어 보이려고 외모를 가꾸는 것	노인이 재혼하는 것
전체		61.4	65.8	58.3	21.1
성	남	66.8	70.9	61.6	36.3
	여	57.8	62.3	56.1	10.8
연령	65-69	74.1	78.9	68.8	29.9
	70-74	65.1	70.4	60.7	21.8

		연령구분 ¹⁾			
		노인이 일하는 것	노인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노인이 젊어 보이려고 외모를 가꾸는 것	노인이 재혼하는 것
	75-79	55.7	59.2	53.8	17.7
	80-84	53.1	56.4	52.1	14.2
	85세 이상	46.4	51.3	46.0	15.7
교육 수준	무학(글자 모름)	48.8	54.1	48.2	9.7
	무학(글자 해독)	54.7	57.2	52.4	13.3
	초등학교	65.3	70.3	60.6	23.1
	중학교	67.6	73.5	61.8	34.3
	고등학교	74.9	78.1	71.8	34.1
	대학 이상	75.8	83.0	77.1	37.6
현 취업 상태	취업중	66.5	69.9	60.1	25.5
	미취업	57.3	62.5	56.8	17.5

주: 1) 5점 척도 중에서 '좋아 보이는 편이다'와 '매우 좋아보인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한 값임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2.4.3. 농촌노인의 자살 생각 이유

- 농촌노인 중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노인이 8.9%이고 시도한 적이 있는 노인도 1.1%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17).
 - 그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33.6%, 건강 32.5%, 배우자·가족·지인과의 갈등 14.2%, 외로움 11.3%, 배우자·가족·지인의 사망 4.9%, 배우자·가족의 건강 및 수발문제 3.2% 순이었다.
-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자살생각율과 자살시도율이 높다.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에 있어서도 남성노인은 외로움이 16.2%로 여성노인(8.9%)에 비해 높으며, 여성노인은 건강문제가 35.4%로 남성노인(26.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특성별로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70세 이상 노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노인은 다음과 같이 자살생각률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여성노인은 차이가 눈에 띄지 않는다.

- 남성의 경우, 연령별로는 70~74세 노인의 자살생각률이 10.2%로 가장 높았으며, 이유로 20.5%가 배우자·가족·지인과의 갈등 때문이라고 하였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15.7%)이 있는 노인(6.2%)에 비해 높았고, 독거노인이 16.8%로 높았으며, 이들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고 다음은 외로움이었다. 연가구소득 제1분위에 속하는 노인의 자살생각율도 12.0%이다.
- 여성의 경우 혼자 사는 노인과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의 자살생각율의 별 차이가 없다.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가 독거노인은 건강상의 문제가 42.8%인데 비해 자녀동거 가구는 경제적 어려움이 3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정 등 기타에 속하는 노인의 자살시도율이 3.4%에 이르며, 그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74.5%)이다.

표 2-17.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일반특성별 자살생각 이유 및 시도
(단위: %)

		자살 생각 률	자살 시도 율	자살생각 이유						
				건강	경제 적 어려 움	외로 움	배우 자 가족· 지인 의 사망	배우 자 가족· 지인 과의 갈등	배우 자 가족 의 건강· 수발 문제	
전체		8.9	1.1	32.5	33.6	11.3	4.9	14.2	3.2	
남	소계	7.3	0.7	26.6	35.5	16.2	3.0	14.4	3.9	
	연령	65-69	5.7	0.2	22.0	25.5	18.7	10.1	23.7	0.0
		70-74	10.2	1.8	22.4	37.9	12.9	0.0	20.5	5.2
		75-79	7.9	0.6	41.6	37.1	15.3	0.0	3.8	2.3
		80-84	2.6	0.4	31.9	38.5	15.0	14.6	0.0	0.0

		자살 생각 률	자살 시도 율	자살생각 이유						
				건강	경제 적 어려 움	외로 움	배우 자 가족 지인 의 사망	배우 자 가족 지인 과의 갈등	배우 자 가족 의 건강 수발 문제	
여		85세 이상	7.7	0.0	12.9	45.1	27.0	0.0	0.0	14.9
	결혼 상태	배우자있음	6.2	0.6	30.5	32.3	15.9	3.9	14.4	3.0
		배우자없음	15.7	1.9	13.3	46.2	17.6	0.0	14.2	6.9
	가구 형태	노인독거	16.8	1.1	14.5	50.9	19.2	0.0	15.4	0.0
		노인부부	6.0	0.7	31.7	29.7	10.1	5.2	19.3	4.0
		자녀동거	7.9	0.6	27.5	33.6	28.6	0.0	0.0	8.1
		기타	3.4	1.9	0.0	55.7	44.3	0.0	0.0	0.0
	현 취업 상태	취업중	5.2	0.2	28.1	30.2	18.5	5.8	16.0	1.4
		미취업	9.8	1.4	25.6	39.1	14.7	1.1	13.3	5.7
	연가구 소득	제1분위	12.0	1.3	11.4	68.6	16.0	0.0	4.0	0.0
		제2분위	5.0	0.8	28.9	40.7	0.0	3.7	20.9	5.7
		제3분위	7.0	0.2	46.6	23.4	15.9	0.0	8.1	6.1
		제4분위	5.8	1.4	20.6	21.6	5.9	0.0	43.4	8.5
		제5분위	8.9	0.0	25.6	17.0	42.3	12.8	0.0	0.0
	기능 상태	제한 없음	6.9	0.6	23.4	37.4	16.9	2.8	14.7	4.7
		제한 있음	9.5	1.6	42.6	25.6	12.9	3.8	12.6	0.0
	소계		10.2	1.4	35.4	32.8	8.9	5.8	14.1	2.8
연령	65-69	10.6	1.5	39.0	25.1	12.5	6.7	15.7	0.0	
	70-74	10.8	1.7	38.1	34.1	10.0	3.6	11.4	2.9	
	75-79	10.0	1.8	28.7	34.3	8.3	6.5	20.3	1.9	
	80-84	9.7	0.9	40.7	36.0	8.4	0.0	10.2	4.7	
	85세 이상	8.5	0.5	28.0	37.6	0.0	17.5	8.7	8.2	
	결혼 상태	배우자있음	8.8	1.1	37.1	28.6	8.9	5.6	16.9	2.3
		배우자없음	11.0	1.6	34.4	35.1	8.8	6.0	12.6	3.1
	가구 형태	노인독거	11.2	1.8	42.8	30.3	11.6	5.2	10.1	0.0
		노인부부	8.4	0.9	35.3	29.7	11.5	2.3	17.4	3.0
		자녀동거	10.6	1.1	25.6	36.2	2.3	9.8	18.5	7.6
기타		9.3	3.4	9.2	74.5	0.0	16.4	0.0	0.0	

		자살 생각 률	자살 시도 율	자살생각 이유						
				건강	경제 적 어려 움	외로 움	배우 자 가족 지인 의 사망	배우 자 가족 지인 과의 갈등	배우 자 가족 의 건강· 수발 문제	
현 취업 상태	취업중	6.6	0.5	35.5	29.2	15.2	0.0	15.6	3.5	
	미취업	12.1	1.9	35.3	33.9	6.8	7.7	13.6	2.6	
연가구 소득	제1분위	11.7	1.6	42.2	29.6	10.6	5.0	12.6	0.0	
	제2분위	9.3	1.4	21.7	51.2	8.7	5.1	9.8	2.4	
	제3분위	7.1	1.6	51.4	14.0	8.9	4.7	20.3	0.7	
	제4분위	8.5	1.3	15.5	26.4	9.5	11.4	27.0	10.2	
	제5분위	13.6	0.8	40.1	36.7	4.6	5.0	7.9	5.8	
기능 상태	제한 없음	9.3	1.6	31.8	35.5	8.9	5.6	16.5	1.7	
	제한 있음	12.1	0.8	42.3	27.4	8.7	6.3	9.5	5.0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2.4.4. 농촌노인의 노후 생활비 마련

- 농촌노인은 노후 생활비를 ‘본인과 사회보장제도가 함께 마련’(33.0%)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본인 스스로 마련’(29.3%), ‘사회보장제도 등 국가 차원에서 보장’(19.5%), ‘자녀가 마련’(10.2%), ‘본인과 자녀가 함께 마련’(7.5%) 순이었다(표 2-18).
 - 사회보장제도에서 일정 부분 노후 생활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노인이 50%를 넘고 있다. 아직도 전적으로 사회보장제도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크게 높지는 않지만, 본인이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노인독거가구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을 원하는 비율이 남녀 모두 과반수이다(남성 66.1%, 여성 58.8).

- 가구소득수준이 높아져도 사회보장제도가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 노후 생활비 보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8.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일반특성별 이상적인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단위: %)

		이상적인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본인 스스로	자녀	사회보장 제도	본인과 자녀	본인과 사회보장 제도	기타	
전체		29.3	10.2	19.5	7.5	33.0	0.6	
남	연령	65-69	44.8	1.5	12.5	5.0	36.2	0.0
		70-74	41.0	4.1	14.9	5.7	33.7	0.5
		75-79	37.3	8.0	16.3	7.4	30.6	0.4
		80-84	22.2	8.9	19.2	10.4	38.8	0.4
		85세 이상	25.8	17.5	17.8	5.6	32.2	1.1
	결혼 상태	배우자있음	39.0	5.6	14.3	6.5	34.3	0.3
		배우자없음	27.9	8.6	23.5	6.0	33.4	0.6
	가구 형태	노인독거	23.5	7.5	21.8	2.1	44.3	0.7
		노인부부	39.3	4.5	14.7	7.0	34.1	0.4
		자녀동거	37.2	10.7	14.1	5.5	32.5	0.0
		기타	47.6	4.9	15.2	9.9	22.3	0.0
	현 취업 상태	취업중	44.2	2.9	11.6	5.5	35.6	0.3
		미취업	29.3	9.9	20.2	7.7	32.4	0.5
	연가구 소득	제1분위	26.5	6.2	27.7	3.8	34.9	0.9
		제2분위	27.8	7.2	19.8	7.8	36.5	1.0
		제3분위	37.9	4.3	10.6	7.3	39.9	0.0
		제4분위	46.3	5.3	10.8	6.3	31.4	0.0
		제5분위	51.4	7.1	10.7	5.3	25.4	0.0
	기능 상태	제한 없음	40.3	5.2	14.3	6.3	33.7	0.3
		제한 있음	18.7	11.6	23.1	7.5	38.4	0.8
여	연령	65-69	35.3	6.2	16.3	6.1	35.9	0.2
		70-74	27.6	9.7	21.4	9.0	31.9	0.4
		75-79	21.7	11.6	26.3	8.5	31.0	0.9

		이상적인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본인 스스로	자녀	사회보장 제도	본인과 자녀	본인과 사회보장 제도	기타
	80-84	14.8	16.2	27.4	8.8	32.6	0.1
	85세 이상	8.3	32.3	19.5	9.9	27.5	2.4
결혼 상태	배우자있음	31.1	7.0	18.2	6.5	36.5	0.6
	배우자없음	17.9	17.5	25.3	9.6	28.9	0.7
가구 형태	노인독거	18.5	13.2	27.1	9.1	31.7	0.3
	노인부부	31.5	5.6	19.3	6.7	36.6	0.3
	자녀동거	19.0	22.5	19.2	9.6	27.9	1.9
	기타	35.2	21.0	18.3	5.0	20.6	0.0
현 취업 상태	취업중	29.8	7.3	16.5	8.4	37.8	0.2
	미취업	19.7	16.5	25.8	8.3	28.7	1.0
연가구 소득	제1분위	17.0	12.5	30.0	8.3	31.7	0.4
	제2분위	23.7	10.7	20.8	10.0	34.4	0.4
	제3분위	27.7	10.3	21.1	7.9	32.5	0.6
	제4분위	27.2	13.7	18.5	8.6	30.3	1.7
	제5분위	29.9	22.4	10.6	5.3	31.1	0.8
기능 상태	제한 없음	26.0	13.1	21.4	7.4	31.8	0.3
	제한 있음	16.7	13.1	24.9	10.7	33.0	1.6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 농촌노인의 노후에 희망하는 활동을 살펴보면, 남성노인은 취미여가활동 61.8%, 소득활동 48.9%, 친목단체활동 43.2%, 종교활동 30.8% 순이며, 여성노인은 취미여가활동 57.4%, 종교활동 47.0%, 소득활동 28.5%, 친목단체활동 26.2%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은 여성노인에 비해 소득활동이나 친목단체활동을 원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노인은 종교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표 2-19).

표 2-19.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일반특성별 향후 노후 생활: 활동별 희망정도
(단위: %)

		소득 활동	자원봉 사활동	학습 활동	취미여 가활동	종교 활동	정치사 회단체 활동	친목단 체활동
성	남	48.9	6.6	7.8	61.8	30.8	0.8	43.2
	여	28.5	4.6	13.1	57.4	47.0	0.2	26.2
연령	65-69	55.8	10.5	16.3	67.9	42.1	0.6	51.7
	70-74	44.2	6.9	9.9	61.8	41.8	0.4	37.9
	75-79	32.4	2.9	11.3	58.3	38.5	0.7	28.8
	80-84	18.4	1.9	9.1	51.4	37.5	0.3	17.9
	85세 이상	6.9	0.5	2.2	44.0	41.8	0.0	6.5
결혼 상태	배우자있음	44.9	7.3	11.2	61.4	38.0	0.7	40.9
	배우자없음	23.8	2.4	10.5	55.6	44.4	0.2	20.7
가구 형태	노인독거	24.7	2.9	11.5	57.6	44.5	0.3	21.1
	노인부부	46.0	7.2	11.5	62.0	38.0	0.8	39.9
	자녀동거	31.2	3.6	9.0	55.8	40.4	0.0	31.9
	기타	36.5	12.0	10.0	52.7	44.0	0.0	38.8
현 취업 상태	취업중	74.2	6.0	11.3	63.5	39.1	0.7	42.6
	미취업	5.5	4.9	10.6	55.5	41.6	0.3	25.0
연가구 소득	제1분위	20.4	2.7	9.7	50.3	41.2	0.3	17.2
	제2분위	35.8	3.2	8.1	57.4	38.3	0.1	25.2
	제3분위	46.3	6.7	10.2	63.6	40.5	0.7	40.3
	제4분위	46.7	7.3	13.6	66.5	40.3	0.8	43.3
	제5분위	41.2	9.9	15.5	62.1	43.2	0.6	51.6
기능 상태	제한 없음	42.1	6.6	12.3	61.8	42.0	0.6	38.9
	제한 있음	16.2	0.9	5.6	49.1	34.4	0.0	10.8

주: 5점 척도에서 '반드시 하고 싶음'과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의 비율을 합한 값이다.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2.5. 여가 및 사회활동

2.5.1. 여가문화활동

- 농촌노인의 여가문화활동을 살펴보면(표 2-20), TV시청, 사회활동, 산책, 화투·고스톱 등의 취미오락활동이 주를 이루며, 다음으로 스포츠참여나 관광활동, 화초·텃밭가꾸기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TV시청, 화투·고스톱, 화초·텃밭가꾸기 활동의 비율이 높으며, 남성노인은 등산, 바둑·장기·윷놀이, 산책 등의 활동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휴식활동참여율이 90%를 넘고, 취미오락활동이 40% 정도이며, 그 밖의 활동들은 미미하다.
 - 문화예술관람활동을 하는 노인은 1%도 안되며, 악기연주·노래교실, 미술활동 등에 참여하는 노인도 4% 정도에 그친다.

표 2-20.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및 주된활동: 1~3순위 중복 응답

(단위: %)

		성		연령				
		남	여	65-69	70-74	75-79	80-84	85세 이상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98.4	98.5	98.8	99.4	98.4	97.9	96.1
주된 여가 활동	문화예술관람활동	0.5	0.3	0.5	0.4	0.4	0.1	0.0
	영화보기	0.5	0.1	0.5	0.4	0.0	0.1	0.0
	기타	0.0	0.2	0.0	0.0	0.4	0.0	0.0
	문화예술참여활동	4.2	4.1	6.2	4.4	4.4	1.6	2.0
	악기연주·노래교실	2.2	3.1	4.0	3.3	2.6	1.1	1.2
	미술활동(그림, 서예 등)	1.2	0.7	1.4	0.8	1.3	0.1	0.3
	춤·무용	0.1	0.1	0.0	0.4	0.0	0.0	0.0

		성		연령				
		남	여	65-69	70-74	75-79	80-84	85세 이상
	기타	1.0	0.2	1.0	0.0	0.7	0.5	0.5
	스포츠관람활동	1.7	0.0	0.9	0.4	1.0	0.8	0.0
	스포츠참여활동	8.7	6.5	10.2	8.5	6.6	5.3	3.2
	관광활동	7.7	3.8	7.8	5.4	5.3	4.5	1.2
	자동차 드라이브	1.4	0.1	1.5	0.4	0.6	0.3	0.0
	기타	6.3	3.7	6.3	5.0	4.8	4.2	1.2
	취미오락활동	40.4	39.2	44.6	42.0	39.5	37.8	25.7
	화투·고스톱 등	10.3	18.8	11.9	17.7	16.4	18.1	11.8
	등산	6.1	1.4	6.3	3.1	3.3	0.8	0.0
	화초·텃밭가꾸기	5.2	10.0	10.6	8.2	7.2	7.7	4.5
	독서·만화책·종교서적 보기	5.7	5.8	6.6	5.2	7.0	3.6	5.2
	낚시	2.1	0.0	1.3	1.0	0.7	0.1	0.7
	바둑·장기·윷놀이 등	8.7	4.2	6.4	6.8	6.0	5.2	4.5
	기타	8.3	4.3	9.1	5.5	5.0	5.6	2.4
	휴식활동	90.2	91.6	89.6	91.6	90.3	91.7	93.7
	TV시청	84.9	87.8	85.5	86.4	86.7	87.3	88.6
	산책	12.9	8.8	10.7	10.8	9.5	10.5	11.2
	음악감상	2.3	2.7	2.5	2.9	1.9	2.8	2.4
	기타	27.8	25.6	22.2	24.1	27.7	29.7	34.8
	사회 및 기타활동	40.5	48.2	46.0	49.2	46.3	41.0	36.3
	종교활동	2.9	7.6	5.9	5.6	5.4	5.5	6.5
	그 외 사회활동	35.2	41.3	37.6	43.6	40.9	35.0	31.2
	기타활동	4.0	2.9	3.8	3.3	3.6	3.4	1.6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2.5.2 노인복지시설 이용 현황

- 경로당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읍·면지역 노인의 이용 비율(53.9%)이 동 지역(17.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노인복지관 이용 비율은 동 지역(9.2%), 읍·면 지역(7.5%)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로당은 평균 주 4.28일(표준편차 2.434일) 정도 이용하며, 79.1%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21).
 - 만족하지 않는 노인은 2.2%로 매우 낮았다.⁷⁾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는 이용하는 노인들과 맞지 않아서(59.9%),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19.6%) 등이었다.
 -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유는 친목 도모 88.7%, 식사서비스 이용 4.9%, 각종 여가프로그램 이용 3.6%에 그쳤다(표 2-22).
- 노인복지관은 평균 주 2.38일(표준편차 1.794일) 이용하며, 경로당에 비해 만족하는 비율이 높아서 91.7%에 이른다(표 2-21).
-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각종 여가프로그램 이용 55.6%, 식사서비스 이용 17.3%, 친목 도모 14.4% 순이었으며, 만족하지 않는 노인이 0.9%에 그쳤다(표 2-22).

표 2-21.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이용정도와 만족도
(단위: %)

	이용률	이용 일수 (주 평균)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경로당	53.9	4.28 (2.434)	8.9	70.2	18.7	2.0	0.2
노인복지관	7.5	2.38 (1.794)	16.1	75.6	7.5	0.9	0.0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 현재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이용 목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유는 일반특성에 관계없이 친목도모를 위해 이용한다면, 복지관은 일반특성별로 이용 이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22).

7) 만족하지 않는 노인은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낮게 나타났을 것이다.

- 여성노인은 여가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복지관을 방문하는 비율이 63.9% 인데 비해 남성노인은 44.1%이며, 남성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복지관을 방문하는 비율이 24.3%로 7.3%인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독거노인(25.4%), 가구소득 제1분위에 속하는 노인(27.6%), 기능 상태에 제한이 있는 노인 (27.6%), 75세 이상 노인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에서 식사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표 2-22.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일반특성별 경로당 및 복지관 이용 이유
(단위: %)

		여가 프로그램 이용	지역 자원봉사 활동참여	일자리 사업 참여	건강 관련 서비스	식사 서비스	친목 도모	기타
전체		3.6 (55.6)	1.6 (2.8)	0.1 (5.0)	0.4 (4.0)	4.9 (17.3)	88.7 (14.4)	0.8 (1.0)
성	남	3.3 (44.1)	2.2 (4.0)	0.0 (2.7)	0.4 (6.3)	3.2 (16.3)	89.3 (24.3)	1.7 (2.3)
	여	3.7 (63.9)	1.4 (2.0)	0.1 (6.6)	0.3 (2.3)	5.8 (18.0)	88.4 (7.3)	0.3 (0.0)
연령	65-69	4.6 (59.2)	5.4 (3.9)	0.0 (11.0)	0.5 (1.7)	2.7 (6.2)	85.3 (18.0)	1.5 (0.0)
	70-74	3.3 (57.5)	2.3 (3.8)	0.0 (1.5)	0.2 (6.0)	3.8 (10.7)	90.3 (17.9)	0.2 (2.6)
	75-79	3.1 (52.2)	0.0 (3.6)	0.3 (6.0)	0.3 (4.5)	5.0 (25.4)	90.2 (8.2)	1.1 (0.0)
	80-84	2.6 (54.2)	0.0 (0.0)	0.0 (2.4)	0.4 (4.6)	7.8 (19.0)	88.7 (18.0)	0.6 (1.8)
	85세 이상	5.4 (56.3)	0.0 (0.0)	0.0 (0.0)	0.6 (0.0)	7.2 (35.5)	86.5 (8.1)	0.3 (0.0)
가구 형태	노인독거	3.1 (58.1)	0.2 (0.0)	0.3 (9.1)	0.3 (1.4)	5.0 (25.4)	90.7 (6.0)	0.4 (0.0)
	노인부부	3.6 (55.6)	2.7 (5.0)	0.0 (3.3)	0.4 (5.5)	4.7 (12.6)	87.4 (17.3)	1.2 (0.6)
	자녀동거	4.0	1.6	0.0	0.0	5.6	88.3	0.4

		여가 프로그램 이용	지역 자원봉사 활동참여	일자리 사업 참여	건강 관련 서비스	식사 서비스	친목 도모	기타
		(48.2)	(3.6)	(2.2)	(6.4)	(12.1)	(25.4)	(2.2)
	기타	4.3 (63.9)	0.0 (0.0)	0.0 (0.0)	1.4 (0.0)	2.9 (19.1)	91.5 (9.7)	0.0 (7.3)
연가구 소득	제1분위	4.7 (62.9)	0.6 (0.7)	0.0 (2.2)	0.7 (1.7)	7.0 (27.6)	86.5 (4.9)	0.6 (0.0)
		2.5 (43.0)	0.5 (1.4)	0.3 (17.0)	0.3 (3.7)	2.8 (15.1)	93.4 (18.9)	0.3 (0.8)
	제3분위	3.0 (42.6)	2.6 (4.9)	0.0 (3.6)	0.4 (8.3)	5.6 (17.9)	86.7 (21.3)	1.6 (1.3)
		4.2 (63.7)	2.1 (3.2)	0.0 (2.4)	0.1 (4.7)	3.8 (8.6)	89.1 (16.0)	0.6 (1.4)
	제5분위	2.7 (72.8)	5.0 (4.8)	0.0 (0.0)	0.0 (0.0)	4.4 (6.5)	86.9 (13.9)	1.0 (2.0)
		제한 없음	3.5 (56.3)	2.1 (3.1)	0.1 (5.2)	0.3 (3.9)	4.6 (16.1)	88.4 (14.2)
	제한 있음		3.7 (49.1)	0.0 (0.0)	0.0 (2.9)	0.5 (4.3)	5.9 (27.6)	89.7 (16.2)

주: 셀 값에서 괄호 안은 복지관 이용 이유에 해당하는 값이다.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2.6. 건강수준 및 돌봄

-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않는) 노인 (ADL⁸)이나 IADL⁹)에서 한 항목이라도 부분 도움 또는 완전 도움이 필요하

8) 옷입기, 세수·양치질·머리감기, 목욕 또는 샤워하기, 차려 놓은 음식 먹기,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대소변 조절하기 등 총 7항목

9) 몸단장,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 먹기, 금전관리, 근

다고 응답하였으나, 도움일 받지 못하는 노인)은 동 지역은 15.6%이고, 읍·면지역은 25.2%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23).

- IADL 항목별 완전자립 비율을 살펴보면, 금전관리(84.7%)와 전화걸고 받기(89.7%)가 완전 자립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교통수단 이용하기(90.5%), 집안일(91.0%)이나 식사준비(91.3%) 등이다.

표 2-23. 연령대별 IADL의 도움이 필요한 항목 비율

(단위: %)

	완전 자립	부분 도움	많은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전혀 할 수 없음)
몸단장(빗질, 화장, 면도, 손톱·발톱 깎기)	96.1	3.4		0.5
집안일(실내 청소, 설거지, 침구정리, 집안 정리 정돈 등)	91.0	7.2		1.7
식사준비(음식 재료 준비, 요리, 상 차리기)	91.3	7.0		1.8
빨래(손이나 세탁기로 세탁 후 널어 말리기 포함)	92.6	5.7		1.7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 먹기	97.5	2.0		0.5
금전관리(용돈, 통장관리, 재산관리)	84.7	13.4		1.9
근거리 외출하기(가까운 거리 걸어서)	94.9	3.8		1.3
물건 구매 결정·돈 지불·거스름돈 받기	94.7	3.2	1.6	0.4
전화 걸고 받기	89.7	7.9	2.0	0.4
교통수단 이용하기(대중교통, 개인 차)	90.5	4.5	4.6	0.5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 도움을 받는 사람은 읍·면 지역 노인은 동 지역 노인에 비해 친척이나 이웃·친구·지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요양보호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24).

거리 외출하기, 물건 구매 결정·돈 지불·거스름돈 받기, 전화 걸고 받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등 총 10항목

표 2-24. 도움을 주는 사람

(단위: %)

	가족원	친척, 이웃·친구· 지인	개인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 (파출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요양보호사 등)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등 각종 공공돌봄서비스)
동 읍/면	92.1	6.8	1.5	16.0	5.8
	91.2	8.9	0.5	13.8	8.0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2.7. 노인의 생활환경

- 농촌노인 중 소득수준 제1분위에 속하는 저소득 노인의 32.5%는 무상으로 살고 있으며, 36.9%는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표 2-25).
 - 저소득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에 비해 침실 및 거실(28.1%), 부엌 및 식당(14.5%) 등이 더욱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종류로 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단독주택에 사는 비중이 낮고(1분위는 83.1%, 5분위는 61.6%), 아파트에 사는 비중이 높았다(1분위는 10.4%, 5분위는 25.5%).
 - 거주형태로 보면 소득이 적을수록 무상거주의 비중이 높고(1분위는 32.5%, 5분위는 3.9%), 자가주택의 비율이 낮았다(1분위는 58.5%, 5분위는 91.1%).

표 2-25.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거주 환경 및 주거 편리성

(단위: %)

			가구소득수준				
			제1분위	제2분위	제3분위	제4분위	제5분위
거주 환경	주택 종류	단독주택	83.1	83.0	77.6	68.8	61.6
		아파트	10.4	12.8	16.6	21.7	25.5
		연립·다세대 주택	5.2	2.9	3.3	5.1	9.2
		기타	1.3	1.4	2.6	4.4	3.8
	거주 형태	자가	58.5	79.8	81.5	83.6	91.1
		전세	3.3	1.0	5.4	5.2	3.7
		보증금 있는 월세	1.8	1.8	0.9	2.8	0.8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3.9	1.5	0.7	0.2	0.5
	무상	32.5	15.8	11.5	8.2	3.9	
주거 편리성	주거지 의 생활 편리성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	36.9	28.7	21.8	13.5	10.2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는 아니지만, 노인배려설비 없음	61.7	69.0	75.1	82.7	82.4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고 있음	1.4	2.3	3.1	3.9	7.4
	가장 불편한 공간	없음	0.0	0.0	0.0	0.0	0.0
		현관 및 복도	37.0	43.9	54.9	63.8	66.6
		계단	3.1	3.6	4.1	1.1	1.4
		화장실 및 욕실	10.8	11.7	6.9	11.3	13.4
		침실 및 거실	28.1	19.3	13.5	10.5	5.9
		문턱	1.2	1.6	1.5	1.2	2.7
		부엌 및 식당	14.5	14.9	15.0	9.4	5.3
	기타	5.1	5.0	4.1	2.7	4.6	

주: 주거지의 생활편리성은 조사원 의견임.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 농촌노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살펴보면 (표 2-26), 시장, 슈퍼 등 일상용품 구매 장소로부터 걸어서 30분 이상 거리에 거주하는 노인이 42.1%에 이른다.

- 걸어서 10분 이상 거리 정도이면 걸어서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읍·면 거주 노인의 61.7%는 일상용품 구매가 어려운 거리에 거

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까지도 35.2%는 걸어서 10분이 넘는 거리에 살고 있다.
- 복지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걸어서 10분 이내로 다닐 수 있는 노인은 1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6.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지역환경: 주요 기관시설과의 도보 이동시간
(단위: %)

	걸어서 5분 미만	걸어서 5~10분 미만	걸어서 10~30분 미만	걸어서 30분 이상
시장, 슈퍼 등 일상용품 구매 장소	15.2	23.1	19.6	42.1
병·의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	2.5	13.5	25.5	58.5
읍·면·동 사무소	1.9	10.8	23.2	64.1
노인복지관/노인복지회관	2.6	4.6	11.4	81.4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	0.9	2.6	10.2	86.3
버스·지하철역	23.9	40.8	25.3	9.9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표 2-27.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지역환경: 읍·면동사무소까지 거리에 따른 불편한 점
(단위: %)

	계	읍·면·동사무소까지 걸리는 시간			
		걸어서 5분 미만	걸어서 5~10분 미만	걸어서 10~30분 미만	걸어서 30분 이상
없음	14.6	0.5	2.9	5.7	5.6
각종 생활시설 부족 또는 이용 불편	20.6	0.4	1.3	3.4	15.5
대중교통 부족 또는 이용 불편	27.6	0.1	1.7	5.2	20.6
녹지공간, 공원 등 부족 또는 이용 불편	3.2	0.1	0.9	1.4	0.8
의료시설 부족 또는 이용 불편	25.2	0.7	2.2	4.4	17.9
사회복지시설 부족 또는 이용 불편	8.3	0.1	1.7	3.0	3.5
기타	0.5	0.0	0.1	0.2	0.3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 읍·면동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농촌노인의 불편한 점을 살펴보면(표 2-27), 대중교통 부족 또는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7.6%이며, 의료시설 부족 또는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2%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농촌고령자 경제활동 실태 분석

3.1. 농촌노인의 일과 소득 실태

- 노인실태조사(2014) 자료에 의하면, 동 지역 노인(23.4%)에 비해 읍·면지역 노인의 취업비율(44.9%)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로 일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80세 이상 노인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8.3%) 일을 하는 비율이 다소 높아지기는 하지만, 대부분 생계비 마련(74.5%)이나 용돈이 필요해서(5.8%)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읍·면지역 노인이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비 마련(79.3%)이나 용돈 마련(8.6%)이다. 건강유지(3.1%)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3.6%),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3.0%), 경력을 활용하기 위해(1.8%) 등 기타 이유는 소수이다.
- 다음 <표 2-28>에 의하면, 농촌노인 중에서 현재 취업 중인 노인의 비율은 남성은 56.7%, 여성은 36.9%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로는 70세 미만 노인은 남성 74.3%, 여성 54.7%가 일하고 있으며, 80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남성 30.7%, 여성 15.2%는 일을 놓지 못하고 있다.

표 2-28.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연령대별 취업상태

(단위: %)

		연령대				계
		65-69	70-74	75-79	80세 이상	
남	계	29.6	27.1	22.7	20.6	100.0
	취업	74.3	60.0	53.2	30.7	56.7
	취업중					
상태	미취업	25.7	40.0	46.8	69.3	43.3
여	계	21.8	24.5	25.0	28.8	100.0
	취업	54.7	48.0	35.7	15.2	36.9
	취업중					
상태	미취업	45.3	52.0	64.3	84.8	63.1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 읍·면 노인이 하고 있는 일의 내용을 살펴보면(표 2-29), 75.1%가 농림어업이며, 70세 이상은 80% 이상에 이른다. 그밖에 일부 청소업무(5.9%)나 판매·영업(3.8%)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9. 농촌노인이 현재 하는 일의 내용

(단위: %)

	동					읍/면				
	계	65-69	70-74	75-79	80+	계	65-69	70-74	75-79	80+
농림어업	16.8	13.4	18.0	20.7	26.6	75.1	63.7	80.1	80.4	87.1
경비/수위/시설관리	9.7	12.8	10.1	3.5	0.0	1.4	2.6	1.4	0.2	0.6
청소업무	16.6	14.3	15.8	22.7	22.0	5.9	5.0	6.2	6.4	6.5
생산작업	3.7	3.4	3.8	4.1	3.8	1.2	1.9	1.5	0.3	0.0
가사/돌봄	5.2	4.8	4.6	8.9	1.4	1.4	1.6	1.7	1.4	0.4
운전/운송	6.4	9.9	5.2	0.6	0.3	1.1	2.7	0.6	0.0	0.0
전문직	4.5	6.5	3.2	2.1	2.1	1.6	3.5	0.8	0.3	0.6
행정사무	1.8	2.3	1.6	0.6	1.9	0.2	0.0	0.3	0.4	0.0
조리/음식업	5.8	6.4	7.0	3.8	1.0	2.1	2.6	1.7	2.8	0.0
택배/배달	0.6	0.0	0.9	0.7	3.1	0.0	0.1	0.0	0.0	0.0
현장관리	1.0	1.7	0.4	0.2	0.0	0.0	0.0	0.0	0.0	0.0

	동					읍/면				
	계	65-69	70-74	75-79	80+	계	65-69	70-74	75-79	80+
환경/조경	1.4	1.5	1.0	2.2	1.1	0.4	0.8	0.2	0.5	0.0
건설/기계	3.2	4.9	2.4	0.7	0.6	1.6	3.6	0.3	0.4	0.9
문화예술	0.8	0.4	1.6	0.0	1.3	0.1	0.0	0.0	0.0	0.7
공공질서유지	2.6	0.7	4.1	6.4	1.4	1.2	1.6	1.2	0.9	0.5
폐휴지수거	6.5	2.1	8.3	11.4	18.4	1.1	1.1	0.0	2.9	0.0
기타	5.0	5.2	4.5	3.7	8.3	1.6	3.4	0.9	0.6	0.0
판매/영업직	8.5	9.5	7.6	7.8	6.7	3.8	5.7	3.0	2.5	2.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 농촌노인들이 현재 주로 하는 일에 대한 불만은 살펴본 결과(표 2-30),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노인의 53.4%는 건강상태와 맞지 않으며, 34.2%는 낮은 급여수준을 꼽았다.
 - 이에 비해 청소일을 하는 노인은 급여수준에 대한 불만은 8.4%에 그치고, 건강상태와 맞지 않거나(47.3%) 일의 내용(11.7%)을 지적하였다. 판매/영업직은 낮은 급여수준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었다.
- 농촌노인이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는 비율이 44.9%로 도시 23.4%에 비해 훨씬 높지만, 정부지원일자리 참여비율은 도시에 비해 농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일하고 있는 노인 중 정부지원일자리(노인일자리, 공공근로 등) 참여율은 읍·면 지역은 7.6%이고, 동 지역은 20.1%이다.

표 2-30. 읍·면 노인이 현재 하는 일에 따른 불만내용

(단위:%)

	농림어업	청소업무	판매/영업직	전체
낮은 급여(소득)수준	34.2	8.4	93.2	37.5
건강상태와 맞지 않음	53.4	47.3	0.0	47.1
불안정한 일자리	1.8	0.0	6.8	2.4
근로시간	2.0	0.0	0.0	1.6
일(업무)의 내용	8.5	11.7	0.0	8.3
인간관계	0.0	0.0	0.0	0.0
기타	0.0	32.6	0.0	3.1
	100.0	100.0	100.0	100.0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 다음 <표 2-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이 하는 일의 내용에 따른 수입 내역을 살펴보면, 경비·수위·시설관리 종사자의 연평균 소득이 19,628천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생산작업 15,317천 원, 판매·영업직 14,445천 원 순이다. 농림어업 종사자는 9,675천 원이고, 청소업무는 8,426천 원, 폐휴지수거는 7,627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경비·수위·시설관리 종사 노인은 근로소득이 평균 11,493원인데 비해, 공적연금을 받는 이들의 비율(수급비율 74.2%)이 높고, 평균 금액도 6,406천 원으로 다른 일을 하는 노인들에 비해 많다. 하지만 이들은 일하는 농촌노인 중 1.4%에 그친다.
- 경비·수위·시설관리 이외의 일을 하는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비율은 생산작업 53.4%, 판매·영업직 52.6%, 농림어업 41.0%, 폐휴지수거 40.3%, 청소업무 28.6%로 낮으며, 수령 금액도 2,301~3,051천 원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생산작업을 하는 노인은 근로소득이 평균 12,425천 원이고, 판매·영업직 종사 노인은 사업소득이 평균 11,786천 원이다. 이들도 각각 1.2%, 3.8%에 그친다.

- 일하는 농촌노인 중에서 연간 10,000천 원 이상 소득이 확보되는 세 가지 직종에 종사하는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4%밖에 안 된다.
- 일의 내용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아서, 폐휴지 수거(86.0%), 청소업무(76.6%), 농림어업(66.9%), 판매·영업직(53.6%), 경비·수위·시설관리(41.7%) 순으로 나타났다.
- 폐휴지수거 노인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7.0%에 이른다. 이들은 정부가 지급하는 생계급여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노인이라고 볼 수 있다.
- 농림어업 종사자 중에는 66.2%만이 사업소득(연평균 7,003천 원)이 발생하며, 11.4%는 근로소득(3,233천 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2.4%는 농림어업에 종사하지만, 본인 소득은 없는 것이다.
- 가구 총소득을 살펴보면, 농림어업 종사 노인의 가구는 연평균 18,900천 원으로, 이 중에서 본인 총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1.2%이다. 다른 가구 구성원의 수입이 있으며, 폐휴지 수거나 청소일을 하는 노인에 비해서는 가구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비·수위·시설관리 종사 노인 가구가 연평균 26,351천 원으로 가장 높으며, 가구 소득에서 본인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74.5%로 가장 높다.
 - 폐휴지 수거를 하는 노인의 경우 가구 총소득이 10,669천 원밖에 되지 않으며, 본인 총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71.5%로 이른다.
 - 청소업무를 하는 노인은 가구 총소득이 16,163천 원(본인의 기여 비율이 52.1%)이며, 다른 가구 구성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1. 농촌노인이 하는 일의 내용에 따른 수입 내역

(단위: 천 원/년)

		농림 어업	경비/수위 /시설관리	청소업무	생산작업	폐휴지 수거	판매/ 영업직	
가구 총소득	평균	18,900	26,351	16,163	23,226	10,669	21,150	
	표준편차	(14,917)	(14,059)	(13,364)	(10,451)	(7,424)	(9,477)	
총 수입액	평균	9,675	19,628	8,426	15,317	7,627	14,445	
	표준편차	(9,453)	(10,194)	(5,029)	(8,141)	(5,370)	(9,160)	
	비율*	17.3	74.5	52.1	65.9	71.5	68.3	
근로 소득	평균	3,233	11,493	5,662	12,425	-	3,150	
	표준편차	(2,925)	(4,060)	(4,641)	(6,181)	-	(223)	
	비율	11.4	98.4	84.4	84.2	0.0	3.8	
사업 소득	평균	7,003	1,960	3,000	7,061	3,609	11,786	
	표준편차	(7,858)	(1,383)	(0)	(4,440)	(4,632)	(7,715)	
	비율	66.2	6.0	0.8	12.5	100.0	84.9	
재산 소득	평균	1,780	4,461	1,229	4,103	-	1,941	
	표준편차	(4,711)	(6,286)	(2,270)	(6,923)	-	(1,859)	
	비율	34.0	29.6	12.4	13.4	0.0	35.9	
본 인 수 입	개인 연금	평균	1,000	-	-	-	-	2,544
		표준편차	(0)	-	-	-	-	(655)
		비율	0.1	0.0	0.0	0.0	0.0	2.5
주택 연금, 농지 연금	평균	3,179	-	-	-	-	-	
	표준편차	(1,885)	-	-	-	-	-	
	비율	0.2	0.0	0.0	0.0	0.0	0.0	
사적 이전 소득	평균	1,634	660	1,998	884	1,863	1,383	
	표준편차	(1,549)	(460)	(2,301)	(681)	(1,108)	(1,530)	
	비율	98.9	97.2	85.5	100.0	97.8	100.0	
공적 연금	평균	3,051	6,406	2,301	2,982	2,354	2,930	
	표준편차	(3,774)	(7,088)	(1,415)	(739)	(931)	(1,451)	
	비율	41.0	74.2	28.6	53.4	40.3	52.6	
기초노 령연금	평균	986	1,011	1,054	990	1,084	998	
	표준편차	(162)	(121)	(163)	(109)	(131)	(211)	
	비율	66.9	41.7	76.6	45.8	86.0	53.6	

		농림어업	경비/수위/시설관리	청소업무	생산작업	폐휴지수거	판매/영업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평균	3,135	-	-	-	4,200	1,532
	표준편차	(818)	-	-	-	0	(840)
	비율	0.3	0.0	0.0	0.0	7.0	2.2
기타공적급여	평균	1,164	4,233	2,417	4,021	240	1,658
	표준편차	(1,819)	(6,691)	(1,952)	(7,054)	(0)	(1,260)
	비율	35.0	24.8	8.8	12.4	7.0	3.5
기타소득	평균	4,198	1,050	1,338	-	50	263
	표준편차	(9,280)	(0)	(1,634)	-	(0)	(171)
	비율	2.7	1.6	6.5	0.0	7.0	2.9

주: * 가구 총소득에서 본인 총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 다음 <표 2-32>에 의하면, 도시 노인과 농촌노인이 객관적 소득수준에 따라 인식하는 주관적 경제상태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지역 노인은 월 평균 1,073천 원 정도이면 본인의 경제수준을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동 지역 노인은 1,448천 원 정도라고 생각하였다.

표 2-32.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른 주관적 경제상태 인식 비교

(n=2,022명; 단위: 천 원/월)

		주관적 경제상태				
		매우 나쁨	나쁜 편	보통	좋은 편	매우 좋음
동 지역 (n=1,504)	평균	742,702	1,055,425	1,447,829	1,534,091	1,631,108
	표준편차	(536,782)	(876,902)	(1,488,255)	(1,247,562)	(1,328,545)
읍지역 (n=213)	평균	929,578	864,738	1,108,143	1,054,388	2,510,000
	표준편차	(533,165)	(764,396)	(910,255)	(838,173)	(975,807)
면지역 (n=305)	평균	351,720	773,119	1,073,284	1,093,393	614,333
	표준편차	(94,104)	(679,319)	(971,974)	(921,120)	(129,662)

자료: 노인일자리 참여 실태 조사(2013)

- 연평균 소득 2,0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가구 소득수준에 비해 소비지출 비

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33).

- 가구 소득 1,0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소비 지출이 1,000만 원 이상 1,500만 원 미만인 가구와 642천 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구간에 비해 인접구간과의 소비액차이가 적었다.
-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비 다음으로 보건의료 비용과 감가상각비가 높았다.

표 2-33. 소득수준별 소비지출 내역

(단위: 천 원/년, %)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전체	평균	12,559	13,201	15,529	18,591	28,101
	표준편차	(6,011)	(4,955)	(5,973)	(7,332)	(13,774)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평균	4,228	4,832	5,438	5,729	6,157
	표준편차	(1,827)	(1,801)	(1,908)	(2,513)	(2,369)
	비율	33.7	36.6	35.0	30.8	21.9
주류 및 담배	평균	163	209	173	210	312
	표준편차	(222)	(299)	(256)	(298)	(417)
	비율	1.3	1.6	1.1	1.1	1.1
의류 및 신발	평균	168	174	259	394	820
	표준편차	(253)	(265)	(426)	(471)	(924)
	비율	1.3	1.3	1.7	2.1	2.9
주거 및 수도광열	평균	1,135	1,299	1,405	1,584	2,310
	표준편차	(803)	(837)	(1,099)	(1,177)	(2,546)
	비율	9.0	9.8	9.0	8.5	8.2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평균	315	410	493	563	760
	표준편차	(405)	(407)	(546)	(614)	(1,528)
	비율	2.5	3.1	3.2	3.0	2.7
보건	평균	1,968	1,739	1,941	2,185	2,652
	표준편차	(2,568)	(1,791)	(1,976)	(2,465)	(3,193)
	비율	15.7	13.2	12.5	11.8	9.4
교통	평균	569	567	698	962	1,700
	표준편차	(708)	(517)	(666)	(815)	(1,744)
	비율	4.5	4.3	4.5	5.2	6.1
통신	평균	304	362	340	519	976
	표준편차	(330)	(366)	(337)	(455)	(775)
	비율	2.4	2.7	2.2	2.8	3.5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오락문화	평균	209	245	415	485	1,025
	표준편차	(350)	(284)	(786)	(625)	(2,062)
	비율	1.7	1.9	2.7	2.6	3.6
교육	평균	22	71	10	115	394
	표준편차	(244)	(414)	(123)	(650)	(1,409)
	비율	0.2	0.5	0.1	0.6	1.4
음식숙박	평균	290	333	561	738	1,636
	표준편차	(374)	(373)	(867)	(760)	(1,610)
	비율	2.3	2.5	3.6	4.0	5.8
기타상품 및 서비스	평균	276	393	439	535	1,762
	표준편차	(281)	(781)	(712)	(1,196)	(4,311)
	비율	2.2	3.0	2.8	2.9	6.3
감가상각비	평균	2,313	1,933	2,557	3,004	4,466
	표준편차	(1,554)	(1,242)	(1,695)	(1,901)	(3,088)
	비율	18.4	14.6	16.5	16.2	15.9
보험	평균	599	635	800	1,567	3,131
	표준편차	(1,488)	(2,252)	(1,390)	(2,200)	(3,459)
	비율	4.8	4.8	5.2	8.4	11.1

자료: 농가경제조사(2014)

표 2-34. 가구소득수준별 비소비지출 내역

(단위: 천 원/년, %)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이상 1,500만 원미만	1,500만 원이상 2,000만 원미만	2,000만 원이상 3,000만 원미만	3,000만 원 이상
공적연금 납부금	평균	65	30	23	56	388
	표준편차	(378)	(145)	(109)	(187)	(697)
	비율*	2.9	2.1	2.1	8.2	34.6
사회보험 납부금	평균	101	122	176	253	643
	표준편차	(251)	(322)	(517)	(424)	(880)
	비율*	21.3	20.0	22.4	34.9	60.6
이자	평균	112	109	79	170	463
	표준편차	(454)	(520)	(331)	(958)	(1,931)
	비율*	12.0	16.1	19.7	19.0	24.4

주: * 납부하는 고령농의 비율임.

자료: 농가경제조사(2014)

- 위의 <표 2-34>에 의하면, 비소비지출 내역에서 공적연금 납부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3,0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37.8%이지만, 2,000~3,000만 원인 가구는 12.1%, 2,0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5% 정도이다. 사회보험납부금은 납부율이 공적연금보다 높아서 3,0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57.4%, 2,000~3,000만 원인 가구는 40.3%, 2,0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2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3.2. 고령농업인 소득 실태

-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2015)에 의하면, 농가수는 1,121,000호이고 농가인구 2,752,000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은 1,075,000명(39.1%)이다.
 - 전체 경영주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0.3%이며, 70세 이상이 41.4%에 이른다(표 2-35).

표 2-35. 농가 경영주 연령대별 분포

경영주 연령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69세	70세 이상	전체
비율(%)	0.6	4.6	18.8	15.8	18.9	41.4	100.0

자료: 농가경제조사(2014)

- 농가경제조사 자료¹⁰⁾ 중에서 경영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31.3%)과 70세 이상 노인(68.7%)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표 2-36).
 - 70세 이상은 전업농 비율이 66.8%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0세 미만은 35.3%가 전문농가인 반면, 70세 이상은 51.7%가 일반농가로 경지규모가

10) 농가경제조사 자료는 1인 가구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65세 이상 단독가구를 제외한 고령농업인의 소득실태라고 볼 수 있다. 단독가구를 포함한 평균 소득 수준에 비해 높을 것이다.

줄어들면서 농업수입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가소득의 경우 70세 미만은 평균 33,254천 원, 70세 이상은 22,616천 원이며, 두 집단 간의 농가소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70세 이상 경영주 중 여성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3%에 그친다.

표 2-36. 연령대별 전·겸업, 주·부업·자급 분포

(단위: %, 천 원)

경영주 연령	전·겸업별			주·부업·자급별				농가 소득	가계 지출
	전업 농	1종 겸업	2종 겸업	전문 농가	일반 농가	부업 농가	자급 농가		
65-69세	49.4	18.3	32.3	35.3	26.0	31.4	7.3	33,354 (25,387)	29,299 (19,080)
70세 이상	66.8	13.9	19.3	19.1	51.7	20.9	8.2	22,616 (19,029)	19,709 (11,420)
계	61.3	15.3	23.4	24.2	43.7	24.2	8.0	25,978 (21,802)	22,576 (14,810)

- 주: 1) 전업농: 연간 30일 이상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
 2) 1종겸업: 겸업농가 중 농업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많은 농가
 3) 2종겸업: 겸업농가 중 농업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적은 농가
 4) 전문농가: 경지규모 3h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2,000만 원 이상 농가
 5) 일반농가: 경지규모 3ha 미만이며 농업총수입 2,000만 원 미만 농가
 6) 부업농가: 경지규모 30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200만 원 이상 농가 중 농업외수입이 농업총수입보다 많은 농가
 7) 자급농가: 경지가 없거나, 30a 미만 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200만 원 미만인 농가
 자료: 농가경제조사(2014)

- 본 연구에서는 농가경제조사 자료의 경우 70세 이상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¹¹⁾
- 경영주 연령 70세 이상인 농가의 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소득이 22,616천 원이지만, 표준편차 19,029천 원으로 마이너스 금액인 가구에서부터 최

11) <표 2-29>의 분석결과에서도 70세 미만과 70세 이상 노인 집단의 소득수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노인실태조사 자료 분석 결과, 노인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평균 72.03세였으며, 응답자의 40%는 70세를 기준 연령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5>, p.32). 이러한 근거에 의해 고령농업인의 경우 70세 이상 경영주로 분석 대상을 좁혔다.

대 592,984천 원까지 가구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2-37).

-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8.6%에 그치며, 그밖에 농업외 소득 30.4%, 이전소득 29.4%, 비경상소득 11.7% 등이다.
- 연평균 지출금액은 20,379천 원이며, 표준편차(11,900천 원)으로 최소 3,505천 원부터 최대 88,646천 원이다. 지출금액의 차이는 가구원 규모에 따른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가처분소득은 평균 18,980천 원으로 전체 농가소득의 83.9%이다.
- 농가소득 중에서 지출하고 남은 잉여금액은 평균 2,238천 원, 전체 농가소득의 9.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7. 경영주 70세 이상 농가의 소득 현황

(단위: 천 원/년, %)

	평균 (표준편차)(원)	비율 (%)		평균 (표준편차)(원)	비율 (%)
농가소득	22,616 (19,029)	100	지출	20,379 (11,900)	100
농업소득	6,466 (13,249)	28.6	소비지출	16,742 (9,366)	82.2
농업외소득	6,873 (12,238)	30.4	비소비지출	3,636 (4,624)	17.8
이전소득	6,641 (5,181)	29.4	농가처분가능소득	18,980 (17,482)	83.9 ¹⁾
비경상소득	2,636 (4,111)	11.7	농가경제잉여	2,238 (14,254)	9.9 ²⁾

주: 1) 2)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자료: 농가경제조사(2014)

○ 다음의 <표 2-38>에서 전·겸업별 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전업농가의 연간 평균 소득수준(16,517천 원)이 가장 낮으며, 2종 겸업농가(31,192천 원)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업농가의 경우에도 전체 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42.5%로 절반에도 못 미치며, 이전소득이 41.8%(평균 6,906천 원)이다.
- 1종 겸업농가의 경우 농업소득이 전업농가에 비해 20% 정도 많다.

- 2종 겸업농가는 농업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5%에 그치지만 전업농가 농업소득의 40% 정도에 해당된다. 사업외소득이 50.2%이다.

표 2-38. 경영주 70세 이상 농가 전·겸업별 소득 현황

(단위: 천 원/년, %)

		계	농업소득	겸업소득	사업외 소득	이전소득	농가처분 가능소득
전업	평균	16,517	7,020	283	2,308	6,906	16,004
	표준편차	(15,748)	(13,373)	(1,222)	(6,643)	(5,469)	(15,173)
	비율	100.0	42.5	1.7	14.0	41.8	83.1*
1종 겸업	평균	21,025	8,687	1,074	4,535	6,729	20,145
	표준편차	(22,094)	(18,401)	(2,910)	(4,952)	(4,580)	(22,406)
	비율	100.0	41.3	5.1	21.6	32.0	85.1*
2종 겸업	평균	31,192	2,958	6,907	15,667	5,661	28,425
	표준편차	(19,209)	(5,491)	(13,606)	(15,603)	(4,388)	(17,446)
	비율	100.0	9.5	22.1	50.2	18.1	85.1*

주: *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농가경제조사(2014)

표 2-39. 경영주 70세 이상 농가 전·겸업별 이전소득 현황

(단위: 천 원/년, %)

			전·겸업별		
			전업	1종 겸업	2종 겸업
계		평균	6,906	6,729	5,661
		표준편차	(5,469)	(4,580)	(4,388)
공적 보조 금	계	평균	5,985	5,769	5,112
		표준편차	(5,217)	(4,059)	(4,168)
	농업보조금	평균	1,215	1,533	641
		표준편차	(1,468)	(1,709)	(903)
		비율*	92.0	93.4	85.1
	기타공적보조금	평균	5,107	4,679	4,693
표준편차		(5,197)	(3,661)	(4,046)	
		비율*	94.7	92.7	97.3
사적보조금		평균	3,849	3,745	2,912
		표준편차	(3,749)	(3,041)	(2,637)
		비율*	24.8	25.6	18.8

주: * 해당보조금을 수급하는 노인 비율임.

자료: 농가경제조사(2014)

- 이전소득의 세부내역(표 2-39)을 살펴보면, 농업보조금은 전업농가 중 92.0%가 받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연 평균 1,215천 원이다. 1종 겸업농가 중 93.4%가 연평균 1,533천 원을 받고 있고, 2종 겸업농가 중에는 85.1%가 받고 있지만, 금액은 641천 원이다. 농업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농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업농가 5.4%, 1종 겸업농가 5.7%, 2종 겸업농가 1.9%에 해당된다.
 - 사적보조금이 있는 농가의 비율이 높지 않지만, 규모는 농업보조금보다 큰 금액이다. 이들 농가의 경우 농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업농가 17.0%, 1종 겸업농가 14.0%, 2종 겸업농가 8.5%에 해당된다.

- 읍·면 지역 노인 중에서 단독가구 비율이 26.8%에 이른다. 하지만 농가경제조사 자료는 단독가구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고령농업인의 소득 실태를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다.
 - 따라서 노인실태조사 자료에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농림어업 종사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 실태를 분석하였다(표 2-40).
 - 농가경제조사 자료 분석 결과(표 2-37)에 의하면, 70세 이상 경영주의 농가소득은 평균 22,616원(표준편차 19,029천원)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노인실태조사(2014) 자료에서 농림어업 종사자 중 70세 이상 노인의 평균 소득은 19,062천 원(14,699천 원)으로 다소 낮게 추정되었다.

- 농림어업 종사 노인 중에서 부부가구가 63.7%로 가장 많았고, 독거가구 16.0%, 자녀동거가구 17.5% 등이었다.
 - 고령농 중에서 65세 이상 70세 미만 독거가구는 12.6%이고, 70세 이상 독거가구는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0. 농림어업 종사 노인의 가구형태별 수입 내역

(단위: 천 원/년)

		가구유형				연령			
						65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	
		독거	노인 부부	자녀 동거	조손 가정	독거	기타	독거	기타
비율(%)		16.0	63.7	17.5	1.1	12.6	57.2	3.4	26.8
가구 총소득	평균	9,478	16,711	35,025	12,678	12,111	24,145	8,754	19,062
	표준 편차	(6,844)	(10,188)	(21,472)	(3,441)	(10,616)	(16,131)	(5,129)	(14,699)
총 수입	평균	9,282	9,659	9,909	7,342	12,108	10,748	8,514	9,284
	표준 편차	(6,845)	(9,787)	(10,435)	(3,572)	(10,614)	(10,854)	(5,121)	(9,340)
근로 소득	평균	766	283	262	935	1,545	365	554	256
	표준 편차	(1,936)	(1,279)	(1,290)	(1,663)	(2,959)	(1,499)	(1,476)	(1,174)
	있음*	23.8	8.6	8.7	27.2	32.6	10.1	21.5	8.4
	평균** 표준 편차	3,215 (2,802)	3,299 (3,022)	3,011 (3,292)	3,433 (1,256)	4,747 (3,420)	3,604 (3,242)	2,583 (2,214)	3,039 (2,810)
사업 소득	평균	3,141	4,815	5,164	3,080	4,749	5,628	2,704	4,594
	표준 편차	(4,133)	(7,596)	(7,707)	(3,673)	(5,943)	(8,790)	(3,351)	(6,974)
	있음*	87.1	63.4	61.9	55.0	87.5	59.4	87.0	64.5
	평균** 표준 편차	3,701 (4,249)	7,639 (8,364)	8,336 (8,334)	5,600 (3,227)	5,428 (6,057)	9,497 (9,676)	3,213 (3,422)	7,150 (7,578)
재산 소득	평균	451	570	926	69	567	613	419	645
	표준 편차	(1,634)	(2,328)	(4,976)	(302)	(1,593)	(1,987)	(1,644)	(3,439)
	있음*	38.7	34.5	30.0	13.7	48.2	38.5	36.1	30.6
	평균** 표준 편차	1,164 (2,464)	1,652 (3,733)	3,086 (8,709)	505 (667)	1,176 (2,132)	1,592 (2,950)	1,160 (2,574)	2,110 (5,966)
개 인 금	평균	0	1	0	0	0	3	0	0
	표준 편차	(0)	(36)	(0)	(0)	(0)	(55)	(0)	(0)
주 택 금, 지 농 연 금	있음*	0.0	0.1	0.0	0.0	0.0	0.3	0.0	0.0
	평균	6	7	0	0	0	17	7	0
주 택 금, 지 농 연 금	표준 편차	(96)	(187)	(0)	(0)	(0)	(288)	(109)	(0)
	있음*	0.3	0.2	0.0	0.0	0.0	0.5	0.4	0.0

		가구유형				연령				
						65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		
		독거	노인 부부	자녀 동거	조손 가정	독거	기타	독거	기타	
본인수입	사적전독	평균	2,469	1,504	1,270	1,662	2,374	1,289	2,494	1,531
		표준차	(2,001)	(1,448)	(1,131)	(1,474)	(1,926)	(1,062)	(2,020)	(1,512)
		있음*	98.6	99.5	97.1	100.0	97.7	98.9	98.8	99.1
	공적연금	평균**	2,505	1,512	1,308	1,662	2,429	1,303	2,525	1,546
		표준차	(1,993)	(1,448)	(1,126)	(1,474)	(1,914)	(1,059)	(2,013)	(1,512)
		있음*	45.1	40.3	37.3	32.8	62.4	48.6	40.4	36.3
	기초연금	평균	904	615	588	923	788	497	936	668
		표준차	(474)	(452)	(522)	(301)	(528)	(501)	(453)	(444)
		있음*	78.7	66.4	57.0	91.6	69.8	53.4	81.1	69.9
	국민기초생활보장여	평균**	1,148	926	1,033	1,008	1,128	930	1,153	955
		표준차	(66)	(139)	(141)	(116)	(126)	(257)	(40)	(91)
		있음*	0.8	0.0	1.0	0.0	1.2	0.0	0.6	0.3
	기타공급	평균	31	0	24	0	47	0	27	7
		표준차	(355)	(0)	(243)	(0)	(427)	(0)	(333)	(135)
		있음*	4,097	-	2,457	-	3,900	-	4,200	2,457
	기타소득	평균**	4,097	-	2,457	-	3,900	-	4,200	2,457
		표준차	(143)	-	(118)	-	(0)	-	(0)	(118)
		있음*	265	451	395	203	156	409	295	446
	기타소득	평균	79	115	164	2	347	88	6	137
		표준차	(975)	(1,849)	(1,674)	(16)	(2,085)	(876)	(52)	(2,074)
		있음*	3.9	2.6	2.6	2.3	8.2	3.5	2.7	2.0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주: * 전체 설문 응답자 중 해당 항목의 소득이 0이 아닌 사람의 비율.

주: ** 해당 항목의 소득이 0이 아닌 사람들의 평균값.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노인의 가구 유형별 연평균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자녀동거가구는 35,025천 원, 노인부부가구는 16,711 천 원, 노인독거가구 9,478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정은 12,678 천 원에 그쳤다.
- 2015년 최저생계비 기준¹²⁾에 의하면, 조손가정은 이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다.
 -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70세 미만 노인은 평균 12,111천 원이지만, 70세 이상은 8,754천 원으로 연령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가 크다.
 - 노인독거가구는 사업소득이 있는 비율이 87.1%이 높고, 사적이전소득이 평균 2,469천 원으로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1. 농림어업 종사 노인의 가구형태별 소득수준 분포

(단위: %)

	농림어업							
	가구유형				65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	
	독거	노인 부부	자녀 동거	조손 가정	독거	기타	독거	기타
5,000천 원 미만	9.6	0.3	0.1	0.0	1.4	0.0	11.8	0.4
5,000~10,000천 원 미만	60.6	23.8	5.2	14.6	59.1	13.2	61.1	22.3
10,000~15,000천 원 미만	19.5	32.1	14.3	57.2	19.2	20.4	19.6	32.3
15,000~20,000천 원 미만	4.8	18.5	7.4	23.7	10.4	19.0	3.3	15.0
20,000~30,000천 원 미만	3.1	14.5	25.4	4.5	6.3	20.0	2.2	14.9
30,000천 원 이상	2.4	10.7	47.6	0.0	3.5	27.4	2.1	15.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 소득수준별 분포를 살펴본 <표 2-41>에 의하면, 노인독거가구 중에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연평균 가구소득이 5,000천 원 미만인 독거가구가 9.6%이고, 70세 이상

12) 2015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하면, 1인 가구 월 617,281원(연 7,407,372원), 2인 가구 월 1,051,048원(연 12,612,576원)이다.

독거가구 중에는 11.8%에 이른다. 이들의 대부분은 현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연평균 가구소득이 5,000천 원 이상 10,000천 원 미만인 노인독거가구도 60.6%에 이른다.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가구 유형별로 소득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은 발생하는 가구의 평균 금액이 가구 유형에 따라 차이가 크고, 근로소득은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가구의 연평균 사업소득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평균 금액이 3,701천 원(독거가구)에서 8,336천 원(자녀동거가구)이고, 재산소득도 발생하는 가구의 평균 재산소득액은 505천 원(조손가정)에서 3,086천 원(자녀동거가구)으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 근로소득은 발생하는 가구의 근로소득액은 평균 3,000천 원에서 3,500천 원 사이로 그 차이가 크지 않다.
 - 하지만 가구유형별로 근로소득발생율은 차이가 크다. 조손가정의 27.2%, 독거가구의 23.8%가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부부가구나 자녀동거가구는 8.6~8.7%로 발생하는 비율이 낮았다.
 - 조손가정의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가구가 27.2%로 높고, 사업소득 발생률은 55.0%로 낮다. 재산소득 발생률도 13.7%로 낮고 금액도 적다.
 - 독거가구의 경우 87.1%가 사업소득이 있지만, 평균 금액은 3,701천 원으로 적고, 23.8%는 평균 3,215천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며, 38.7%는 평균 1,164천 원의 재산소득이 발생한다.
- 노인독거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가구총소득은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 연령에 상관없이 노인독거가구의 사업소득발생률은 87%정도이지만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평균은 65세 이상 70세미만 가구의 경우 5,428천 원인데 비해, 70세 이상 가구의 사업소득은 3,213천 원으로 나이가 들수록

크게 감소한다.

- 따라서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영농을 유지하되, 70세가 넘으면 고령으로 인한 건강문제 등으로 소득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 수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65세 이상 70세 이상 노인독거가구는 근로소득발생률이 32.6%로 높고 근로소득발생액수도 4,747천 원으로 높은 편이다. 87.5%인 사업소득발생률을 감안하면, 이 연령대의 고령자는 영농과 근로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인 이상 가구는 근로소득발생률이 낮고, 사업소득 발생률 또한 독거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둘 중의 하나가 충분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독거가구는 농업소득만으로 부족한 것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일을 하면서 소득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 농촌고령자 실태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생활을 통계 수치로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주목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아직도 농촌 여성노인 중에 문해교육이 필요한 이들이 많았다.
 - 여성노인의 빈곤문제가 심각하였다.
 - 노인 단독거주 하는 이유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건강해서, 개인(부부)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등 노인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 반면에 자녀가 결혼해서, 자녀가 타 지역에 있어서 등 상황이 단독거주를 선택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 아니었다. 자살시도율은 오히려 더 높았다. 대체로 경제적인 이유로 동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연령이 많을수록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여성노인의 경우 85세 이상 노인의 만족 비율(23.8%)이 75세 이상 84세 미만 노인(16.9%)에 비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 현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본인의 연령에 따른 건강상태를 인식함으로써 제대로 건강관리하고, 건강상태에 대한 불만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 가구소득수준이 높아져도 사회보장제도가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 노후 생활비 보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노인이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는 비율이 44.9%로 도시 23.4%에 비해 훨씬 높지만, 읍·면 지역의 정부지원일자리 참여비율은 7.6%이고, 동 지역은 20.1%이다.

제 3 장

농촌고령자의 삶과 생활

1. 농촌고령자 인터뷰 조사

- 본 연구에서는 총 10명의 농촌노인을 인터뷰하고, 개개인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기 위해 노인의 삶과 생활을 정리하였다.
 - 첫 번째, 나이가 들어서 농지는 임대하고, 농지임대에서 오는 수입과 자녀들이 주는 용돈, 기초연금 등으로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지만, 일상생활이 무료한 남성노인이다. 기혼자녀 및 손자녀와 같이 사는 노인이다.
 - 두 번째, 벼농사를 하는데 농사일이 힘에 부치고, 수입은 적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거기다가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 누워서 지내는 병든 남편을 혼자 돌보고 있다. 몸과 마음이 지쳐서 우울한 여성노인이다.
 - 세 번째, 의료비,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농지는 다 팔고 자급자족할 정도의 밭농사를 하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경로당그룹홈 일을 하는 여성노인이다. 몇 년 전부터는 아픈 남편을 돌보고 있다.
 - 네 번째,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3형제를 키웠으며, 가지고 있는 재산은 살고 있는 집이 전부이며, 수입은 기초연금 받는 게 전부인 여성노인이

다. 건강이 안 좋아서 그동안 해오던 노인일자리사업도 못하고 있으며, 얼마 전부터는 아들이 이혼하고 같이 지내고 있다.

- 다섯 번째, 젊었을 때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다가 빚만 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자활근로를 하면서 생활하다가 60세가 넘으면서 더 이상 자활사업도 못하게 되면서, 현재는 폐지나 고물을 주워서 돈을 벌고 있는 남성노인이다. 아내도 있고, 대학생 자녀를 남매로 두고 있어 가장으로서 역할에 부담이 크다. 아직은 건강하기 때문에 힘든 일도 할 수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 여섯 번째,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돈을 벌고,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즐겁게 사는 여성노인이다. 남편과 같이 지낸다.
- 일곱 번째, 벼농사를 지으면서 복지관에 나와서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는 여성독거노인이다. 기혼자녀도 가까운데 살고 있어 거의 매일 안부를 전하며 지내고 있다.
- 여덟 번째, 마을회관에서 건강체조나 노래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농한기에는 경로당에서 공동급식을 하고, 이웃 농사일에 일손이 필요하면, 밭에 나가서 함께 일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저녁에는 모여서 청국장을 만드는 등 마을 안에서 무료하지 않은 일상을 보내는 여성노인들이다.

1) 농지 임대 수입과 자녀로부터 용돈, 일상생활이 무료한 노인					
성별	남	나이	83세	가구형태	노인부부, 자녀·손자녀 동거
가계소득원	소작료, 용돈(자녀)			공적급여	기초연금
건강상태	혈압, 치매 예방약 복용 중			자녀	9남매
그 외 특이사항	텃밭 가꾸기 사업 참여(월 2회, 10만 원)				
<p>노인부부 합쳐서 기초연금으로 월 32만 4천 원을 받고, 자녀 9남매로부터 생일·추석·설에 받는 용돈이 연간 6~7백만 원이 넘으므로(월 50만 원 이상), 월평균 노인부부의 현금수입은 80만 원이 넘으며, 연말에 임대한 농지에서 수확한 쌀은 별도의 수입일 것임. (소작료 수입을 파악하지 못하였음, 한 마지기당 벼로, 55kg짜리 세 가마를 받음).</p> <p>얼마 전부터 기혼자녀와 동거하면서 생긴 손자녀 돌봄의 부담, 며느리 음식에 대한 불만 등을 토로하였음.</p> <p>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83세 남성노인은 읍에 있는 노인복지관에도 가끔 나가서 시간을 보내지만, 일상생활의 무료함이 어려운 점이라고 함. 현재 마을 안에서 진행되는 텃밭체험 강사 프로그램으로 인해 생활의 활기를 찾고 있음.</p> <p>본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마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음.</p>					

땅과 자녀가 노후의 가장 큰 재산

할아버지는 아내, 직장에 다니는 아들, 며느리, 손자 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재작년에 심혈관 수술을 해서 약을 먹으면서 병원에 다니고 있고, 할아버지도 약을 챙겨먹는 나이입니다. 이 정도 나이가 되니 병원비는 몰라도 경조사비 지출은 없고, 생활비 말고는 딱히 더 돈 쓸 데가 없습니다.

다달이 부부 앞으로 나오는 기초연금 32만 4천 원, 키우고 있는 11마리의 닭이 매일 낳는 5~6개의 달걀, 몇 안 되는 땅을 남에게 빌려주고 받는 쌀 포대를 받아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명절, 생일, 어버이날에는 꼬박꼬박 자녀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용돈을 따로 해서 보내줍니다. 9남매가 한 사람당 평균 10만 원 이상 씬 주기 때문에 먹고 살기 곤란하지는 않습니다.

농사짓고 살기 힘든 농촌 현실

할아버지는 젊어서는 농사도 많이 짓고, 활발히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자 힘들어서 자신이 직접 농사짓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논을 내주고 소작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마지기당 벼로, 55kg짜리 세 가마를 받으면 그것으로 임대료를 칩니다. 금년에는

할아버지의 논뿐만 아니라 농사 자체가 대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전량 수매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격도 작년과 똑같이 동결되었는데 이렇게 싼 가격이라면 물량이 아무리 많더라도 농민들에게는 별로 돈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였습니다.

큰 의료 시설이 없는 농촌

할아버지는 2010년에 뇌경색으로 서울 경희대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을 좀 더 챙기려면 경희대병원까지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겠지만, 너무나 멀기 때문에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아 지역에 있는 병원을 통해 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 약은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자녀와 동거하는 어려움

원래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둘이서 살았습니다. 다섯째 아들은 가까운 곳에서 출근을 하긴 했지만 같은 집에 살지는 않았는데, 재작년에 할아버지가 큰 맘 먹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내 집을 너에게 인수해주마” 하고는 아들에게 집과 논, 밭까지 모두 물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돼서 아들 식구가 할아버지 부부가 사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인 아들 식구는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 네 살, 그리고 돌이 막 지나는 어린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함께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집 안에 어린 아이가 있으니 안 돌봐줄 수도 없고, 재미로 도와주고는 있지만 나이가 있으니 피곤합니다. 또 젊은 며느리가 해주는 음식은 늘 할머니 손맛에 익숙했던 할아버지에게는 도통 맞질 않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밥이고 청소고 다 해주니까 편안하다고 좋아하지만 할아버지는 며느리 음식 솜씨가 도통 성에 안 차니 영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다보니 요즘에는 “아들놈한테 괜히 일찍 재산을 넘겨줬구나.” 하고 후회가 듭니다.

할아버지는 자기가 너무 오래 살아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환갑을 못 살고 죽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은 환갑은 물론이고 그보다 훨씬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동네에서도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세 명이나 더 있고,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92세라고 합니다.

할 일 없는 노년의 생활

할아버지의 생활은 지극히 무료합니다. 나이를 먹으니 잠이 없어져서 새벽 3시 반이면 눈이 떠집니다. 집에서는 딱히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켜 놓고 봅니다. 6시 쯤 동이 트면 집 안을 왔다갔다 살피다가, 컴퓨터도 조금 하다가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전자기기를 자꾸 접한 탓에 요즘 눈이 좀 안 좋습니다.

텃밭체험 사업에 참여할 때가 아니면, 할아버지의 일상은 매우 한가합니다. 기껏 해봐야 집에서 손자들을 돌보거나, 남은 시간에 바깥나들이를 갑니다.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가볼까 싶지만

남자들은 몇 없고 대부분 할머니들만 있기 때문에 별로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대신 대한노인 협회에 가입해서 놀고, 복지관에 시설이 잘 되어있으니 그 쪽으로 놀러 갑니다. 기계로 운동하는 곳에 가서 몸을 단련하거나,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차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점점 몰락하는 마을에 대한 안타까움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마을은 과거에는 고창군 1도선이라고 따로 불릴 정도로 잘 나가는 마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이 마을에 벼슬을 하는 사람이나 큰 부자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을이 많이 곤란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의 마을의 모습을 볼 때 마다 과거의 모습이 떠올라서 안타깝습니다.

고창군에는 5개의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속한 고인들 마을도 정보화 마을입니다. 아무나 달 수 있는 이름이 아닌 만큼 정보화 마을 간의 협조를 통해서 뭔가 사업 같은 걸 한다면 소득을 올릴 수 있을 텐데, 민박집이나 소득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할아버지가 사는 마을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할아버지가 사는 고인들 마을은 이름에 걸맞게 고인들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들 마을에는 경관을 위해서 눈에 연을 심어놓은 곳이 있는데, 사람들은 연을 보고 즐기지만 하지 연근을 가져다가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 루트를 개척해 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무슨 사업이든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마련해서 실행하면 자신의 마을 뿐 아니라 인접한 다른 마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체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 할아버지는 답답합니다.

텃밭체험 강사 프로그램 참여

할아버지는 9월 달부터 한 달에 약 2번씩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진행하고 있는 '텃밭 체험 강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증손자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농촌 체험 학습을 진행합니다. 1~2명의 아이 당 한 명의 담당 할아버지가 붙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고구마 캐는 체험을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 사용한 고구마 밭은 할아버지가 가꾸고 있는 텃밭입니다. 시설 직원들도 할아버지 밭에서 난 고구마가 실하다고 칭찬하고, 아이들도 즐거워하니 아주 뿌듯합니다. 여든이 넘은 노인들에게 일을 시켜줄리 만무하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이런 소일거리를 얻게 된 것이 기쁩니다. 손주같이 귀여운 애들도 보고, 용돈 수준이지만 수익도 얻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할아버지는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도 함께 사업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물어봤지만, 한 집에 한명씩 고루고루 나눠서 참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하였다.

2) 벼농사를 짓는 어려움과 아픈 배우자 돌보는 일에 우울한 여성노인					
성별	여	나이	63세	가구형태	노인부부가구
가계소득원	벼농사(2,200평)			공적급여	기초연금
건강상태	정신과 약 복용, 남편 외상 환자(파킨슨병)			자녀	4남매
그 외 특이사항	텃밭 가꾸기 사업 참여 중(월 2회, 10만 원)				
힘에 부치지만 벼농사를 짓고 있음. 하지만, 연간 200만 원 정도밖에 손에 들어오지 않으며, 기초연금 이외에 별다른 현금 수입이 없음. 자녀가 남편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누워서 거동도 못하는 남편(노인장기요양 3등급)을 요양보호사 없이 돌보고 있음.					

육체와 정신 모두 빈곤한 노년의 삶

할머니는 아픈 할아버지와 둘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벌써 5년째 병상에서 누워 계십니다. 기초연금으로 부부가 16만 2천 원씩 32만 4천 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 돈만 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 때문에 할머니는 하루 6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일을 나가기도 했으나, 작년부터 할아버지를 돌보면서 못하고, 지금은 혼자서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밥을 차려드리고 이것저것 돌봐 드려야하기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오래 자리를 비울수가 없는 실정이라 곤란하기 그지없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할머니도 복지관에 나가서 월요일, 금요일에 하는 요가 프로그램이라도 참가를 했었는데 그것도 할아버지 병간호를 하게 되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난치병을 앓는 남편의 병간호

할아버지는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난치병을 앓고 계신데, 중증이라 혼자 일어서지도 못하고 말도 잘 하지 못하십니다. 그 때문에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하다고 할아버지가 악을 쓰고, 화를 내고, 그렇게 싸우듯이 간병을 하다보면 스트레스가 심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녀들이 넷 있어도 아픈 남편을 두고 먼저 죽는다면 죽어서도 마음이 편치 못할 것 같아 오늘도 애써 버팁니다. 만약 병원비를 자녀들이 보태주지 않았다면 할머니는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할아버지는 혈압 약, 전립선약 등 많은 약을 드시고 계시고 파킨슨병에 대한 약은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병원에서 타다 먹고 있기 때문에 돈이 제법 듭니다. 큰딸이 약값, 간식비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수발을 하다가 가끔씩 너무 우울하고 마음이 안 좋을 때면, 모자를 꼭 눌러 쓰고 운동하러 간다고 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집 안에서는 혹시 할아버지에게 우는 모습을 들킬까봐 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늘 밖에서 혼자서 울고 읍니다. 원래 젊어서부터 별로 건강이 좋지 못했던 할머니는 할아버지 병간호를 하다 보니 자신도 병을 얻어서,

이제는 정신과 약을 타다 먹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건강이 좋지 못한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아버지를 모시는 걸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되는지,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십시다." 하는데 할머니는 반대입니다. 젊어서부터 가진 게 없어 고생만 하던 양반을, 아직 내 손으로 집에서 모실 수 있는데 요양원에 보낸다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쓸 수 없는 이유

할아버지는 장기요양등급 3급입니다. 그래서 각종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덩치가 있어서 왜소한 체격의 할머니 혼자서는 씻겨드리기가 버겁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처음으로 목욕봉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주일에 한 번씩은 와달라고 했지만, 할아버지가 걸음을 걷지 못하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목욕 차에 모시고 가서 씻겨드리기에도 계단 때문에 휠체어를 쓸 수 없다보니 봉사자들도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방도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는 요양보호사도 쓰지 않고 할머니가 직접 할아버지를 모십니다. 작년에는 요양보호사를 썼습니다. 10시에 와서 밥을 차려주고 1시에 가시기로 했는데 여자 분이 혼자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걸음을 제대로 걸으시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데리고 움직이려면 몸을 부둥켜안아야 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여자 요양보호사가 할아버지를 부둥켜안고 모시는 것은 할아버지가 불편해 하십니다. 때문에 요양보호사를 불러도 안 불러도 할머니가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할머니는 요양보호사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간병만 하지 말고 밖에 좀 나가서 활동을 하시라고 하지만, 할아버지가 살아봤자 몇 년이나 더 사실까 하는 생각에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앞에서는 소리 지르고 싸우더라도, 뒤 돌아서면 또 다른 것이 가죽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있어도 일손이 없는 어려움

할머니는 2,200평, 즉, 논 11마지기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농사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할아버지라도 건강하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할 텐데, 할아버지가 몇 년째 병상에 계시니 할머니 혼자서 고생을 합니다. 일손이 없으니 농사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먹고 삽니다.

그러다 정 혼자 일하기 너무 힘들다 싶을 때는 할 수 없이 객지에 나가있는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고 사위랑 딸의 도움을 얻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쁜 자식들 끌어다가 고생만 시키는 것 같은 미안함에 마음 한 편이 무겁습니다. 이번에도 애들하고 먹을 정도의 식량만 말리고 나머지는 다 팔아버리려고 했는데, 전량수매를 안 해준다고 하니 일일이 다 말리느라 바쁜 자녀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아무도 안 지으려 하는 논농사

할머니는 최근 들어서 가뭄이 심해졌기 때문에 논에 물을 대려고 했습니다. 가까운 곳의 물은 다 말라버렸고 먼 냇가에 가서 모터를 이용해 물을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자꾸 모터에 연결된 호스가 붙어 터지는 바람에 물을 끌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힘도 없고, 기계에 대한 지식도 없는 할머니는 먼 산 쳐다보면서 신세 한탄 하는 것 말고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벌어도 1년에 300만 원이고, 거기서 180만 원은 기계 값으로 줘야 합니다. 거기서 못자리, 향토 값, 농약 값 등 이것저것 계산해서 주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속도 모르고 농사짓는다니까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농사지어서 300만 원밖에 안 나오느냐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기들 뭐 한다고 돈 좀 보태달라고 아우성들이고, 자식이니 안도와 줄 수도 없고, 할머니는 그냥 나에게 손만 안 벌리면 그게 효도하는 것이다 뜻을 박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다른 사람에게 맡겨보려고 해도 논농사는 아무도 안 지으려고 합니다. 할머니 생각에 정부에서는 농민들이 농사짓든 말든 어찌되든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뭄이라 물도 부족하고, 농사도 힘들고, 일손도 없고, 그에 비해 농산품 값은 싸고, 그런데 국가에서는 남의 나라 식량은 받아주면서 우리 농산품은 안 사줍니다. 그렇다보니 전에는 논을 남 줄 거면 차라리 자기한테 달라고 하던 동네 사람도 최근 돌아가는 사태를 보고는 논 달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이번에 수확한 곡식들은 버릴 수도 없고, 결국 다 일일이 팔려서 안에 들여났습니다. 나중이라도 팔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아니라면 정말 난감합니다. 버리는 것도 못하고 매년 집에서 곡식을 묵혀 놓게 생겼습니다. 전에는 곡식이 남으면 짐승이라도 먹었는데 요즘엔 뭘 키운다고 더 나아질 게 없으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속에서 화가 치솟아 오르지만, 할머니는 "남 원망하고 팔자 탓하면 뭐 해, 모든 게 내 운명이다 하고 살아야지." 하고 답답한 속을 억누르며 삽니다.

텃밭 가꾸기 사업의 즐거움

할머니는 최근 삶에 활력소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텃밭 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인데, 어린 손주들을 데리고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일입니다. 별로 큰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착하고 귀여워서 말을 잘 따라주니 재미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를 간병하면서 우울하고 힘이 들 때, 이렇게 나와서 어린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할머니 본인의 손주들을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이 나오니 참 좋습니다.

3) 발농사 지으면서 아픈 배우자 돌보는 여성노인					
성별	여	나이	78세	가구형태	노인부부가구
가계소득원	노인일자리사업, 발농사			공적급여	기초연금
건강상태	할머니: 요통, 할아버지: 뇌질환			자녀	7남매
그 외 특이사항	경로당 그룹홈 총무				
<p>경로당 그룹홈 노인일자리사업(20만 원)에 참여하고 있으며, 발농사는 자급자족하는 정도로 하고 있음. 남편은 노인장기요양등급자이지만, 요양보호사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돌보고 있음. 농지를 팔아서 병원비로 충당하고 있음.</p> <p>경로당 그룹홈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많은 이야기하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음. 개인보다는 마을에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함.</p>					

빈곤한 농촌 노년의 삶

할머니는 경로당 그룹 홈에 계시는 다른 할머니들을 위해 청소와 밥을 해주고 정부로부터 20만 원의 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연금 16만 원, 한 사람 앞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 남편과 합친 돈이 그 정도입니다. 소일거리로 놓고 있는 밭에 콩이나 깨, 팥 같은 열매가 많이 맺는 작물을 조금 키워보고 있지만 사실 돈이 되질 않습니다. 자식들은 일하지 말라고 하지만 할머니는 힘이 들어도 자식들에게 뭐가 하나라도 더 줄 수 있다는 보람 때문에 아직도 땀 흘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렇게 한 달 4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노인 부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 지출

할머니는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좋지 못해서 요통 때문에 벌써 12년째 병원을 다닙니다. 얼마 전에도 몸이 갑자기 아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나마 자식들의 보험 때문에 교통비만 내는 것이 다행이지만 교통비가 그렇게 싸지만은 않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도 많이 편찮으셔서 할머니는 없는 살림에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가지고 계신 땅을 조금씩 팔아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집 하나만 남기고 모두 팔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나마 가지고 있던 땅조차 없습니다.

간병인으로서의 삶

일평생을 같이 살아온 배우자이지만 편찮으신 할아버지를 보살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재작년 까지만 해도 아픈 곳이 많더라도 정정하셨던 할아버지는 작년부터 뇌까지 병이 퍼져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치매도 오셨는지 정신이 흐릿하시고, 가끔은 경기를 일으키십니다. 할

머니는 일을 나가느라 늘 집에 계신 것도 아니지만 하도 할아버지 성격이 불같아서 간병인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룹홈의 어려운 재정 상황

그룹홈은 1년에 3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지만, 매달 25만 원의 돈으로는 11명이나 되는 인원을 보살피기에는 턱 없이 모자랍니다. 통화료, 난방비, 수도세, 전기세도 내야 하지만, 그보다 더 문제인 것은 그룹홈에 있는 시설이나 물건들은 고장이 잘 나서 수리비가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60만 원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룹홈 노인들을 위해서 운동기구를 사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원받아 기구를 설치했지만,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보니 금방 고장이 났습니다. 면사무소에 가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수리해준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수리가 안 된다면 차라리 물리치료기계라도 들여오고 싶지만 그것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부족한 재정에 보태기 위해 한 사람당 5~6만 원 정도의 돈을 건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총무를 맡고 있는 할머니 입장에서는 입에서 한숨이 떠나질 않습니다. 할머니는 정부가 그나마 있던 이 지원금을 줄이게 된다면 그룹홈을 더 이상 운영해 나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그룹홈 안에서는 노인들을 목욕시키기 어렵습니다. 근처에 목욕탕이 있지만 그룹홈 노인들을 모시고 가서 목욕을 시켜 줄 사람이 없습니다. 동네에 있는 아픈 장애인은 한 달에 2번씩 목욕차가 와서 씻겨준다고 하는데 그룹홈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목욕을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4)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하여 수입이 없는 여성노인					
성별	여	나이	73세	가구형태	이혼한 아들과 동거, 배우자 없음
가계소득원	없음			공적급여	기초연금
건강상태	관절염, 골다공증, 혈압		자녀	3형제	
그 외 특이사항	과거 노인일자리사업(경로당 그룹홈 도우미) 경험 있음.				
현재 기초연금 이외에 현금소득이 없으며, 결혼한 자녀들과 관계도 좋지 않음. 다리가 불편하여 일도 못하고, 매사에 의욕이 없음.					

빠져나올 수 없는 빈곤의 늪

할머니의 수입은 오로지 기초연금 20만 원 하나 뿐입니다. 이전에는 경로당에 나가서 밥이라도 해 주고 돈을 받았지만, 이제는 건강이 나빠져서 그것조차 못 합니다. 관절염과 골다공증 때문에 걸을 때 마다 다리에서 통증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일은 하고 싶지만 힘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가진 재산은 집하나 뿐. 땅도 없어서 농사도 못 짓습니다. 병원비는 여전히 감당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할머니는 기초연금 20만 원이라도 받는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족 간 소통과 지지 부재

할머니는 3형제를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여태까지 혼자 계신 할머니는 1년에 전화 한번 안하는 자식들이 야속합니다. 최근에는 이혼한 아들 하나가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지만, 차라리 딸이 있으면 좋았겠다고 푸념을 하곤 합니다.

건강 악화로 인한 외출의 어려움

잘 걷지를 못하니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가끔 경로당에 나가시지만, 복지관이나 병원까지 가는 것은 힘이 듭니다. 버스 타고 다닐 돈도 아까워서 아파도 꼭 참습니다. 경로당에 나가서 그룹홈 할머니들을 목욕시켜주는 것도, 일주일에 며칠정도 밥을 해 주는 것도 늘 할머니의 일이었지만 이제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그것조차 그만 두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있자니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합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부업거리라도 받아오려 해도 눈이 침침하니 바느질도 힘들고, 일을 제대로 시켜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새로 무언가를 배우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생각에 시도하기가 망설여집니다.

5) 자활사업에 참여한 빈곤층으로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이 필요한 남성 노인					
성별	남	나이	66세	가구형태	미혼자녀+부부
가계소득원	폐지·고물 줍기(월 80만 원)			공적급여	기초연금, 의료급여
건강상태	고혈압이 있으나 건강함. 한쪽 눈 실명.			자녀	남매
그 외 특이사항	젊어서 농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다가 수급자가 되어 자활사업 참여 경험 있음. (아내는 40대 후반, 자녀는 모두 대학생)				
농촌에서 중장년시기에도 저소득층으로 살아오다가 노인이 된 경우, 재산은 없지만, 건강해서 아직도 노동에 참여할 수 있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함.					

이상과는 너무 다른 귀농생활

할아버지는 39살에 17살 차이나는 아내와 결혼을 하고, 남매를 낳고 기르며 농촌에서 그 나름대로의 일생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본디 촌에서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익산에서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극장에서 영사기를 돌리는 일을 하다가 농촌 생활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인들을 도우면서 편히 지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자신의 귀농 선택은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나마 농촌에서 만든 좋은 추억들 때문에 떠나지도 못하고 이대로 살고 있지만 농촌 생활은 아직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가진 땅이 없으면 빚만 남는 농사의 악순환

귀농한 직후 할아버지는 가진 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비닐하우스 농사라도 하나 할라치면 보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농촌에 온 할아버지를 위해 보증을 서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소작인으로서 남의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늘 남는 것은 적자뿐인 일상. 정부 돈으로 기계를 빌려다 쓰면서 1200평을 일궈내면 다섯 가마니 정도의 곡식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빚만 잔뜩 지고 농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빈곤의 절벽

할아버지는 농촌에 와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일했지만, 일한만큼의 재산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농사를 위해 트랙터 기계를 빌렸지만, 기계는 6년을 쓰고 그로 인해 발생한 빚은 9년을 꼬박 갚았습니다. 빚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경운기를 빼고 모든 기계를 다 팔아치웠지만 그래도 4천만 원이라는 빚이 남아있어서 결국 영세민 신청을 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

습니다.

이후 공공근로를 하면서 쓰레기도 주워보고, 자활사업으로 트럭을 몰면서 세탁물 배달도 다니고, 아내와 함께 취로사업도 하다 보니 수입이 좀 더 늘었습니다. 고생고생 하여 미래를 위해 장기 적금을 들었지만, 적금통장에 돈이 천만 원 이상 쌓이자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소리에 다시 적금을 깨서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돈을 조금 모은다 싶으면 다시 다 빼서 돈을 갚고, 또 모아서 갚고. 통장이 아니면 돈이 모아지지 않지만 통장에 돈을 모으면 수급자 탈락 신세입니다. 20년 가까이 그렇게 열심히 빚을 갚았습니다.

빚을 다 갚고 나니 6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좀 허리를 펴고 살 수 있을까 하였지만 자식들이 눈이 밝혀 노후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20대인 아이들은 대학에 다니고 있고, 곧 결혼도 시켜야 할 텐데, 결혼을 하면 전셋집이라도 하나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꿈에 비해 할아버지가 버는 소득은 한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추천받은 일자리가 세차장이라 혹여 외제차에 흠집이라도 내서 큰일을 치를까봐 그만두었습니다. 거기다 3년 전부터는 자식들이 어느 정도 컸다고 영세민에서도 탈락되어 동에서 지원 받는 것이라고는 동사무소 복지 직원이 올려준 한 달 2만 원 남짓한 약값 지원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농촌에서는 가난할수록, 못 믿을 정부보다는 가까운 농협, 부녀회가 더 낫습니다. 할아버지 보다 어렵게 살아도 영세농가 취급조차 못 받은 채로 사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돈을 모아서 빈곤에서 탈출하려고 하면 할수록 빈곤의 수렁으로 밀어 넣는 정부가 불만스럽습니다. 적금이나 통장에 돈이 모일 때 마다 그나마 받던 혜택을 빼어가려고 하는 정부는 마치 할아버지에겐 "영세민은 영세민으로 살다가 죽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농사짓느니 폐지 줍는 노년의 삶

할아버지는 최근에 그나마 폐지와 고물을 모아서 파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차라리 농사지을 때 보다 빛도 안 생기고 더 여유가 있는 삶입니다. 나랏돈으로 빌린 트랙터 기계를 몰고 다니면 사람들이 남의 사정도 모르고 "저 집 부자인가 보다." 하고 말하지만, 폐지를 줍고 다니면 "저 집 참 안됐어." 라고 말하니 더 낫습니다. 단지 한 가지 힘든 것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빚더미 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짓느니 차라리 폐지나 고물을 파는 편이 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6)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면서 복지관을 매일 이용하는 노인					
성별	여	나이	71세	가구 형태	노인부부가구
가계소득원	노인일자리사업, 자녀 지원			공적급여	기초연금
건강상태	암 수술 및 각종 약 복용			자녀	3남매
그 외 특이사항	노인일자리사업 교육형(노래교실 보조강사 등) 참여 중				
경제적으로 여유는 없지만, 복지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생활이 매우 활기찬 노인					

“활발하게 살아야 병도 떠나간다.”

할머니는 나름대로의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 온 사람입니다. 할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할머니 본인도 병으로 수술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도 약을 먹고 있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몸이 움직이는 한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되도록 많은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암 수술 때문에 대장을 부분적으로 잘라낸 할머니는 소화능력이 떨어지면서부터 운동을 시작했고, 그 때문인지 현재는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몸을 움직여야 암도 떠나간다는 것이 할머니 생각입니다.

일상적인 병원비 지출

할아버지는 현재 대상포진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할아버지 연세가 80세이다 보니 여태까지 많이 아팠습니다. 맹장수술, 뇌경색, 척추 수술, 장 수술, 거기에 혈압으로 4번은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생각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아픈 건 80이나 되기도 농사짓는다고 무리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할머니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요로에 결석이 생겨서 수술을 했었고, 9년 전에는 암에 걸려 수술을 했는데 의사 말이 61살에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암 수술로 대장의 일부를 잘라낸 이후로는 많이 먹지도 못하고, 뭘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되는데다가 몸이 붓기 시작하니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68kg까지 살이 찼다가 운동으로 다 빼고 지금의 모습이 되었지만 아직도 건강 때문에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병원을 좀 다닐라치면 병원비가 한 달에 몇 십만 원씩 소비가 됩니다. 아들 딸 내외가 용돈도 보내주고 병원비도 지원해주니 참 다행입니다.

지루할 틈 없는 일상

할머니는 재주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농사도 척척 지으시고, 경운기도 몰 줄 알고, 오토바이도

운전합니다. 오토바이만 30년을 몰았고, 지금도 눈비가 내리지만 않으면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오토바이를 몰고 가십니다. 단지 못 배운 건 차를 운전하는 방법인데, 할머니는 이따금 운전하는 걸 배웠으면 좋았을 뻔 했다고 아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게다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특유의 짹짹함으로 노래에 맞춰서 건강 박수도 가르치고, 웃음 치료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의성군에서 전국노래자랑을 했을 때에는 요도 결석으로 투병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무대에 참가했었고, 10월 달에 있던 노인의 날 행사에서는 노래 대표로 나가서 상도 땀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에 집안일도 척척 돌보고, 밖에서 놀 거리도 찾아서 즐길 줄 아는 멋쟁이입니다. 낮에는 복지관을 다니면서 사물놀이와 춤을 배우는데 댄스 교실에서는 무려 반장까지 맡아서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경로당에 나가서 1점당 10원을 걸고 고스톱을 칩니다. 여기 저기 참여하는 게 많은 할머니에게는 물어보러 오는 사람도 많아서 늘 주변이 시끌벅적합니다.

할머니에게 그나마 있는 걱정거리라고는 암 때문에 몸이 아파서 하고 싶은 일을 다 못한다는 것과 겨울이 되면 길이 미끄러워서 오토바이를 못 타고, 할머니는 차를 운전할 줄 모르니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것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경제력

몸이 안 아프면 몰라도, 몸이 아프면 병원비가 많이 나갑니다. 홀몸이여도 들어갈 돈은 많습니 다. 아직 나이가 젊으니 친척들 경조사비도 내야하고, 여기 저기 돌아다니려면 오토바이 기름 값은 필수입니다. 밥 먹는 건 그렇다 쳐도 겨울에는 난방을 해야 살아갈 텐데, 가장 추운 세 달 동안의 난방비는 80만 원 정도 소모될 것입니다. 그러면 할머니 생각에 혼자 살아도 최소 50만 원은 필요하니, 둘이면 100만 원은 있어야 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나마 할머니는 기초연금 20만 원에 자녀들이 20만 원씩 다달이 보내오고, 거기에 노인 일자 리소득, 그리고 딸이 병원비를 내 주는 것 까지 합치면 노인 부부 둘이서 살기에는 충분한 소 득을 얻고 있으니 다행인 일입니다.

7) 벼농사 지으면서 복지관을 매일 이용하는 노인					
성별	여	나이	80세	가구 형태	노인독거가구
가계소득원	벼농사, 자녀			공적급여	기초연금
건강상태	노환, 양다리 수술			자녀	5남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지만, 농사일이 힘에 부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음. 복지관을 다니면서 지루할 틈이 없음.					

자식 농사를 잘 짓는 것이 노후의 기쁨

할머니는 3년 전에 할아버지를 떠나보내시고 홀로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삶이 그렇게 고단하
지만은 않습니다.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고 있고, 거기에 자녀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병원에 가면 병원비도 자식들이 다 내 주고, 용돈도 주고,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와서 들여다보러 오기 때문에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없어도 크게 외롭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셋, 딸 둘의 다섯 남매를 낳아 길렀습니다. 첫째 아들은 촌에서 일하고, 둘째
아들은 시청에 가서 일하고, 둘째 며느리는 학교에 출근한다고 합니다. 셋째 아들은 건축 관련
된 일을 한다고 하고, 딸들도 그럭저럭 먹고 사니 할머니는 그게 노년의 기쁨이고 자랑거리입
니다. 할머니가 노년에 들어서 바라는 게 딱 한 가지 있다면, 그저 다른 거 없이 자녀들이 건강
하고 잘 있는 것뿐입니다.

심심할 일 없는 노년의 삶

할머니의 첫째 아들은 1500평의 농지에 블루베리 농사를 지어서 1년에 2500만 원정도의 소득
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사는 첫째 아들은 근처 안계면에 살고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할머니를 보러 오고 농사일도 돕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녀들은 대구에 살고 있지만 연락이 닿
으니 걱정이 없습니다.

할머니는 오토바이를 몰 줄 아시고 벌써 오토바이만 30년째 탔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은 오토
바이를 몰고 다녀올 수 있으니 행동반경이 자유롭습니다. 낮이면 오토바이를 몰고 복지관에
가는데 일주일에 두 번은 의성군노인복지관 본관에 가고, 두 번은 또 노인 회관에 있는 의성군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갑니다. 노인대학도 다녔지만 요즘에는 두 복지관을 오가느라 바빠서 가
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심심할 틈이 없습니
다. 시간이 남으면 저녁에는 경로당에 고스톱을 치러 갑니다.

이전에는 노인일자리아업에도 참여해서 돈을 벌었지만, 다리 수술도 하고 나이도 80이 되다
보니 기운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못 합니다. 그래도 바쁘고 정신없게 살고 있습니다.

땅이 있어도 소득을 내기 힘든 현실

할머니는 3000평이나 되는 논을 가지고 계십니다. 땅을 그대로 묵히기는 아깝고 남을 줘봤자 소득이 안 되니 그냥 돈을 주고 기계와 사람을 써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나마 소득이 좀 더 됩니다. 하지만, 1년을 고생해서 농사를 지으면 500만 원정도가 손에 떨어지는데, 거기서 300만 원은 기계 값이니 뚝니 해서 다 남의 손에 들어가고 할머니 손에는 200만 원이나 좀 남습니다.

남의 손에 맡겨서 농사를 짓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주인이 손을 대야 하는 부분은 남아있기 마련이라 할머니는 늘 농사짓는데 힘을 쏟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몸이 성치 못하시고, 매년 나이를 먹을수록 농사일은 점점 버거워져 갈 수 밖에 없는데 농사일로 버는 소득은 형편없습니다. 할아버지라도 있으면 힘이 좀 될 텐데 하고 꾸념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아무리 큰아들이 도움을 준다고는 해도 앞으로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8) 완주군 상호마을 마을공동체사업 참여 노인 사례

- 상호마을을 방문하여 문화마을조성사업 사무장과 인터뷰를 하는 동안 상호다정관에서는 마을 어르신 대상 노래교실이 진행되었다. 6~7명의 여성노인이 참여하였고, 프로그램이 끝난 후 4명의 노인과 마을에서 일하던 남성 노인 서너명은 경로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그밖에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인근 지역으로 양파 심기 일을 나갔다. 이 마을에서는 가장 바쁜 10월에는 경로당에서 점심과 저녁을 제공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10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는데, 이 날에는 절반 정도밖에 오지 않아서 음식이 많이 남아서 저녁에 먹어야 한다고 걱정하였다.
 - 1명의 여성노인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식사 준비를 부탁하고 있음.
- 경로당에서 식사를 마친 노인 중 한 명은 허리 수술을 하여 펴지도 못하고 구부정하게 걸으셨지만, 마을 주민 발에 일을 도우러 갔다.

- 허약노인의 경우, 오전에는 마을에서 진행되는 노래교실이나 건강체조 등 프로그램에서 시간을 보내고, 농번기에는 경로당에서 함께 식사하고, 동네에서 품앗이 할 일들이 있으면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참여함.
- 건강한 노인은 인근 지역에 돈벌이 농사일을 하러 나감.
- 저녁 시간에는 모여서 청국장 빚는 일을 하고, 2명씩 당번을 정해서 청국장 재료를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음. 마을에서 생산되는 콩을 사서 다듬어서 솥에서 삶아서 기계에서 발효시키는 과정은 손이 많이 가서 노인의 힘에 부치기도 함.
- 노인들이 모여서 일하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수입도 생기므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

○ 다음은 식사를 한 노인 두 명과 나눈 대화이다.

Q. 저녁때 매일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같이 드세요?

할머니2. 아니야. 한 달, 한 달씩 나 혼자서 밥을 해 주고 같이 먹어. 돌아가면서 밥을 하지는 않고, 다른 때는 여기서 같이 식사 안 해.

Q. 일하면서 어떠세요?

할머니2. 나도 작년까지 일 땡겼어. 일 할 때가 좋아. 행복해. 일 안하면 심심해.

할머니1. 일 안 하면 더 몸이 아파. 일을 하면 거기에 신경을 쓰니까 덜 아프거든. 아프다, 아프다 하면 한없이 더 아파. 이제는 무릎 아파도 진통제도 안 들고.

Q. 이제 김장철인데 그럼 다 같이 모여서 김장하세요?

할머니2. 하고 싶은 사람끼리 모여서 품앗이 하는 거지.

Q. 그럼 김장할 때 되면 또 점심 같이 드시는 거네요? 밥은 누가 해요?

할머니2. 밥은 따로 해 주는 사람이 있어.

할머니1. 둘씩, 둘씩 짝 지어서, 한다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맡기고, 아니면 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달라.

Q. 언제 제일 한가하세요?

할머니2. 일 끝나면 여기 사람 많아. 11월 말에서 1월 정도가 한가해.

할머니2. 지금(10월)이 양파 심느라고 제일 바쁘지. 15일 넘어서는 안 바쁠 거야.

Q. 여기 사시는 분들은 다 대전으로 다니시는 건가요?

할머니2. 전주로 많이 가지. 교통이 전주가 좋으니까. 대전이나 전주나 다를 거 없어. 여기는 차가 안다니니까 항상 불편해. 애들만 고생이지, 데리러 오려고 하니까.

Q. 마을에서 공동체 문화조성사업이니 향토 산업이니 이런 거 하자고 하실 때 어르신들이 의견도 내고 그러시나요?

할머니1. 이장님, 부녀회장님이 하자고 하면 하라는 대로 잘 들어 주지.

할머니2. 웬만하면 잘 따라주니까 그런 것도 하고 그러는 거지.

할머니1. 그리고 이런 노인네들이 하자는 것도 의견이 좋다 싶으면 이장이 또 해주잖아.

Q. 그럼 어떤 의견들이 반영되었나요?

할머니2. 장 같은 거 답는 것도 여자들이 잘하게 생긴 건 여자들이 한다고 하면 밀어주고 그랬지.

Q. 청국장은 일주일에 몇 번 만드세요?

할머니2. 잘 나갈 때는 2번씩 만들고, 안 나가면 1번 만들고 그래.

할머니1. 보통 2번 정도 만들어요.

할머니2. 우리 처음에는 2번씩 만들었어. 근데 요새는 (매장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물건이) 열다섯 동네에서 나온대. 그래도 우리는 많이 파는 거야. 이미지 방송에서 찍어가서 많이들 와.

Q. 청국장은 어르신들이 전부 와서 만드시는 거예요?

할머니2. 아니, 다는 아니고 몇몇만. 전에는 열 몇 명 있었는데 아파서 몇 사람 빠지고 하니까 12명 모여서 하는 거야. 만들 때는 함께 만들어 100g씩 달아서.

Q. 이거 팔면 얼마나 남으세요?

할머니1. 많이 남지. 돈 번거는 아직 안 나렸어. 천만 원 넘어 있다던데.

Q. 장들은 어떤 식으로 만드세요?

할머니1. 청국장 같은 경우는 숙성하는 시간이 딱 맞아야 해. 날짜도 딱 찍어서 나와. 눈 코 뜰 새가 없어.

할머니2. 방부제를 안 넣어서 만들어. 검사를 하니까 넣을 수도 없어.

Q. 혹시 주문 배송이 가능한가요?

할머니1. 그럼, 전화로 하면 이장님이 택배로 다 보내줘.

할머니2. 양이 많으면 택배비를 우리가 물고, 양이 적으면 그 사람들이 물고 그래.

2. 농촌 노인복지 전문가 인터뷰

- 농촌지역에서 본인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지어 온 사람들은 노인이 되어서도 그럭저럭 삶이 괜찮은데, 농지 없이 임대하여 농사를 짓다가 나이가 들면서 예전처럼 일하기 어려워진 노인은 생활이 힘들다고 하였다.
- 젊은 시절부터 빈곤했던 사람이 노인이 된 경우, 즉 수급자를 10년 이상 유지했던 사람들 중에서 (자활근로 정년인) 60세 이후에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 수급을 유지한다면 어떻게 지내는지, 탈 수급한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수급자, 공공근로 참여자, 막노동이나 영세농 등 4대 보험이 되지 않는 일에 참여하는 노인 등으로 구분될 것이다.

5~10년 자활센터 근무했던 대상자들이 60세 이후에 자활센터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지내는지 그 대상 군을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탈 수급한 인원들은 어떤 케이스로 빠졌는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사람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활센터든, 수급자를 10년 이상 유지했던 분들이 60세 이후에 어떻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지부터 조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막노동을 뛰든지, 4대 보험 안 드는 데에서 일을 할 거예요. 아니면 소농을 하든지. 그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공공근로, 그냥 수급권만 유지하시는 분들. 그렇게 유형을 나눠가지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 70~75세 미만 농촌노인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소득은 8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빈곤한 노인의 경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수급자인지, 자녀의 지원이 있는지, 어떤 일을 해서 얼마를 벌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새벽 인력시장 등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며, 이들은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노인복지관에 오지도 않고,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도 않는다.

- 이들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월 70~80만 원의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4대 보험이 되지 않는 일자리들을 전전하고 있다.

농촌에서 필요한 것은 기본소득이지 수급이 아닙니다. 애초에 이 사람들은 생활 기본소득 자체가 너무 낮아요. 이 분들은 일을 자아실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하시죠.

저는 노인의 기본 소득이 80만 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충족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변수인 거예요. 결혼을 했는지, 수급자를 유지하고 있는 빈곤층인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걸 필터링을 돌리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요.

새벽에 인력사무소나 도깨비 시장 같은 곳이라도 돌아다녀야 이 그룹에 속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 그룹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노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 분들은 복지관에 안 오세요. 다 여성회관, 평생교육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 분들을 위한, 뭔가 이 분들이 오셨을 때 어떤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데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보니 불법으로 막노동이나 4대 보험을 안 들어도 되는 일자리들을 전전해서 70~80만 원까지 벌어서 생활을 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그러나 이런 것도 건강이 좋아야 하는 거지 건강이 나빠지면 이것조차도 못합니다.

- 농촌노인을 수급자, 기초연금 수령자, 월 80만 원 정도 안정적으로 경제적 수입이 있는 노인, 노후 대비가 되어 있는 노인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의 평균 연령은 73세 정도이며, 그 이하 노인은 노인일자리라는 낙인도 싫고, 월 2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 65세 이상 73세 미만 노인을 위한 일자리가 농촌지역에서는 찾기 어렵다. 이들의 자녀는 아직 손자녀 양육 등으로 지출도 많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의 지원을 받기는 어렵다.

수급자, 그 다음이 65세 이상이 되어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 그 다음이 자녀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80만 원정도가 확보되는 사람들, 그 다음이 노후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자아실현이 가능한 계층이 있어요.

이를테면 자기 땅이나 소유가 있는 분들은 은퇴하고 나서 농사를 지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소일거리하거나 밭일하거나 아니면 일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농촌이 경제적 기반이 없으면 일할 곳이 없어요. 역할이 없는 거죠. 수급권자면 일을 하면 수급권에서 탈락되니까 일을 아예 못하고, 아니면 위법으로 몰래 하시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급권자 탈락되신 분들은 거기서 뭔가를 하셔야 하는데, 경제적 규모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시도하기 굉장히 어려워하신 거죠. 그러면 빈곤층으로 계속 남게 됩니다.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도 노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낙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나이대가 평균 73세 정도 되십니다. 그 앞전 세대가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거는 정말 드물어요. 노인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거죠. 금액이 20만 원 밖에 안 된다는 것도 있고요.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에는 자녀들도 똑같이 수급자라서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고, 손자녀들이 아직 어리다보니 자녀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 구간이 사실 연령대로 봐도 존재하지 않을까 싶어요. 농촌에서 이렇게 막 경계에서 넘어오는 노인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노인계층으로 막 진입하는 65세 이상의 연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드물다. 이들은 중·후기 노인과는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다.

- 여성노인들은 품앗이라도 하지만 남성노인들은 모여서 술 마시는 게 유일한 낙으로 지내며, 알코올중독인 경우도 많다.

특히 남자 어르신들이 취약해요. 여자 어르신들은 간간이 품앗이라도 다니시지만 남자 어르신들은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구 임대 아파트 내에서 수급자 아저씨들은 모여서 술이나 한잔 마시는 게 유일한 낙인 것이죠.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구간에 있는 분들은 서비스 상에서도 소외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계층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 계층을 겨냥한 서비스도 없거든요. 그러니 더더욱 이 분들이 사회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 노인일자리사업은 평생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농사일과 가사일만 해 온 노인은 참여할 수 있는 일도 한정적이다.

- 예를 들어 교육형 사업에는 미술, 음악, 운동 등의 재능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노인들은 청소 등의 복지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이다.

제가 보기에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인큐베이팅 기능이 없어요. 그냥 기계적인 시스템인 거죠.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인 자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장기간의 프로젝트로 진행하면서 노인일자리로 전환, 자활 프로젝트.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있어야 하는데 그냥 수요적인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능력 순으로 줄을 세워서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할 줄 아는 게 없는 어르신들의 삶이 곤란하니까 그걸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오히려 능력이 없는 어르신들을 추방하고 있는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3. 인터뷰 결과 종합

- 노인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20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각자 16만 원(가구 32만 원) 정도이다.
- 10여명 노인의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농촌노인을 연령, 건강,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 75세 이상 노인은 경제적으로 월 40~50만 원 수준(노인부부가구 70~80만 원)이면,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다. 다만 만성질환 등의 질병 이외에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의료비(돌봄)에 부담이 가중된다.
 - 70세 미만 노인 중 미혼자녀나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손)자녀 학비나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수입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는 노인들이다. 이들은 시장에서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노인이라고 인식하지도 않고 있다. 최소한 70~8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는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계층이다.
 - 미혼자녀가 없는 노인 중에서 농지를 임대하는 등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자녀로부터 용돈이나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기초연금 20만 원과 노인일자리 20만 원에 자녀의 용돈이 10~20만 원 지원되면, 50만 원 정도로 어느 정도 생활이 되는 것이다.

- 하지만, 이들 중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자녀의 지원이 없는 노인은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현금 수입이 없는 노인으로 대부분 70세 이상이다.

땅이 있으니 땅을 묵힐 수도 없고 잡초도 보기 싫고, 그래서 씨앗은 뿌려 놓는데 일 할 사람이 없으니까 힘이 들죠. 그렇게 아픈 몸 끌고 나가서 일 해봐야 입에 풀칠이나 겨우 하는 수준입니다. 쌀 한 가마니에 17~18만 원 하면, 한 말 심게 해 주는 데 5만 원, 빌리는데 5만 원, 심는데 5만 원 해서 15만 원 돈이 공식적으로 나가요. 거기에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물이 없으니까 논 한마지기도 트랙터가 2~3번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실 쌀 한가마니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거죠. 이것도 5~6년 전 이야기이고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레농장 참여, 79세 남성 노인)

- 농촌고령자를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령자, 기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기준 소득인정액	수령 최대금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¹³⁾	437,454원 이하	437,454원 (기초연금 202,600원 포함)
기초연금 수령자	930,000원 이하	202,600원 부부 2인 감액 적용) 162,080원
기타	930,000원 초과	-

- 읍·면지역 노인 인구는 2014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1,962,890명이다. 이들 중에서 수급자¹⁴⁾는 읍·면지역 노인은 대략 15만 명 정도이다.

13)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1,562,337원/2인 가구 2,660,196원(2015년 기준)이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28% 이하이다. 즉 가구 소득인정액이 437,454원(744,855원)보다 적어야 한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생계급여 = 437,454원 - 소득인정액

14) 전체 수급자 비율 대략 2.5%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를 넘는다고 볼 때,

- 기초연금 수령자는 135만 명(전체 노인의 70% 정도¹⁵⁾)이며, 이들 중 56.3%는 20만 2,600원 전액을 수령하고, 부부 2인 감액 적용 16만 2,080원 전액 수령까지 포함하면 92.9%에 이른다.
 - 그밖에 공적 이전소득이 없는 46만 명 정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다고 볼 수 있다.
 - 기초연금 수령자 중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15만 명 정도¹⁶⁾이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수령자 중에서 현금 수입이 아닌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의해 소득인정액이 산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소득이 있어야 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 기초연금 수령자 중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40만 원(교육형이나 복지형 일자리사업의 경우, 월 20만 원) 정도의 현금 수입이 발생하고, 자녀로부터 용돈을 월 10~20만 원 정도 받으면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다.
 - 다만, 매월 정기적인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미혼 자녀에 대한 지원이나 경조사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없는 75세 이상 노인에 한한다.

예상 인원이다.

- 15)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를 목표로 신청을 받았으나, 수급자 비율 70%를 넘은 광역 시·도는 전남 82.6%, 경북 77.1%, 전북 76.2%, 경남 73.6%, 충북 72.2%, 충남 71.2%, 강원 70.1%, 인천 70.4%, 부산 70.1% 등이다(2015년 6월 기준).
- 16) 노인일자리 참여실태 조사(2013) 자료 분석결과, 읍·면지역 노인의 7.6%만이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의 p.53).

제 4 장

농촌고령자 정책 및 복지사업 현황

1.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1.1. 사업 내용 및 수혜기준

- 보건복지부의 2015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자료(보건복지부, 2015a; 보건복지부, 2015b)에 의하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사업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4-1;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참고).
 - 건강보장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노인복지사업, 치매상담센터 운영, 치매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노인실명예방사업 등이 있다.
 - 소득보장사업에는 노인일자리사업, 기초연금 등이 해당된다.
 - 주거보장사업으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다.
 -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는 노인돌봄서비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무료 급식지원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기타 경로우대제 등이 있다.

표 4-1. 2015년 노인보건복지사업 개요

사업명	수혜자		비고
	연령기준	자격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¹⁷⁾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등증 이상(1~5등급)의 자	제도시행: '08. 7. 1
재가노인복지사업 (방문요양서비스, 주간·단기보호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65세 이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지방이양사업
치매상담센터운영	60세 이상	치매노인과 그 가족	지방이양사업
건강보장 치매검진사업 - 치매선별검사 - 치매진단검사 - 치매감별검사	60세 이상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 (저소득층에 우선권 부여)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60세 이상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F00~F03, G30)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노인실명예방사업	60세 이상	- (안검진)모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 - (개안수술)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원으로, 백내장·망막질환·녹내장 등의 안질환을 진단받은 자	
소득보장 노인일자리사업	65세 이상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한 노인 - 사업내용 및 노동강도에 따라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도 참여가능	
기초연금 ¹⁸⁾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¹⁹⁾ 이하인 노인	

17)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고령자는 본인 부담액의 50%를 지원받는다.
출처: 보건복지부(2014).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p.116

사업명		수혜자		비고
		연령기준	자격기준	
주거보장	노인복지시설(주거)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65세 이상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로서: · 기초수급권자 및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 하는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 노인 · 입소자부터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지방이양사업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무료·실비 및 유료시설이 노인주거복지시설로 통합(08.4.4)
	노인돌봄서비스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65세 이상	- 기본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 - 종합 · (방문·주간보호서비스)장기요양보협등급외 A,B의 노인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 (단기가사서비스)독거노인 또는 고령(모두 만 75세 이상)의 노인 부부가구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10년부터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노인)서비스통합운영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65세 이상	없음	지방이양사업
	결식우려노인 무료 급식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60세 이상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지방이양사업
경로우대제 (철도, 전철, 국공립공원 등)	65세 이상	없음		

출처: 보건복지부(2015a).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I).” pp.56-57

18) 출처: 보건복지부(2014).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p.118

19) 소득기준액: 2015년 기준 단독가구 93만 원, 부부가구 148만 8천 원 이하.

지원액: 단독가구는 월 최대 202,6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324,140원을 수령할 수 있다.

1.2. 사업예산 현황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실 소관 사업의 2015년도 예산 현황은 다음<표 4-2>와 같다. 노인돌봄과 소득보장을 위해 대부분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5,971.64억 원으로 가장 많이 투입되며, 이는 전체 예산에서 절반에 가까운 47.1%를 차지한다. 여기에 노인돌봄서비스 예산 1,326.47억 원(10.5%)까지 합치면,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예산 중에서 노인돌봄지원 관련 예산이 57.6%에 이른다.
 - 다음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3,442.47억 원(27.1%)이 지원된다.
 - 그밖에 다양한 사업들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3%에 그친다.
- 2014년도에 비해 2015년도에는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은 감소하고,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은 다소 증가한다.

표 4-2. 2015년 노인정책관실 주요사업 예산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14예산	'15예산	증감	
				(B-A)	(%)
총 계		1,207,434	1,268,772	61,338	5.1
일반회계		1,168,542	1,230,385	61,843	5.3
노인 생활 안정	노인복지지원	1,220	219	△1,001	△82.0
	사할린한인지원	5,025	6,328	1,303	25.9
	고려인정착지원센터 건립지원		300	300	순증
	노인관련기관 지원	50,330	50,583	253	0.5
	노인돌봄서비스	144,582	132,647	△11,935	△8.3
	양로시설 운영지원	-	31,990	31,990	순증
	노인일자리 지원	305,190	344,247	39,057	12.8
노인 의료 보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584,883	597,164	12,281	2.1
	노인요양시설 확충	33,878	32,471	△1,407	△4.2

구 분		'14예산	'15예산	증감	
				(B-A)	(%)
장사시설 확충	장사시설	41,069	28,971	△12,098	△29.5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고령친화산업육성 및 100세 사회대응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	2,365	5,465	3,100	131
국민건강증진기금		31,645	30,704	△941	△3.0
노인의료보장	치매관리체계 구축	17,648	14,159	△3,489	△19.8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노인건강관리	13,997	16,545	2,548	18.2
응급의료기금		7,247	7,683	436	6.0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 사업	7,247	7,683	436	6.0

출처: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I)(보건복지부, 2015a; p.58)

1.3.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 농촌지역에서의 문제점

- 노인복지사업은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소득, 건강, 주거 이외에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끊임없이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 농촌지역에서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경제성 논리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서비스는 부족하고, 요양시설처럼 도시지역에 비해 수익 창출이 용이한 서비스는 오히려 많은 등 서비스 공급 불균형 문제가 있다. 또한 농촌에서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구하기도 도시에 비해 어렵다.
 -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 등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지역사회와 가정을 떠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농촌노인은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집에서

일정기간 지내는 중간 단계 없이 바로 요양시설로 보내지는 것이다.

- 장기요양서비스 중에서도 방문간호나 방문목욕 등은 도시지역에 비해 제공자가 적다.
-
-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재산(농지) 등으로 인해 현금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계층에서 제외되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제한을 받는 노인들이 있다.
- 농촌노인의 소득수준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율이 도시 노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익활동인 전국형과 지역형 사업은 기초연금수급권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지역형 사업 중에서 교육형은 전문성이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참여자를 선정한다. 교육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농촌노인은 도시지역에 비해 적을 것이다.
 -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농촌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농업 노동에서 벌 수 있는 수입에 비해 노인일자리사업 급여가 낮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인은 다른 일을 찾고 있는 것이다.
 - 노인일자리사업에 투입되는 정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에도 불구하고 농촌노인의 경우 도시 노인에 비해 참여율이 낮다는 것은 농촌노인에게 지원되는 복지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중에는 농촌노인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 문제가 제기된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은 이용하는 목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로당은 사교·친목을 목적으로 한다면, 복지관에서는 평생교육이나 취미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경로당에서는 마을 주민과 함께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만, 복지관에서는 인간관계의 폭이 더 넓어지고,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경로당이 노인복지관을 대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셔틀버스가 운행되지 원거리지역 노인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분관이 필요한 것이다.
- 경로우대제에서 전철 요금 면제는 도시지역 노인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이다. 농촌지역에서는 버스요금이 도시지역에 비해 비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이 없다.

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고령자 대상 사업

2.1. 사업 개요

- 다음 <표 4-3>은 농림축산식품부 추진 사업 중 노인에게 혜택이 되는 주요사업을 정리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3> 참고).

표 4-3. 농촌노인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1	농지연금	· 영농경력 5년이상이면서 만 65세 이상인 농업인,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농지가격에 따라 최대300만 원 까지)을 연금으로 지급, 종신형과 기간형(5,10,15년)선택가능 *연금을 수령하며 경작 또는 임대가능
2	영농도우미	· 사고로 2주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 농업인	· 영농도우미의 인건비의 70%지원(최대42천 원/일), 연간 10일 지원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3	행복나눔이	· 농촌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포함)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가구 및 농촌지역 경로당('15년15,000가구)	· 가사서비스(청소, 세탁 등)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가사도우미 활동비 지원, 연간 최대 12일 지원(경로당은 최대 24일 지원)
4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	· 농촌마을 및 시·군 * 마을공동체가 시·군에 신청	· 어르신들의 함께 이용하시는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 목욕탕 설치 지원 * '15년 공동시설 77개소(공동생활홈 35개소, 공동급식시설 28개소, 목욕탕14개소) 확충
5	농업인 행복버스운영	· 산간 도서벽지 등 의료·문화이용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	· 무료건강검진, 장수사진 촬영 등
6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 시·군, 운수사업체, 지역아동센터·복지회관·마을자치회 및 기타 비영리법인	· 맞춤형버스, 행복택시 등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 취약 농촌지역의 교통여건 개선

출처: 보도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15a;2015b;2015c;2015d), 농지연금포탈(<http://fplove.or.kr>)

2.2. 사업의 문제점

-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구, 가사도우미)는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으로 2006년부터 농특세로 지원하고 있다. 매년 63억 원에서 71억 원까지 2만 5천 가구에서 3만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14년도 사업규모는 영농도우미 1만 5천 가구, 행복나눔이 1만 가구 등 총 2만 5천 가구이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2014).
 - 80세 미만 농업인에 지원되는 영농도우미 사업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이용률이나 행복나눔이 사업에서 노인가구(독거, 노인부부, 조손 등)에게 지원된 사업량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 이 사업이 실제로 취약계층 농촌노인들에게 지원하는 기간(영농도우미 연간 10일, 행복나눔이 12일, 경로당 24일)이 적당한 지, 사업규모 자체가 충분한 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벼농사를 하는 노인들의 경우, 수확한 금액에서 기계사용이나 인건비 등을 지불하고 나면 실제 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영농활동을 지원하여 지출 비용의 감소분이 소득으로 확보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다.
 - 영세 고령농의 영농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지만 시행 초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나타나는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은 대두되고 있다.
 - 공동생활홈은 주거복지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용 노인은 마을에 본인의 집이 따로 있고,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 등 한시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인 것이다.²⁰⁾ 농촌노인 주거복지의 대안이라고 하기는 한계가 있다.
 - 경로당이 공동생활홈으로 이용되면서 그 곳에서 생활하지 않는 노인들이 마을에서 갈 공간이 없어졌다. 그리고 한 공간에서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것은 다소 불편하고 갈등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 공동급식사업은 농번기 30일 동안 마을주민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도록 급식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한다. 급식재료는 마을에서 해결해야 한다(농촌여성신문, 2015.9.23일자).
 -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30일 만 일하는 급식 도우미를 구하기 쉽지 않다.
 - 경로당에 2달에 한 번씩 20kg 지원되는 쌀은 부족하고, 부식 재료비 등 공통 운영비용을 마련하기 어렵다. 특히 이용 노인이 많은 경로당에서 쌀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용 노인의 숫자에 비례한 쌀이나 운영비용의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한다.

20) 실제로 일부 시설에서는 평상시에는 이용 노인의 숫자가 적지만, 행정기관 등에서 나올 때마다 기준 인원을 채우기 위해 생활하기도 한다. 여럿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공동생활홈시설이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유지하고 싶어 한다.

- 목욕은 농촌노인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 중 하나이다. 목욕 자체가 위생청결 및 혈액 순환 등 건강에 도움을 주며, 집 안에만 지내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목욕을 하기 위한 외출이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목욕탕 시설을 운영하는 어려움이 크다.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비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목욕탕을 운영하는 시간동안 근무하는 인력이 있어야 한다.
 - 거동 불편 노인이 이용할 경우, 목욕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 초기 설치비용이 적은 기름보일러나 일반전기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유류비, 전기료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운영기간이 3~4년 경과하게 되면 보일러의 잦은 고장 등으로 수리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

3. 지자체 사업 및 기타 사례

3.1. 완주군 두레농장²¹⁾

3.1.1. 두레농장 사업 개요 및 현황

- 완주군 두레농장은 2008년 완주군 농업농촌발전 약속프로젝트 사업 계획 수립 시 복지혁신분야의 농촌노인복지형 사업으로 포함되고, 2009년 3월 『농촌노인복지형 두레농장』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였다.
- 2009년부터 매년 2개소씩 2013년까지 10개소를 조성하여, 2015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표 4-4).

21) 완주군청 내부자료(2015.01.20.)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4-1. 두레농장 일자리 기본설계



표 4-4. 개소별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사업비 (백만 원)	비 고
공동 생산기반 확충 (H/W)	공동 생산기반조성 시설, 편의시설 신축 및 매입 자금	150	1년차 지원
운영 활성화지원 (S/W)	친환경 농자재구입, 전담관리 인력 지원, 운영비 지원 등	190	1~5년차 지원 (매년 차등지원)

- 당초 계획은 총 사업기간 10년에서 5년까지는 지원하고, 6년부터 10년까지는 완전 자립으로 운영하는 것이었음²²⁾.
- 지원을 받는 5년 중에서 처음 지원을 받는 1년차에는 시설비용을 지원하고, 여기에 운영비 5천만 원도 지원함. 2년차에는 운영비만 5천만 원, 그 다음해에는 4천, 3천, 2천으로 줄여가면서 5년을 지원해 주는 방식임.
- 농자재라든지 식비 등 농장이 필요한 것들을 5년 뒤 자립한다는 위한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것임. 그 때문에 인건비는 수익금에서 빠져나가도록 되어있음.

22) 본래 계획은 6년부터 완전자립으로 운영하는 것이었으나 약암두레농장의 경우 수익누적금의 부족으로 완전자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① 생산기반지원: 공동생산기반조성, 농자재구입, 작업장 및 편의시설 설치 등
 - * 농촌노인 경험과 능력에 맞는 연중 운영 가능한 일거리 발굴 지원
 - ② 복지증진: 공동식생활 및 공동활동 여건 조성
 - * 공동식생활 지원: 참여인력 건강증진을 위한 식생활비 지원
 - ③ 운영활성화: 전담관리인 채용지원, 기타 제반운영경비 지원
 - * 농장 전담관리인 인건비 지원: 개소별 1인 (월 100만 원 지원)
 - * 대체 인력 지원: 노인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및 중노동 작업
 - * 공동생산 및 공동작업에 필요한 친환경농자재(종자, 퇴비, 기타 필요 농자재 등), 작업환경 개선경비 등 지원
- 2014년 12월 기준으로 총 10개 두레농장에서 126명이 일하고 있으며, 농장 별로 최소 6명에서 최대 21명까지 참여하고 있다. 생산품은 채소, 과일, 한우, 버섯, 바비큐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다(표 4-5).

표 4-5. 완주군 두레농장 운영현황(2014.12.)

읍·면	마을	조성연도	일자리	생산품	운영현황
계	10개소		126명		
① 소양면	인덕	2009	7	참나물, 애호박 등	비닐하우스 - 8동 3,984㎡
② 구이면	구암	"	11	딸기, 무화과 등	비닐하우스 - 4동 2,672㎡
③ 화산면	돈의	2010	16	한우	공동 한우사 - 1,400㎡
④ 구이면	상하보	"	10	일반채소 15종	비닐하우스 - 10동 2,135㎡,노지
⑤ 소양면	약암	2011	18	표고버섯	버섯재배사 - 7동 2,646㎡
⑥ 용진면	두억	"	6	화덕 바비큐	화덕레스토랑, 공동 체험관
⑦ 비봉면	평치	2012	21	수박, 방울토마토	비닐하우스 - 4동 3,530㎡
⑧ 경천면	오복	"	13	블랙베리,일반채소	비닐하우스 - 8동 3,800㎡,노지
⑨ 이서면	2개 마을	2013	8	쌈채소, 개복숭아 등	비닐하우스 - 7동 3,300㎡,노지
⑩ 소양면	평리	"	16	방울토마토, 채소류	비닐하우스 - 5동 3,000㎡

※ 완주군 두레농장 상생 네트워크 사업 운영

- 2013년부터 2년 동안 두레농장 자립 및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기초생활인프라정비(창조지역사업) 사업을 추진하였음.
- 총 사업예산: 1,400백만 원(국비 1,120 군비 280), 전담인력 2명
- 사업내용: 두레농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개별농장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로컬푸드 유통을 통한 두레농장 자립 경영 촉진
- 사업 종료 이후 과제로 두레농장의 판로문제, 사업추진 주체 및 리더의 역량(생산, 유통 등) 강화 등을 제시함

3.1.2. 약암마을 두레농장 사례

○ 약암마을 개요

- 주민 규모: 14가구(약 30여명), 다문화가정(일본인) 2가구 포함
- 소득원: 이전에는 꽃농사를 많이 지었으나, 현재는 주 소득원이랄 것이 없고, 자기 식량 해결 정도로 농사를 짓고 있다.
- 노인들은 농장에 나와서 일하고, 기초연금을 받아서 생활한다.²³⁾
-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정부, 농협, 교회 등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 굶고 지내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 약암마을 두레농장 개요

-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다. 다만, 순번을 정해서 필요한 인원이 참여한다. 즉 내일 수확량이 4명 정도면 될 것 같으면, 4명이 참여하여 2~4시간 정도 일하고, 수확할 것이 없으면 쉬고, 체험이

23) 토지가 있는 노인의 경우, 농장에 나와서 일한 것이 소득으로 잡혀서 기초연금이 깎인 사례가 있다고 한다.

진행되는 날이면 하루 종일 일하기도 한다.

- 하루 일당은 시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5만 원씩 지급한다.

어르신들이 하루 일하러 나오시면 일하는 시간에 상관없이 5만 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봄에는 70~8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도 가져가지만, 보통은 한 달 20~30만 원 정도 가져갑니다. 농촌에서는 5만 원도 상당히 큰돈입니다. 왜냐하면 밭에서 하루 종일 일했을 때 인건비가 4만 원~4만 5천 원 정도인데, 하루에 만 원이나 2만 원 준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참여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 약암마을두레농장 사례를 통해서 파악된 두레농장 사업의 효과와 운영상의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효과로는 노인 소득 지원, 마을공동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주민 참여와 협력 증진 등을 꼽을 수 있다.

▶ 두레농장을 하면서 좋아진 점

농촌은 일이 없으면 집 밖으로 나오질 않기 때문에 얼굴 보기도 힘들고 표정들도 어둡고 그렇습니다. 연락도 잘 안되고. 그러다보니 혼자 남은 사람은 언제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니까 차라리 먼저 죽는 게 복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두레농장을 통해서 서로 얼굴도 보고, 안부도 묻고 합니다. 별 건 아니고 그냥 서로 모여진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 같이 모여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동네 사정도 알게 되고,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회의할 때도 통닭이나 피자 같은 거라도 시켜서 나눠 먹고 하다 보니 마을 사람들 간 화합이 잘 돼서 두레농장 참석률이 거의 100%입니다. 다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에 참여를 하십니다.

요즘 노인들의 4고라고 해서 고독, 질병, 빈곤, 역할상실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시면 서로 일터에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같이 밥을 먹고 하니 확실하게 고독감이 줄 것입니다. 또 같이 먹으니까 입맛도 들고, 혼자 먹을 때와는 먹는 양이 확실히 다릅니다. 또 어르신들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움직이시고 근력운동을 하시니까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한 달의 일부라도 일하고 30만 원이라도 받으시면 한 달 생활비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애로사항으로는 참여노인 부족, 수익 창출이 쉽지 않아서 투입 비용에 비해 정부지원없이 자립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림, 수익의 배분 등 각자

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면 사업의 유지가 어려워지는 마을사업의 한계를 안고 있다.

- 두레농장의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참여 인원이 감소하는 것이다.
 - 두레농장은 농촌노인복지사업으로 초기에는 65세 이상 노인만 참여 가능했었다. 65세 이상 노인으로 채우고, 부족하면 대체인력을 옆 마을까지 허용하기도 했지만 기본방향은 마을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참여 인력의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지금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고령인 사람이 76세 정도이고, 전에 일하던 분들 중에서는 그보다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노인의 나이가 65세 이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현실감 있게 표현하려면 농촌에서 ‘어르신’의 나이는 65세가 아니라 70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 중에는 55세도 있습니다. 아무리 힘쓸 일이 적은 표고버섯이라고는 해도 농사 일이 힘쓸 일이 없는 것도 아니라서 정말 노인들만 받으면 힘듭니다.

- 5년 전 사업 시작 당시에는 참여인원이 20명(최소 10명 이상)이던 것이 해가 지날수록 줄어들고 충원이 되지 않고 있다. 참여기준연령을 60세까지 낮춰 보기도 했지만, 본업에 종사하는 연령대가 올라가서 두레농장에 참여하기보다는 보다 수입이 높은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두레농장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예전만큼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는 욕심이 줄어들기도 하고, 함께 한다는 공동체의식도 약화되면서 두레농장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가장 사람이 없는 농장은 참여인원이 5명도 안 되는 실정이다.
- 두레농장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창출되지 않고 있다.
 - 채소류는 투입되는 노동력 대비해서 소득수준이 낮아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소류의 경우 그때그때 다듬고, 포장해서 운반해야한다. 초기투자비용이 적은 채소류는 어르신들을 참여시킬 일거리 만드는 데에는 좋지만 손이 많이 가고 판매단가가 낮아 결국 인건비가 더 지출되

는 구조가 되고 있다. 결국 6년차부터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 자생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 두레농장사업은 일자리사업이 아니라 노인복지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 투입 비용 대비 창출된 소득으로 평가하면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인 것이다.
 - 약암마을의 경우, 두레농장 사업 이전에 정부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는 마을이다. 14가구 30여 명이 거주하는 마을에 5년 동안 5억 원이 지원되었다. 이러한 비용은 1가구당 연간 700만 원 정도가 투입된 비용에 해당한다. 이는 지자체에서 한 마을을 대상으로 지출하기에 부담되는 큰 액수이다.

사실상 두레농장 사업은 생산성이 떨어져요. 만약 이게 수익사업이었다면 정말 의미가 없겠지만, 두레농장은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운영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타 지자체에서 우리랑 똑같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많이 싸우게 될 겁니다. 여기만 해도 군비만 30억 정도가 투입됐어요.

- 약암두레농장의 경우 5년 동안의 지원이 끝나는 2016년부터 자립해야 하지만, 10개소 중에서 가장 활성화된 농장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자립은 어렵다고 한다.
- 이곳은 위원장이나 사무장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어르신들은 참여해 일당을 받고, 같이 식사하고, 협조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이런 운영방식도 위원장과 사무장 등의 희생이 있기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전담관리자 인건비로 100만 원을 지원받지만, 그 100만 원 가지고 생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업을 따로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전담관리자 인건비 확보가 공동체사업 운영의 어려움 중 하나이다.²⁴⁾

당초 계획에서 5년 동안 수익금 적립을 많이 해두라고 했었지만 그것도 사실 힘들거든요.

24)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공동체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두레농장 중 일부는 거의 와해된 실정이라고 한다.

적립을 꾸준히 한 농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위원장님, 사무장님, 사모님, 그 외분들은 인건비 안 받으시는 분들이예요. 그래서 그 남은 인건비를 고스란히 수익금으로 넣기 때문에 적립이 가능한 것이죠. 그분들 다 드리고 나면 남은 게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협동조합 하나 만들라치면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 달라서 금방 넘어지고 와해되기 쉽습니다. 용진면 같은 경우는 용진 농협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지...

○ 그밖에 두레농장 참여 노인(77세 남성)과 사무장 55세 여성을 인터뷰한 내용이다.

▶ 두레농장 사업 지원 동기

사업계획서 공고를 보고 처음에는 5억이나 되는 많은 지원을 해 줄 리가 없다고, 나중에 꼭 갚으라고 할 것이다, 하고 의심했었는데 마을에서 회의를 거쳐서 결국 신청해 보기로 결정하게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있는 두레농장은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 마을 두레농장에서는 표고버섯을 키우고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표고버섯을 키워본 경험들이 있어서 사업 신청할 때 표고버섯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버섯은 날씨,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우리 마을은 일교차가 심하고, 온도도 버섯을 키우기에 적당한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맞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두레농장 운영

위원장님이나 사무장님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어르신들은 참여하고 일당을 받으시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많으신 만큼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두레농장 상생네트워크 사업단”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사업단에서는 두레농장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별도로 추진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업단 팀장님은 실질적인 단장님 위치에 있어요.

▶ 두레농장에서 하는 일

어떤 날은 4명에서 일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아무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5도 이상 일교차가 나야 버섯이 자라고, 갑자기 온도가 뜨거워지면 버섯이 자라다가 멈추기 때문에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손이 가기 때문에 맛이 좋은 거죠. 하는 일도 힘을 써야 하는 일이 거의 없어서 어르신들이 일하기 딱 적합한 수준입니다.

두레농장은 단순히 팔아서 수익금을 내는 것이 뿐만 아니라 체험학습을 원하는 사람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학습을 오시는 분들이 왔을 때 버섯을 팔 수 있어야 하니까 늘 버섯은

다 따지 않고 어느 정도 남겨두어야 되요. 상품가치가 훼손되지 않으려면 버섯이 자랐을 때 따 줘야 하지만, 막상 체험학습 날에 버섯들이 너무 덜 자란 상태여도 안 되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래도 버섯 같은 경우는 다른 두레농장에서 키우는 농산품보다 상품가치가 높은 편이라 팔았을 때 수익이 잘 남아요. 그래서 (급여로 드리는 부분 말고도) 수익금을 서로 나눠요. 여름에는 버섯이 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없고, 가을에서 봄까지 버섯이 나오. 농사는 역으로 여름에는 다들 자기 농사를 지어야 하고 가을에서 봄까지는 쉬는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용돈 벌이도 하고, 버섯도 따서 먹고, 밥도 같이 해 먹고 합니다. 명절에는 돼지 한 마리씩 사서 집집마다 나눠드리기도 하고요. 또 바다나 들로 가서 회식도 하고, 놀러 갑니다. 그런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 수입, 지출을 결산보고하고 통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니깐 어르신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협조를 잘 해 주세요. 손님들이 있어서 일해야 한다고 말하면 어르신들이 깨를 털다가도 재껴두고 일을 도와주러 오시거든요. 좀 오래 일한다고 하더라도 내 일처럼 열심히 해 주시고 불평 한 마디 안 하세요.

▶ 농장에서 따로 참여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는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은 두레농장을 운영하는 것 외에, 두레농장 안에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힘든 것 같습니다. 장소가 없는 건 아닌데 프로그램들 자체가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를테면 교육 같은 것도 다른 읍·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여기서는 식사만 하시고 다른 읍·면으로 가서 교육을 받으시거든요.

그림 4-2. 두레농장 버섯 재배 시설 및 활동 공간



3.1.3. 시사점

- 두레농장은 소득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다.
 - 평생 농사일을 해 온 농촌노인들은 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 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면 상실감이 더욱 커진다.
 - 여기에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것 이외에 별 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하고 많지는 않지만 그에 상응하는 현금소득을 주는 소일거리가 제공된다면, 이는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소일거리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가계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대상 노인은 손자녀들에게 용돈도 주면서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농촌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사업으로 보고, 투입 비용 대비 실적을 산출해 평가하게 되면, 채산성이 없는 사업으로 비춰져 수행이 어려울 것이다.
 - 노인복지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효과가 주요 성과로 평가되어야 한다.
 -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의 평생학습이나 여가문화 서비스는 투입(input)에 사업비용과 인력이 포함되고, 산출(output)은 서비스 참여 인원 등의 실적, 참여자 만족도 등으로 평가한다. 성과(outcome)에 해당하는 지표가 프로그램 참여자의 변화 및 개선 등이다.
 - 두레농장사업 또한 산출에 창출된 소득 이외에도 노인복지프로그램들의 성과로 측정되는 실적이나 만족도, 그리고 참여자의 변화 등을 포함하여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 두레농장은 농촌지역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마을에서 수행 가능한 노인복지

사업 모델의 하나가 될 수 있다.

3.2.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텃밭체험 강사 프로그램

3.2.1. 프로그램 개요

-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텃밭체험 강사 프로그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농어촌희망재단의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의 목적은 농촌지역 내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농촌마을체험강사 전문교육을 진행하여 체험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기대효과로는 사회활동을 통한 노인문제 완화, 마을사업 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성 강화, 어르신 자질 향상을 통한 일자리 지원 등이다.
 - 공모사업 신청 시 예산은 4,100만 원(프로그램비 80%, 인건비 19%, 운영비 1%)이다.
 - 사업 대상은 3개 마을이며, 참여노인과 아동이 1:1 혹은 노인의 숫자가 아동에 비해 적은 마을은 1:2로 짝꿍을 이뤄서 진행한다. 마을별로 노인 10~20명과 아동 20~40명이 참여한다.
 - 프로그램 내용은 텃밭에서 농작물을 키우는 활동에서부터 요리나 염색, 문화활동 등 관련 활동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프로그램이고,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지역 아이들과 교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원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자리 사업의 개념이라면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많이 부여했었죠. 그래서 우리도 일자리사업의 개념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습시다. 물론 만약 가능하다면 일자리처럼 어르신들이 더 수익을 받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 도산마을 개요

- 도산마을은 현재 총 104명이 살고 있으며, 대부분 1-2인 가구이다.
- 마을입구에 연꽃밭이 있는 등 마을 경관이 잘 조성된 편이고, 마을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 텃밭체험 강사 프로그램의 특징

- 마을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마을에서 텃밭을 할 땅을 내놓아야 한다. 도산마을에서도 이장이 본인의 땅을 내놓아 텃밭을 조성하였다.
- 참여자는 읍에 있는 어린이집 아동 32명(6-7세반²⁵) 2개)과 마을 노인 16~20명이다. 이들이 노인 1명 당 아동 2명으로 조를 이룬다.
- 조별로 땅을 배정하고 참여노인과 아동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세워 조별 구획을 지정한다. 노인들은 아이들과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는 등 방문할 때 수행하는 체험 강사활동 이외에도 수시로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텃밭을 돌보고 있다.
- 아이들이 월 2회씩 방문하여 작물 심는 것로부터 자라는 과정을 관찰하고, 수확하여 먹기도 하며, 가족이 방문하여 자녀가 키우고 있는 상추 등은 뜯어가기도 한다.
- 연구자가 방문한 당일 프로그램은 조별로 텃밭을 둘러보고, 고구마 캐는 체험을 하고, 이후에 고구마 경단을 직접 만들어서 미리 준비해 온 도시락에 담아서 돌아가는 것이었다. 전반적인 프로그램 진행은 전문강사가 하고, 어르신들은 짝꿍 아이와 체험을 같이 하면서 보조강사 역할을 한다. 전체 프로그램 준비에서 마무리까지 총괄책임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25) 어린이집원장은 5세 아동까지 가능한 활동이라고 확대하고 싶어 하였다.



이 사업은 어르신 한 명에 6~7세 아동이 1~2명까지 짝꿍을 이뤄 진행됩니다. 면 지역의 아이들의 경우 숫자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 1대 1 관계지만, 읍내에서 오는 아이들은 많아서 1대 2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 올 때 어린이집에서 2개 반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의 아이들이 와요.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1번은 좀 버겁고, 한 달에 1번은 좀 멀다고 느껴져서 한 달에 2번 정도로 합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는 곳은 3곳이기 때문에 한 달에 6번 정도 아이들이 방문하는 셈이죠.

프로그램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한 번 정해진 짝꿍은 프로그램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같이 작물을 심고, 크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하거든요. 또 농촌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요리, 염색, 그림 그리기 등)들도 함께 하고, 마을을 둘러보면서 마을에 얽힌 전설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아이들이 마을에 대해서 배우게 하는 활동들을 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통하여 자신감을 심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교육만 하고 바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실전에서 배운 게 바로 써지지 않기 때문에 행동가이드도 챙겨 드리고, 중간 중간 사회복지사가 도움을 주면서 사전 교육 때 배웠던 내용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어르신은 대부분 어머님들로 8:2정도의 비율입니다.

그림 4-3. 도산마을 체험강사프로그램 활동 현장



3.2.2. 프로그램의 특징 및 효과

○ 다른 텃밭 체험프로그램과의 차이점

- 첫째, 일회성 체험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마을이, 짝꿍 어르신과 체험아동이 맺은 관계가 프로그램 기간 동안 지속된다. 아이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히 텃밭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방문하고, 그곳의 어르신과 관계를 맺으며 마을을 경험하게 된다.

애들이 마을에 오면, 어린이집 안에서도 작은 텃밭을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여기로 오면, 벼 자라는 것도 보고요, 고구마도 보고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으니깐 마을로 초대하는 게 농촌의 마을을 보여주는 거니깐 의미도 좋고. 처음에 진행할 때는 마을을 돌아보는 걸 했어요. 텃밭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을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하기에 이 마을을 돌아보는 걸 했고요, 저기 사당이나 이런데 가서 도깨비 이야기하면 애들이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이 마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 마을 주민들도 지역 아이들이니깐 더 애착이 생기는 거고. 이런 관계가 생기면서 더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 둘째, 어르신들이 단순히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을 넘어 보조강사 역할을 수행한다. 아이들이 방문하기 전 사회복지사와 강사는 어르신들을 미리 교육시키고,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즉 텃밭 체험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능도 함께 하고 있다.

서투신 부분들 있지만 사전교육을 하고, 그래도 안 되지만 행동 가이드 같은 거 드리면서 되새겨드려요.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근데 잘 하세요. 어머님들 엄청 자상하시고. 아버님들도 무서우실 줄 알았는데. 무뚝뚝하셔도 엄청 잘 챙겨주세요.

○ 사업의 효과성 및 만족도

-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아이들이 방문하는 날을 기다리고, 경로당에서 나누는 대화에 짝꿍이 소재로 등장하면서 표정이 밝아졌다. 사전교육에서 짝꿍을 대하는 방법으로 배운 것은 손자녀와 노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 아이들이 방문하는 날은 조용한 마을이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로 잔치 분위기가 된다.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어르신들도 반응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낮가릴 만도 한데 어르신들하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하면 어르신들이 그런 걸 아주 좋아하세요. 예전에는 누구네 집 자식이 뭐 사왔더라, 누구 집 자식은 어디 출근 한다더라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조금 달라졌죠. 내 짝꿍 누구는 이런 노래를 알려줬다고 자랑하시는 등 대화의 주제도 달라지고 표정도 밝아지셨어요.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찾아왔을 때 밭에 심은 작물이 상태가 안 좋으면 실망할까봐 몰래 혼자 밭에 나가서 가꿔놓으시기도 합니다.

- 참여 아동의 만족도는 어린이집이나 부모의 만족도로 이어져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일례로 텃밭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집은 도산마을 어르신들을 연말 재롱잔치 때 마을 어르신을 초대하기로 하였다.

아이들은 자신이 심은 농작물이 자라는 모습 등을 직접 볼 수 있어서 그런지 참 좋아합니다. 아마 도시에 이런 사업이 있었다면 더 인기였을 것 같아요. 특히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자기가 작물을 심어놓은 텃밭을 보러오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더 애착도 가고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반응이 좋으니 부모님들도 궁금해 하시고, 그래서 같이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기 밭에 심은 자기 수확물은 수확해도 되기 때문에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와서 고기에 싸먹기도 하고요. 마을은 언제나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야채를 싫어하던 아이들도 자신이 키운 농작물에는 애착이 있기 때문에 가지도 먹고 상추도 잘 싸먹거든요.

어린이집 원장님도 반응이 좋아요. 서울·경기 쪽에서 하는 주말농장처럼 1년에 1~2번 잠깐 가서 하는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하는 사업이 차별화가 되어있다고 좋아하십니다. 아이들이 잠깐 가서 몇 번 보고 오는 곳은 많지만,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작물을 심고, 키우고, 다 자라면 뽑아서 바로 음식으로 해 먹을 수 있는 곳은 드물거든요.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아서 사업을 더 확장시켜주기를 바라신다고 합니다.

- 마을 자체적으로 체험사업을 진행하던 때와 비교해서 복지관이 중간지원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었다.
 - 전문적인 기관에서 사업을 주도하다보니, 인력 배치 등의 절차가 객관성을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주민간 불화가 야기되지 않는다.

어르신들만으로는 힘들어요. 그 중심에 강사든 젊은 사람이든 지지대가 있어야 가능해요. 이게 만약 몇 년 반복되면 어르신들끼리 가능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3-4년까지는 능력 크실 수 있도록 지지대가 필요해요.

이전에 하던 방식으로 체험사업 수익을 내면 아무래도 돈이 관련된 문제다보니 사람들 간에 불화가 생기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기관이 중점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불화가 생길 이유가 없어져서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을 안에는 친척이 있을 수도 있고 가까운 사이라면 함부로 할 수도 있는데, 기관이라는 명목 하에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진행하게 되고,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참여율도 높아졌습니다.

또 사업을 하는 건 어르신들만으로는 힘들어요. 그 중심에 강사든 젊은 사람이든 누군가 있어서 3~4년 정도는 어르신들의 능력이 클 수 있도록 지지해주어야 나중에 자립을 하더라도 합니다. 복지관이 중심에 있으면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곳이 많더라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텃밭체험 강사 프로그램은 공모사업으로 현재 연중 운영하지 못하고, 4월에서 12월까지 실시하고 있다. 향후 마을회관에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을 추가하고, 마을의 중장년층도 참여하여 마을 연중 사업의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을 사정이 열악한 지역은 대부분의 지원 사업 선정에서도 소외된다. 정부 지원 사업이 없는 저소득 마을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처음에 6월에 시작을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시작이 1개월 늦어졌어요. 그래서 촉박하게 6개월 동안 진행한 사업인데 연초부터 진행된 게 아니라 작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올해는 (사업 준비 기간이 짧아서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중심의 민·관 협력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각 마을별 이장님들이 중심이 되어 그 마을의 어려운 분들을 추천을 받으면 그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텃밭을 하고, 경제적 지원을 받게 하면서 아이들과 정서적으로도 우울증을 해소, 또는 감소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3.2.3. 시사점

- 텃밭체험 강사프로그램은 노인복지사업을 통해 마을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지역사회복지관이 중간지원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시 복지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마을 안에서 복지·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 지역사회 복지관은 사업 기획에서부터 진행, 사업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개입하면서 지역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 이러한 방식의 복지사업은 한 마을의 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의 협력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하여 어린이집과 마을의 관계 형성, 아동의 가족의 마을 방문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3.3. 상호마을 문화공동체사업 사례

3.3.1. 상호마을 개요

- 상호마을에는 30여 가구, 60~6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노인이 대부분이다.
 - 주소득원은 벼농사나 콩 재배이며, 대부분 일당 농사일(딸기, 양파)을 통해 소득을 확보하고 있다.
 - 완주읍에서 떨어진 지역이라 생활권이 논산에 가깝다. 논산까지 나가는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 2011년 전라북도 향토마을사업(2회)을 시작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 공동문화조성사업까지 공동체사업을 꾸준히 수행해 오고 있다.

저희 마을에는 현재 30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주민 수는 60~65명 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농촌 마을이 20가구 정도 되는 걸로 봐서는 아주 크지도 작지도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주민들의 대부분은 70세 이상 노인이고요, 어린 애들은 올해 중학교 1학년 들어간 애가 있긴 한데 주소는 여기 두고 다른 데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 인구는 자식들이 밖에서 살다가 나이 들어서 돌아오는 일도 있고, 대체적으로 나가는 사람보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 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마을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하지 않고 다 고만고만하게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재배하는 작물이 다 똑같아요. 벼농사하고 콩 키우시고, 양파나 마늘도 많이 키우십니다. 소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논산에 딸기 유명해서 거기로 일하러 다니시고 일당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죠. 어르신들이 연세가 80이 되어서도 겨울에는 좀 쉬다가 움직일

만하면 또 돈 벌러 다니시는 게 일상이에요.

요즘 시대에 참 개인주의도 그렇고 사람들이 따로 따로 떨어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마을은 공동체의식이 강해서 그 점이 참 장점이죠. 또 우리 마을에서는 소득 사업 뿐 아니라, 2011년부터 공동체 사업을 꾸준히 해 오고 있는데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 전라북도향토산업마을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전라북도향토산업마을사업을 받았을 때 2억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가공이나 체험활동을 하려는 목적으로 다목적체험관을 지었거든요. 그 시기에는 시설보다 주민 건강중심으로 사업을 했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운동기구 짓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을사람들이 서로 같이 쓰는 공공재 등을 편하게 만드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미꾸라지 체험양식장도 그 때 만들었고요.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동체 사업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마을 발전에도 좋고 주민 복지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 마을의 공동체의식이 강해서 함께 잘 지내는 편이다. 전통적으로 주민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어서인지 마을사업도 큰 갈등없이 잘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마을이 잘한다고 소문이 나면 마을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도 있다.

이 마을은 참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데도 전통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결정을 하는 습관이 들어있어요. 이게 상당한 뿌리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농촌의 전통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라는 느낌이 강해요. 마을의 어른(주노인회장님, 이장님, 부녀회장님 등)이 결정하면 따라주려고 하고, 물론 자잘한 갈등이 있겠지만, 큰 줄기에서 결정되면 그걸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마을에 대한 체면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우리마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작용을 해요. 우리가 이 화산면에서는 알아주는 마을인데~ 그런 것 정도는 해내야 하지 않냐, 이런 것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농촌의 공통적인 의사결정 방식인데, 뭐랄까, 안쓰러움? ‘그래 일 년간 고생했는데 흠이 없겠어? 잘했어, (못했어도) 얼마나 고생했어, 애썼어,’ 그거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연말 되어서 결산 할 때도 무슨 돈을 많이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이 마을은 잘 지탱해 가는 요소들이 아닌가.

이 마을이 과거에 오지였는데 그 때문에 혼인 관계가 마을 내에서 많이 이루어져서 서로 함부로 못하거든요. 혹시 마을 내의 사람들 중 누군가가 먼 혈연관계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아무

래도 그런 부분에서 유대관계 같은 게 더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눈 뜨면 모여서 사신다고 보면 됩니다.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저녁에 텔레비전도 같이 보시고, 청국장도 같이 만드시고 노래도 부르고 하십니다. 사교성도 좋으셔서 처음에는 새 사람 오면 경계심을 가지시다가도 말문이 트이면 본인 이야기를 곧 잘 하세요.

3.3.2. 공동문화조성 사업 내용

- 공동문화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에 걸쳐 연간 1억 원(국비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씩 총 2억 원이 투입되었다.

표 4-6. 상호마을 공동문화조성사업 내용

		사업내용
시설 및 장비 (H/W)	복합문화공간 조성	주민 휴식 및 배움의 공간, 전시공간 등 가변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증축
	마을경관 조성	주민과 전문 미술가가 함께 미술관 거리(우리집 문패만들기·이야기가 있는 담장벽화·마을꽃밭·포토존 등)를 조성
	마을시설리모델링	미꾸라지 체험장 개선
	마을옹달샘 복원	예전부터 마을의 소통공간이었던 옹달샘을 복원하여 마을을 찾거나 지나는 손님들에게 전통과 정취 제공
프로 그램 (S/W)	주민생애사/마을사 편찬	주민 개개인 삶의 내용과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뷰하여 책으로 편집 발간
	다큐 '영상영정' 제작	'세상과 가족에게 남기는 한마디'와 '마을주민의 일상생활'등을 주제로 마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마을의 기록문화자원으로 활용
	학당운영	· 사진, 컴퓨터, 농악 등 평생배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진작하고 개인의 역량 강화 · 마을 체험객들에게 상호마을의 맛을 오래도록 기억하도록 마을 식단 개발을 위한 교육실시
	소식지 제작	마을주민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은 '버머리사람들' 제작

○ 주민생애사와 주민다큐 영상 작업 진행

- 영상 및 구술 취재진이 일주일에 2-3회 방문하여 상호마을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영상을 촬영해 평범한 주민들의 삶을 오롯이 담아내 주민생애사를 출간하고 주민들의 삶이 담긴 영상물을 2015년 말에 내놓을 예정이다. 20~30여명 노인이 참여하였으며, 처음에는 다소 어색해하고 싫어하는 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즐거워한다고 한다.

할머니들이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은 한마디,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해서 CD로 한번 남겨보자 해서 시작해서 사업을 신청한 거죠.

작년부터 계속 틈틈이 완두콩 조합원인 ○○가 마을에 와서 할머니 개개인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니면서 할머니들이 뭐하는 거 기록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담고 있어요. 이게 특별할 것은 없어요. 요리연습하거나 풍물할 때 찍어둔 것도 있고, 잔치할 때 찍어둔 것도 있고..

그림 4-4. 화산면 상호마을공동체가 만든 마을신문



- 마을에서 체험객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음식에 대한 고민으로 농가밥상교육에서 돼지감자 효소만들기 등을 실시하였으나, 성과는 없었다.

원래 처음에는 체험객들이 왔을 때 해줄 수 있는 음식이 뭘까, 이런 차원에서 효소 같은 것도 하고, 미꾸라지 가공, 이런 것들을 아이템으로 잡고 여러 가지 시도해보려고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평생을 해 온 일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해도 잘 흡수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분들이 이걸 도저히 못한다 싶으니까 우리가 잘 하는 걸 하자고 방향을 틀어서 장류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만약 사업을 위한 사업을 했다면 1년 하고 더 못 했을 겁니다.

- 상호마을 장류사업에는 마을 주민 15~20명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겨울에는 월 200~250만 원, 여름에는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려서 배분하지 않고 모아둔 적립금이 현재 천만 원을 넘었다.
 - 새롭게 시작했던 미꾸라지 가공은 1년 만에 그만두었지만, 평생 익숙하게 해 온 일인 장류사업은 지속되고 있다.
 - 매일 당번(2인 1조)을 정해서 콩을 삶는 등의 재료 준비를 하고, 일주일에 1~2회 저녁 9시부터 12명이 경로당에 모여서 청국장 만드는 작업은 같이 한다.
 - 마을에서 생산되는 콩을 사서 장류를 만들고 있으며, 재료비를 지불하고 남는 돈은 저축하고 있다.
- 마을경관사업으로 미술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만든 작품들을 활용하여 벽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사업 예산의 규모가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입찰 과정을 거쳐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 주요 의사결정자인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이 추진단에 포함되어 있고, 사업 수행 이전부터 마을의 의사결정에 주민들이 협조하는 편이다. 마을일을 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서로 인정하고, 마을의 지리적 특성상 주민들 간에 친인척 관계가 형성된 것이 협조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5. 상호마을 모습



상단 <화산면 상호마을 지도>

하단 <경로당에 붙어 있는 안내문>

<화산면 상호마을 복합공간>

3.3.3. 시사점

- 고령화된 소규모 농촌마을에서 소득창출에 집중한 공동체사업의 한계를 확인하였다. 마을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식이 있다는 점과, 소득창출보다는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을 상기해야 한다.²⁶⁾
- 농촌노인이 본인의 삶을 돌아보고, 의미를 찾는 작업으로서 주민 다큐영상이나 주민생애사 작업은 노인들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노년기

26) 돈만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냐, 중요한건 주민들이 편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지.(인터뷰 중에서)

에 접어들면 서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는 것에 우울해하는 것을 막고 지난 삶을 성찰하는 시간으로 프로그램들이 기획되고 있다.

- 또한 상호마을의 장류사업을 보면, 새롭게 학습을 통해 익혀야 하는 일이 아니라 평생 익숙하게 해 온 일을 건강상태에 맞춰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 상호마을의 경우, 정부지원 사업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한번 두 번의 사업을 통해 공동체사업의 경험이 축적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업선정 경험이 있는 마을에 계속 지원이 되는 경향이 있다. 공동문화조성사업이 2015년 종료되면, 2016년에는 체험휴양마을을 준비하고 있다.
 - 사업을 지원할 때, 마을의 역량에 따른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마을과 여러 번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마을을 동등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새로운 마을에 불리하고, 이는 농촌지역개발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우리는 사실 행정이 개입된 일에는 성공확률이 높지가 못합니다. 행정 쪽에서는 성과를 내어야 하니까 어떤 틀을 만들어놓고 참여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농촌 같은 곳에서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고령자도 많고 그 분들이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잘 안 맞게 됩니다. 일단은 뭘 하든 간에 주민들의 실정에 맞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대한 일이나 너무 새로운 일 보다는 우선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진행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돈만 버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주민들이 편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니까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 5 장

농촌고령자 대상 정책개선방안

1. 기본방향

- 농촌고령자를 위한 정책은 연령과 건강상태, 그리고 경제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집단을 보다 세분화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 본 연구에서는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노인은 정책 대상에서 제외한다.
 -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허약한 재가노인부터 일자리가 필요한 건강한 노인을 정책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아직도 농사를 짓고 있는 노인의 건강이나 경제적 상태는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농촌고령자 중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찾기는 어려웠다. 최소한 본인 소유 농지를 가지고 있는 노인은 일단 나이가 들어서 소득이 감소하였지만, 대부분 이전에는 안정적인 생활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본인 소유 농지가 없는 사람은 노인

이 되어 건강까지 허약해지면 살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 허약한 재가노인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농촌노인에게는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노인을 위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집단 구분은 세분화하지 않고자 한다. 농촌노인의 욕구에 따른 집단을 구분해 보면, 다음의 <표 5-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1. 노인 욕구별 정책 대상 집단 및 필요한 지원

	현 상황		욕구		필요한 지원	비고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복지 서비스	일자리		
1	-	하	◎	-	공동그룹홈, 공동급식, 돌봄 등	허약한 노인
2	-	상/중	○	○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 (예: 완주군 두레농장, 상호마을 장류사업, 텃밭체험강사프로그램 등)	빈곤한 노인/ 무료한 노인
3	저	상	-	◎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지원 (재취업, 직업 알선 등)	건강한 저소득 노인 가구주 (70세 미만)
4	-	-	◎	○	가족 내 돌봄 제공자 지원	배우자 간병/ 손자녀 양육 노인

- 농촌노인의 실태 분석 및 인터뷰 조사 결과, 노인 집단을 연령에 따라 세분할 필요가 있다.

- 노인실태조사(2014)에 의하면, 농촌노인들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이 평균 72.03세이며, 심지어 응답자의 14.5%는 80세 이상부터라고 답하였다.

- 농가경제조사(2014) 자료 분석결과 70세 미만 경영주와 70세 이상 경영

주의 소득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노인들이 생각하기에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월수입은, 75세 이상은 40~50만 원 정도이고, 70세 미만 노인은 70~80만 원 정도이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일단, 소득인정액 93만 원 미만 노인은 20만 원 이하의 기초연금을 수령한다. 거기에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 노인은 연간 9개월 동안 월 2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여 월 40만 원의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 자가주택에 거주하면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없는 노인은 텃밭에서 자급자족 할 농작물을 키우고, 명절이나 생일에 자녀들로부터 용돈을 받으면,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소득이 확보된다. 의료비나 경조사비 등의 큰 금액의 지출이 없는 75세 이상 노인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
 - 고령자의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노인들이 종사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숙제가 생긴다. 이는 농촌에서 연금이나 재산소득 등 기초연금 이외의 현금소득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로 연중 월 20만 원 이상 확보되는 일자리여야 한다.
 - 둘째,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의 허약한 노인들은 기초연금 이외의 추가로 20만 원 이상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문제이다. 이들은 일자리를 통한 소득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출이 발생하는 부분을 지원해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집단1).
- 다음으로, 월 70~80만 원의 수입이 필요한 70세 미만 노인들에게는 근로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일자리가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노인들에게 이 정도 수입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노인일자리사업 확보와 같은 방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집단3).
-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지만, 지역사회 안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서 무료한 노인들이다(집단2).

- 또한, 노인부부 가구 중에서 배우자를 간병하고 있는 노인, 손자녀나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돌보는 노인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 이외에도 가족을 남에게 맡길 수 없다는 책임감으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부담 등을 안고 있다(집단4).

2. 정책 개선 방안

2.1. 농촌노인 욕구별 정책 제언

- 앞의 <표 5-1>에 제시한 농촌노인 집단별로 필요한 정책을 제언한다.

2.1.1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 첫 번째 집단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허약한 노인이다. 이들은 기초연금 이외에 현금 수입이 없지만,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하지 못한다(인터뷰 조사 네 번째 사례).
 - 보통 80세 이상이 되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하기가 어렵다. 즉, 농촌지역에서 연금 등의 노후보장소득이 없는 노인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이 집단은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려 농정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사업의 대상이다.
- 이 집단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그밖에 현금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복지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이 때, 개개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을 단위에서 공동으로 식생활이나 주거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비, 교통비 등이 함께 지원되어야 한다.
- 현재 공동생활홈이나 공동급식 등은 대부분 경로당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서비스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이외에는 접근이 쉽지 않다.
-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은 80세 이상 여성이 많으며, 집 밖으로 외출이 가능한 노인이다. 마을에서 배제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 이 밖에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여성노인, 남성노인, 75세 미만의 노인 등은 경로당 이용 노인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여성노인이 대부분 경로당에 가기 어색해서, 아직 경로당을 출입한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등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에서 소외된다.
 -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로당은 이용 인원이 많고,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결국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소개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건강, 소득, 주거, 사회서비스 등 서비스의 종류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운영되는 서비스에서 농촌노인들이 배제되는 지점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재가노인을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사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소득기준 등의 서비스 자격요건 상의 사각지대는 보건복지부가 정책개선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하고,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서비스 접근성의 제약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2.1.2. 할 일이 필요한 노인

- 농촌지역 노인 중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일이 필요한 노인도 있지만, 무료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할 일이 필요한 노인(인터뷰 조사 첫 번째 사례)도 있다. 이들이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 현금소득을 충당하기 위해 하루 몇 천 원밖에 벌지 못하는 부업 일을 하면서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노인들이 있다. 이들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일당을 받는 농사일 등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에 턱없이 적은 임금에도 일을 하여 생활을 꾸린다.
 - 복지관 급식이나 밀반찬배달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공과금이나 난방비, 의료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
 - 재산도 없고, 공적 연금도 없고, 자녀들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이 불충분한 노인들이다. 폐지를 주워서 하루하루를 근근이 연명해 가는 노인 중 다수가 이런 상황일 것으로 추정된다²⁷⁾.
 - 이런 노인들은 주눅이 들어 경로당에 나오지 않으며, 마을 안에서 주민들과 어울리기도 쉽지 않다.
- 경제적 문제는 없지만, 더 이상 농사를 짓지도 않고 농촌 마을에서 시간을 보낼 일거리를 찾지 못한 노인들이 있다.
 - 문화여가, 평생학습 등의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무료함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평생 해 온 일이나 경험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면 느끼는 보람이 클 것이다.

27) <표 2-3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폐휴지수거에 종사하는 노인은 가구 연수입이 10,669천원에 불과해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직종이지만 가구소득의 71.5%가 본인의 사업소득으로 구성되어있다.

- 돈벌이가 목적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익숙한 활동을 해서 즐겁고 거기에 손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즐거움까지 보태지는 것이다.
 - 텃밭체험강사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인터뷰 조사 첫 번째 사례)을 보면, 복지관에서 나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마을 안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
- 농촌노인에게는 마을 안에서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함께 일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 이는 소득 창출을 위한 일자리로서의 일이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일인 것이다.
- 두레농장, 상호마을의 장류사업 등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마을 단위에서 사업 진행

- 사례 조사에 의하면, 마을 단위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운영방식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 장보기 등을 위해서는 셔틀버스 운행 등을 통해 중심지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필요하지만, 고령 노인일수록 살고 있는 곳에서 걸어서 이동 가능한 거리를 벗어나는 것이 부담스럽다.
- 마을 단위에서 이뤄지는 복지사업의 경우, 지역사회 복지관에 중간지원 역할을 부여하여 농촌지역에서 진행되는 지역개발사업들과 연계할 수도 있다.
 - 사회복지기관에서 원거리 마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함께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 보는 경험이 필요할 것이다.
- 마을 단위에서 이뤄지는 사업은 건수나 인원 등의 실적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의 변화를 성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 ‘텃밭체험 강사 프로그램’처럼 일회성 행사로 운영하지 않고, 마을 노인과 어린이집 아동간의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두게 되면, 관계가 형성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관계가 형성되면 그것을 토대로 무궁무진한 일들을 얻을 수 있다.
 - 이것이 주민의 역량 강화이고, 지역사회조직인 것이다.

2.1.3. 70세 미만 건강한 저소득 노인

-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가구주로서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건강한 남성노인이다. 이들은 대체로 스스로 노인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70세 미만의 노인이다(인터뷰 조사 다섯 번째 사례).
 - 이들은 노인이 아닌 중장년층의 연장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 65세라는 나이 기준이 건강하지 못한 노인과 달리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는 오히려 낙인감과 제약을 주고 있다.
- 대부분 젊은 시절에도 농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거나, 일용직 등의 일자리를 통해 근로소득에 의존해서 근근이 살아온 이들이다.
 - 돈벌이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 생활이 무료해져 술과 가까워지게 되면서 알코올 문제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 일자리가 부족한 농촌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가 쉽지 않다.
 - 농촌지역에는 경비나 청소 등의 일자리가 도시에 비해 적고, 일당 농사일도 연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자리 창출의 숙제가 있다.
- 이들의 규모 파악에서부터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 개입이 요구된다.
 - 우선,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서 55세 이상인 중고령자와 자활사업 참여가 종료된 자들 중에서 7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필요하다.
 - 농촌지역 빈곤계층의 삶의 궤적을 쫓아 조사하면 적은 돈으로도 효과적으로 빈곤층의 노년을 돕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여기에 실업률이 증가하고 은퇴 연령이 앞당겨지면서 대두되는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농촌지역의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 그동안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은 75세 이상 고령노인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늘어나는 초고령노인에 대한 대응이었다.
- 농촌지역의 중장년층은 월 70~8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경비, 청소 등의 일자리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농업부문에서 부족한 일손을 채울 수 있는 인력으로 투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이다.²⁸⁾

2.1.4. 가족을 돌보고 있는 노인

- 경제적 지원을 필요하지 않지만, 의료비 지원이나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노인으로, 배우자를 돌보고 있는 노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인터뷰 조사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례).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일부 도서·벽지 지역을 제외하면, 가족이 등급자 노인을 돌보더라도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어야만 가족요양비가 지원된다. 농촌노인의 정서상 돌봄 당사자도 타인의 손에 돌봄을 받는 것을 불편해 하고, 배우자를 남에게 맡기고 싶어 하지 않고 있다.
-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인해 돌봄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심리적·정서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배우자 간병에서 오는 심리적·신체적 부담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인터뷰 조사에서는 만나지 못했지만,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조손가정 노인은 경제적 문제에서부터 손자녀 양육 지원까지 보다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 노인실태조사(2014) 결과에 따르면, 읍·면지역 노인 중 2.1%가 조손가정

28) 현재 행복생활권 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지역에서 추진되는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사업의 경우 일용 노동자를 농가에 알선·소개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한다.

에 해당된다. 이 중 80세 이상 노인이 14.1%에 이르렀다. 조손가정 노인 중 연간 소득 1,208만 원 이하(소득수준 1분위와 2분위)인 노인이 48.4%이며, 32.2%는 현재 일을 하고 있다. 47.3%는 무학이며, 글자를 모르는 노인이 17.7%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적인 어려움 이상으로 손자녀를 돌보면서 느끼는 심리적 스트레스 또한 크다.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가정에서 챙겨줘야 할 부모의 역할, 손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세대차이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

2.2. 기타 농촌노인 대상 정책 과제

- 글자를 모르는 농촌 여성노인 중에는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한글 문해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 한글을 깨치는 것은 평생 농사일하면서 자식 뒷바라지해 온 노인들에게 뒤늦게 삶의 행복을 줄 수 있다.
 - 노인실태조사(2014)에 따르면 읍·면지역의 여성노인 중 글자를 모르는 노인이 23.2%이고, 무학이지만 글자 해독은 가능한 노인은 35.7%이다.
 - 봉화군노인복지관 ‘찾아가는 이동한글학교’ 수료소감을 통해 문해교육이 참여한 노인들에게 주는 의미를 엿볼 수 있다.

“칠십 오세에 나는 공부를 했다!”

아침에 일어나니 해가 떴다. 해는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있다. 저녁이 되면 파란 하늘 안에 별이 셀 수 없이 반짝이고 있다. 달은 우리의 발길을 지켜주고 해와 달은 모든 만물을 소생케 하고 있다. 참 감사하다. 나는 공부를 했다. 칠십 오세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 나는 공부를 했다.

호미질, 꿩이질로 구불구불 틀어져 버린 고왔던 손! 호미 대신 연필을 잡아보아 여한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제 손주에게 편지도 쓸 수 있고 버스 시간표도 볼 수 있어 ‘행복하다’, ‘고맙다’고 하시는 어르신! 배움에 대한 열정이 우리 봉화지역을 감동시켰습니다.

<봉화군노인복지관 소식지(2015.12.31.) 중에서>

-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의 빈곤문제가 심각하며, 건강수준도 여성노인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령일수록 여성노인의 비율이 현격하게 높다 보니, 이들의 대부분은 혼자 지내게 된다. 고령 여성 독거노인 중 유족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나이가 들수록 건강수준은 나빠질 수밖에 없으므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최소한의 생계유지비용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 거주형태에서 독거노인이 자녀동거노인보다 불행하다는 시선에 변화가 필요하다. 독거노인은 경제적 문제나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가 문제되는 반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독거노인과는 다른 정서적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 아니었다. 자살 시도율은 오히려 더 높았다. 대체로 경제적인 이유로 동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인터뷰 조사 첫 번째 사례 남성노인의 경우에도 기혼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노인부부가구로 지낼 때보다 불편하다고 고충을 토로하였다.
 - 스트레스 관리나 가족 간의 갈등 해소 등을 위한 강좌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노화 현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본인의 연령에 따른 건강상태를 인식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하여 건강상태에 대한 불만을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여성노인의 경우 85세 이상 노인의 만족 비율이 75세 이상 84세 미만 노인에 비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복지관에서 죽음에 대한 준비나 노화과정에 대한 이해 등을 주제로 열리는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 체조, 무용, 운동, 노래 등의 역동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노화를 늦추는 노력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정적인 시간들을 노인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농촌노인은 도시노인에 비해 일하는 비율이 높지만, 소득수준은 더 낮다. 농촌지역에서 노인이 하는 일(농사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이 도시지역에 비해 노력만큼 경제적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 농촌노인이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는 비율이 44.9%로 도시 23.4%에 비해 훨씬 높지만, 정부지원일자리 참여비율은 읍·면 지역은 7.6%이고, 동 지역은 20.1%이다.
 - 인터뷰 조사 두 번째 사례 여성노인의 경우, 2,000평정도 규모의 농지에서 연간 2백만 원 이하의 수입이 발생하였다. 벼농사를 하는 노인은 투입되는 노동에 비해 수입이 적다는 점을 토로하였다.
- 농촌노인의 삶을 그들의 언어와 시각으로 이해한 정책이나 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힘에 부친다고 농사일을 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덜 힘들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 농촌노인은 농지에 농작물이 아닌 잡초나 풀이 자라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한다. 힘에 부쳐도 남의 손에 맡기는 것이 미덥지 않아서 직접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어서 작물을 재배한다.
 - 농촌노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다. 수확해서 일부 먹기도 하지만, 자녀들에게 보내주면서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다.
 - 농사를 짓고 생산활동을 하는 것은 농촌노인의 삶에서 자신의 부귀영화보다 자녀와 손자녀들에게 베푸는 의미인 것이다.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 본 연구에서는 농촌고령자 실태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생활을 통계 수치로 살펴보고, 인터뷰 조사를 통해 농촌고령자의 생활에서 어려운 점들을 찾아보 고자 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노인복지정책과 지역의 우수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농촌고령자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 제2장에서는 노인실태조사(2014), 농가경제조사(2014) 등 원자료를 분석하 여 농촌고령자의 생활 및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였다.
 -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총 200만 명 정도로 전체 노인 인구의 30%에 해당한다. 여성노인이 59.5%를 차지하며, 나이가 많아질 수록 성비의 차는 커져서 80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독거가구는 남성노인의 9.0%, 여성노인의 38.9%이며, 여성노인 4명 중 1명은 글자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가구소득 754만 원 이하 노인은 남성의 9.2%, 여성의 13.6%이며, 남성 노인의 56.7%, 여성노인의 36.9%는 현재 일을 하고 있다.
-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거동이 다소 불편해도 혼자 살고 있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읍·면지역 노인 중 조손가정 비율이 2.1%이며, 이들의 17.7%는 글자를 모르고, 연가구소득 1,208만 원 이하인 가구가 48.4%에 이르렀다.
- 배우자와의 갈등은 생활습관에서 기인하며, 나이가 많을수록 가사분담으로 인한 갈등이 증가하였다.
- 자녀와 왕래빈도는 분기 1, 2회 24.5%, 연 1, 2회 9.5% 등으로 3명 중 1명은 월 1회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자녀·배우자·친구 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70% 정도가 만족하는 반면, 경제상태 15.5%, 건강상태 27.5%, 사회여가문화 활동에 대해서는 33.8% 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노인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평균 72.03세로 40.0%는 70세라고 응답하였다.
- 농촌노인 중에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노인이 8.9%이고 시도한 적이 있는 노인도 1.1%인데, 그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33.6%)이나 건강(32.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람과의 갈등(14.2%)이나 외로움(11.3%)이었다.
- 농촌노인의 여가문화활동은 TV시청이 거의 90%를 차지하며, 그밖에는 화투·고스톱, 산책, 텃밭가꾸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대표적인 노인복지이용시설인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은 각각 53.9%, 17.1%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경로당은 친목 도모, 노인복지관은 여가프로그램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데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이 25.2%에 이른다. 금전관리나 전화 걸고 받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등에서 어려워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소득수준 제1분위의 저소득 노인 중 32.5%는 무상으로 살고 있으며, 36.9%는 주택이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 접근성에 있어서는 시장·슈퍼 등 일상용품을 구매하기 곳까지 30분 이상 걸어야 하는 노인이 42.1%에 이르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까지 10분 이상 걷는 노인도 35.2%이다.
- 동지역 노인(23.4%)에 비해 읍·면지역 노인의 취업비율(44.9%)이 2배 정도 높지만, 정부지원일자리 참여비율은 동(20.1%)에 비해 읍·면(7.6%)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읍·면 노인의 79.3%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고, 하는 일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75.1%로 가장 높지만, 다른 일보다 급여에 대한 불만이 높고(청소일 8.4%, 농림어업 34.2%), 건강상태와 맞지 않아서(53.4%) 힘들어 하였다.
 - 평균 근로소득이 10,000천 원 이상인 경비·수위·시설관리, 생산작업, 판매·영업일에 종사하는 노인의 비율은 6.4%에 그친다.
 - 폐휴지를 수거하는 농촌노인 중 7.0%는 수급자이다. 농림어업 종사 노인 중에서 66.2%만이 사업소득(연평균 7,003천 원)이 발생하며, 11.4%는 근로소득이 있으며, 22.4%는 무급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1인 가구가 제외된 농가경제조사(2014)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 경영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41.4%이다.
- 연평균 소득은 22,616천 원이며,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8.6%에 그치며, 농업외 소득이 30.4%, 이전소득이 29.4%, 비경상소득이 11.7%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가처분소득은 연평균 18,980천 원이다. 전업농가는 연평균 소득이 16,517천 원이고, 1종 겸업농가는 21,025천 원, 2종 겸업농가는 31,192천 원으로 차이를 보인다.
 - 전업농가의 경우에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42.5%이고, 2종 겸업농

가는 농업소득은 9.5%이다.

- 노인실태조사(2014)에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농림어업 종사 노인 중 독거가구는 16.0%이다.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70세 이상 독거가구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8,754천 원이고, 70세 미만 독거가구의 평균 12,111천 원으로 연령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제3장에서는 농촌고령자 인터뷰 조사를 통해 이들의 삶과 생활을 살펴본 결과를 여덟 가지 유형의 농촌노인의 생활을 정리하였다. ① 농지 임대 수입과 자녀들이 주는 용돈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없지만, 일상생활이 무료한 80대 남성 노인, ② 벼농사를 짓느라 힘이 들지만, 연간 소득은 얼마 되지 않고, 와상의 배우자를 돌보느라 다른 일을 할 수도 없는 우울한 60대 후반 여성 노인, ③ 자급자족할 정도로 밭농사를 지으면서 아픈 배우자를 돌보고, 마을 경로당 일을 보고 있는 70대 후반 여성 노인, ④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할 수 없고,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도 없는 빈곤한 70대 초반 여성 노인, ⑤ 60세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다가 가족 부양을 위해 현재는 고물수집 일을 하는 60대 중반 남성 노인, ⑥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매일 복지관을 이용하는 70대 초반 여성 노인, ⑦ 벼농사를 지으면서 매일 복지관을 이용하는 80세 여성 노인, ⑧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하면서 생활이 무료하지 않고 이웃들과 함께 지내는 완주군 상호마을 여성 노인 등이다.
 - 농촌지역 복지관 사회복지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직은 경제활동이 필요한 60세 이상(혹은 55세 이상) 70세 미만의 노인들 중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빈곤한 이들의 규모를 파악하고, 어떻게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제4장에서는 지역사회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 노인보건

복지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고령자 대상 사업을 정리하고, 지자체 우수 사업으로 완주군 두레농장,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텃밭체험 강사 프로그램, 완주군 상호마을 문화공동체사업 등을 소개하였다.

- 보건복지부 사업에는 건강보장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노인복지사업, 치매상담센터 운영, 치매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노인 실명예방사업 등이 있고, 소득보장사업에는 노인일자리사업, 기초연금 등이 해당되며,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의 주거보장사업이 있다. 그밖에도 노인돌봄서비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무료급식 지원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기타 경로우대제 등이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는 농지연금,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지원, 농업인행복버스 운영,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 등이 해당된다.
- 지자체 우수 사업들은 농촌노인에게 익숙한 활동을 소득활동과 연계하고, 마을 안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개발한 것이다.
- 텃밭체험 강사 프로그램의 경우, 복지관이 중간지원 역할을 하면서 마을 노인과 인근 지역 아동과 가정, 어린이집 등을 연계하고 있다.
 - 농촌노인의 복지는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들에게 익숙한 활동(예를 들어, 농업활동이나 음식 만들기, 바느질 등)을 소득활동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노인에게는 단기간에 일을 배우고 익숙해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매출이나 참여 인원 등의 실적보다는 지속성이 중요할 것이다.
- 제5장에서는 농촌고령자 대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농촌노인 욕구별로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농촌고령자를 연령과 건강상태, 그리고 경제적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허약한 재가노인이 지역사회 거주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빈곤한 농촌노인은 최소한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이들에게 적

합한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이들을 유형화해 보면, 첫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집단은 현재 운영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재가노인을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사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 자격요건 상의 사각지대 개선 노력이 보건복지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고,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서비스 접근성의 제약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 둘째, ‘할 일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정책은 마을 안에서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함께 일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는 소득 창출을 위한 일자리로서의 일이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서의 일이다. 두레농장이나 상호마을의 장류사업 등이 좋은 사례이다.
 - 셋째, 55세 이상 중고령자부터 ‘70세 미만의 건강한 저소득 노인’은 월 70~8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농촌지역에서는 도시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농업활동의 부족한 일손을 메우면서 동시에 농업노동자의 안정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 넷째, ‘가족을 돌보고 있는 노인’은 가족을 남에게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는 쉽지 않으므로, 심리적·정서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양육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 그밖에 아직도 농촌노인 중에는 문해교육이 필요한 노인이 적지 않으며, 한글을 깨침으로써 얻는 행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화 현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본인의 연령에 따른 건강상태를 인식함으로써 제대로 건강관리를 하고, 건강상태에 대한 불만을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 결론 및 함의

- 노인복지사업은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 소득보장에서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 등의 돌봄지원, 여가문화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노인 빈곤율이나 자살률은 높다고 보도된다. 여전히 노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것이다.
- 공적 연금 없이 농업인으로 평생을 살아 온 농촌노인들은 노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확률이 높다. 농촌노인의 경우, 1인당 최소한 월 40~50만 원의 현금소득이 보장되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마을 안에서 일당 1~2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일거리가 확보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의 보장인 것이다. 현금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지출을 줄이는 방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마을 안에서 함께 지내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고, 식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농촌노인은 농촌에서 하는 일이 힘에 부쳐도 익숙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든 이 안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한다. 좁은 농지라도 있으면 땅을 놀리지 않고 힘닿는 데까지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 돈이 되지 않지만, 농지에 풀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수확한 농작물을 자녀들에게 보내 주고 싶어서 노구(老軀)를 움직여 일을 하는 농촌노인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정책이 출발해야 한다.
- 노인복지사업은 가능한 지역을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노인들은 물리적 이동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배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낯선 환경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스트레스가 클 것이다. 일례로 편리한 낯선 부엌보다는 본인의 손때가 묻은 익숙한 부엌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 더 이상 ‘노인’을 만 65세 이상이라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대다수가 70세가 넘어야 노인이라고 인식하고, 실제 소득수준에 있어서도 70세 미만과 이상의 차이가 큼을 확인하였다. 물론 건강상태에 따라서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노인 범주로 포함되어야 할 사람도 있다. 결국 소득수준, 건강수준, 학력수준, 성별 등에 따라 욕구가 다양할 것이다.
-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 살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순서로 사업이 개발되어야 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건강보장사업에 대한 욕구가 크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가 크고, 여가문화프로그램을 원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역마다 동원가능한 자원이 각양각색일 것이다. 자원이 없는 지역에는 공적 자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 노인복지서비스의 경우, 목소리가 큰 사람, 사람이 많은 장소,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열악하지 않은 지역 등에 서비스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다음과 같은 정책에 대한 가치지향 없이 비용효율성을 우선순위를 둔다면 농촌노인을 배려하기란 쉽지 않다.
 - 경로당에 나오지도 못하는 허약하거나 빈곤한 노인,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일을 하느라 마을 활동에서 배제되는 빈곤한 노인 등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을 돌보는 정책
 - 적은 사람이 이용하여 정부 지원 기준에 못 미치는 경로당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 중심지로부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 지역, 눈이나 비가 오면 차량을 운행하기 힘든 산간이나 도서지역 등을 지원하는 정책
 - 마을 리더가 부재하여 마을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마을의 역량을 키워 나가는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정책

참고 문헌

- 김정호·최경환·이용호. 2007.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 지원제도 도입방안」. C2007-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2015a. “공동시설 지원으로 함께해서 더 행복한 농촌을 만듭니다.” 보도자료. 2015.01.11
- _____. 2015b. “‘제4차(‘16~’20)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추진.” 보도자료. 2015.12.06.
- _____. 2015c. “농촌형 교통모델 ’15년 신규지원 6개 사업 선정.” 보도자료. 2015.3.23.
- _____. 2015d. 「2015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취약농가 인력 지원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 2014. “더 이상 노인 고독사는 안돼! 함께 살고, 친구하자!” 2014.4.4. 보도자료.
- 문진영·김미곤·여유진. 2008. 「농어촌지역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 개선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 박대식. 2004.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태 분석」. R48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조미형·한태녕. 2013. 「농촌노인일자리의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13-31-32.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최용욱. 2014. 「노령 농업인의 기초연금 수급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M1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최경환. 2006. 「농촌노인의 사회안전망 실태와 개선대책」. R5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최경환·윤병석. 2009. 「영세·고령농의 사회안전망 개선방안」. P1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1. “2010년 기초노령연금 373만명 지급.” 보도자료. 2011.5.6.
- _____. 2014.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 _____. 2015a. 「보건복지사업안내(I)」.
- _____. 2015b. 「보건복지사업안내(II)」.
- _____. 2015c. 「2015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사업 종합안내」.
- _____. 2015d. “2014년말 국민연금기금 470조원, 전년 대비 43조원 증가.” 보도자료. 2015.2.26.
- _____. 2015e. “독거노인이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만들기.” 보도자료. 2015.2.16.

- 성주인 외. 2014. 「제3차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2019) 수립방향 연구」.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 정경희 외. 2014.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미형·박대식·최용욱. 2013. 「농촌노인의 건강관리실태와 정책과제」. R69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경환·황의식. 2007. 「농업인의 노후 소득대책에 관한 연구」. R54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경환·박대식·최용욱. 2012. 「농업인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대안」. 연구보고서 2012-47-30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윤지. 2014. “농촌 노인복지의 실태와 개선방안.” 「농정연구」, 50: 181-205.
- 홍봉수. 2010. 농촌노인의 경제활동실태와 소득보장 개선방안. 「노인복지연구」 49: 355-378.
- Bacsu, J. R., Jeffery, B., Johnson, S., Martz, D., Novik, N., & Abonyi, S. 2012. “Healthy aging in place: Supporting rural seniors’ health needs.” *Online Journal of Rural Nursing and Health Care*, 12(2): 77-87.
- Clark, K. J., & Leipert, B. D. 2012. “Strengthening and sustaining social supports for rural elders.” *Online Journal of Rural Nursing and Health Care*. 7(1): 13-26.
- Shen, S., Li, F., & Tanui, J. K. 2012. “Quality of Life and Old Age Social Welfare System for the Rural Elderly in China.” *Ageing International*. 37(3): 285-299.
- Shenk, D., & Christiansen, K. 1997. “Social support systems of rural older women: A comparison of the United States and Denmark.” *The cultural context of aging: Worldwide perspectives*.
- 농지연금포탈. <<http://www.fplove.or.kr/>>(조회날짜: 2015.12.01.).

부록 1

어르신 인터뷰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과제로 수행 중인 ‘농촌 고령자 실태 및 정책개선과제’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는 어르신의 생활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평생 농사일을 해 오신 어르신 중에서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중에서 선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 * 농촌 어르신의 어려움을 잘 보여 주실 수 있는 어르신이면 좋겠습니다.
-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여쭙볼 예정이지만, 제가 질문을 하기보다는 가능한 어르신의 일상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소득 활동	- 하시는 일 - 한 달에 버는 수입, 얼마나 별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까요? - 하시는 일이 몸에 부치지 않는지?
소비	- 한 달 생활비, 용돈
가구	- 단독, 부부, 자녀와 함께 - 소득수준
건강	- 병원은 얼마나 자주 가는지? - 누구와 함께?
식생활	- 식사는 주로 어떻게 해결? - 어려운 점은?
주거	- 현재 사시는 집에서 얼마나 오래? - 불편한 점은?
하루 일과	-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잠자리에 들기까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 가장 힘든 거? - 즐거운 거?
이전소득	- 정부로부터 받는 것(기초노령연금) - 자녀로부터 받는 것 - 그밖에
필요한 도움	- 생활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

부록 2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 다음은 <표 4-1>에 제시된 사업 중에서 추가적인 설명으로, “2015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과 “2015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치매상담센터 운영

- 각 지역에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지정된 보건소에서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보건소장이 보건소에 배치된 의사·한의사·간호사·정신보건전문요원 중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 관내 치매관련 전문의·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등을 자문인력으로 둘 수 있다.

부표 2-1. 광역치매센터 지정현황('13. 7. 10. 지정)

시도명	선정기관명	시도명	선정기관명
서울	서울대병원	강원	강원대병원
부산	동아대병원	충북	충북대병원
대구	경북대병원	충남	단국대병원
인천	가천대 길병원	전북	전북대병원
대전	충남대병원	경북	동국대경주병원
경기	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계	11개소

출처: 보건복지부(2015a).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 p.441

- 치매상담센터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 치매노인 등록 및 관리(치매치료관리), 치매노인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치매 예방 및 치매노인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 실시, 재가 치매노인에 대한 방문·관리, 치매노인의 사회적 지원안내 등이다.

□ 치매검진사업

-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치매선별검사, 치매진단검사, 치매감별검사 등을 실시한다.
- 치매검진 결과에 따라 치매군, 정상군·치매위험군, 치매고위험군 등으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치매군은 치매환자로 등록하여 장기요양보험서비스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인지재활프로그램, 조호물품제공, 치매인식표 보급 등 연계, 기타 치매관련 정보제공 등을 지원한다.
 - 정상군·치매위험군으로 분류된 노인은 치매예방프로그램과 연계한다.
 - 특히 치매고위험군은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우울증 등 치료관리프로그램, 운동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서는 ‘찾아가는 치매검사’를 통해 조기검진을 실시한다.
 -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독거노인, 취약계층노인, 치매고위험군 노인 등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등에서 보건예방교육 등을 제공한다.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치매노인의 치매치료관리를 위한 사례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부 보건소에 인력지원을

해주고, 치매노인과 그 가족에게 치매관리에서 발생하는 약값 등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 사례관리 지원인력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사례관리 지원인력 인건비(12개월)로 국비 50%를 지원한다.

- 치매노인과 그 가족에게는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중 최대 월 3만 원(연 최대 36만 원)의 실비가 지급된다.

□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 이 사업에는 경로당 무료급식,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이 해당된다.
- 급식 및 식사배달 서비스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에게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 징수가 가능하다.

□ 노인일자리 사업

-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취업창업활동 등으로 구분된다. 각 활동별로 지원자격²⁹⁾이 상이하며, 차등한 급여를 지급한다.
 - 공익활동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만 지원할 수 있고, 재능나눔활동은 65세 이상 기초연금미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월 10만 원 미만 수급자까지 지원 가능하며, 취업·창업활동은 만 60세 이상 노인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29) 자료: 2015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사업종합안내.(보건복지부,2015c; p.31)

- 구체적인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내용과 급여 및 예산 기준은 다음의 <표 4-3>과 <표 4-4>와 같다.
 - 전국형 자원봉사활동과 지역형 표준프로그램은 월 2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며, 참여기간은 연간 9개월이다.
 - 전국형 자원봉사활동은 활동가능 노인이 취약계층 노인을 돌보는 노노 케어를 전국단위로 일괄 실시하는 것으로, 연중참여도 가능하다.
 - 지역형 표준프로그램은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등으로 분류되어 운영되던 것을 통합한 것이다.
 - 그밖에 취업이나 창업은 시장형 일자리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사업소득으로 연중운영하는 형태이다.

부표 2-2.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내용

유형	설명	비고	
전국형 (자원봉사 활동)	취약노인가구를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생활상태 점검 등 수행	월30시간 이상 (일 6시간 이하)	
공 익 활 동	지역형 (표준 프로그램)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CCTV 상시관제, 폐현수막 재활용, 자전거 보관관리 및 수리지원, 친환경 EM활용, 도시농업환경관리, 지역사회 환경개선, 지역사회 문화재 관리 지원, 주정차질서 계도, 지하철 철도이용질서 계도, 수쿨존 교통지원, 도서관 관리지원, 근린생활시설 관리지원, 공공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관리지원	구.공익형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 장애인 돌봄지원, 청소년 보호지원, 지역아동센터 연계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문화복지 지원	구. 복지형
		1-3세대 강사파견, 노-노교육 강사파견, 체육건강 강사파견, 숲생태해설, 문화 및 문화재해설, 보육교사 도우미,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모니터링	구. 교육형
창 업 활 동	공동작업형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지역영농사업, 기타 공동작업형 사업	
	제조판매형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공산품제작 및 판매사업, 매장운영사업, 아파트택배사업, 지하철택배사업, 세차 및 세탁사업, 기타 제조 및 판매사업	

출처: 보건복지부(2015b).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II).” pp.5-8

부표 2-3.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유형별 예산지원 기준

		참여자 1인 예산지원 기준				유형비율	국고 보조
		활동비 (월)	참여 기간	부대경비 (연)	계		
전국형	자원봉사 활동	20만 원	9개월	14만 원	194만 원	사업량 별도안내	50% (서울 30%)
		20만 원	12개월	16만 원	256만 원		
지역형	표준 프로그램	20만 원	9개월	14만 원	194만 원	시·군·구별 1개 프로 그램 당 총사업량의 20%미만 추진	
취업형	인력 파견형	-	연중	15만 원 (예산내 탄 력적용가능)	15만 원	각 사도별 사업량 할당	
창업형	공동 작업형	-	연중	180만 원	180만 원	각 사도별 사업량 할당	
	제조 판매형	-	연중	200만 원	200만 원	각 사도별 사업량 할당	
수행기관전담인력		1,167천 원	11개월	-	12,837천 원	-	

출처: 보건복지부(2015b).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II)” p.9

□ 경로당 운영혁신사업

- 경로당 운영혁신사업은 경로당에 건강관리·운동·교육·여가·자원봉사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로당이 지역 노인복지·정보·노인학대지킴이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표 2-4.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분야

분야	내용	비고
자원봉사활동	경로당 이용 노인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환경 정비 및 재활용품 수집, 청소년 안전지킴이 등의 봉사활동 수행	

분야	내용	비고
공동작업장 운영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일거리를 확보하여 공동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	
노후 생활교육	노후 생활, 정보통신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제공	
레크레이션 활동	노래교실 등 각종 레크레이션 활동	
건강운동 활성화	노인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건강운동 프로그램 지원	전체 경로당에 '치매예방 수칙 및 치매예방체조' 보급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노인복지관을 경로당과 연계시켜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필요한 건강관리, 사회활동서비스, 교양·오락프로그램, 경로당 개·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 등을 수행	
기타	지역특성에 알맞은 각종 활동	

출처: 보건복지부(2015b).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II).” p.93

- 경로당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 독거노인의 생활교육장소나 농어촌지역의 노인공동생활공간으로 활용한다.
 - 주 1회 2시간 건강·영양관리 및 간단한 신체기능유지 프로그램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 경로당에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요금 등 적정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노인공동생활안전지침 및 운영규정 마련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공동생활로 도움이 필요한 농어촌 경로당에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주 2회 파견)하거나 농촌일자리사업 및 각종 사회적기업 등과 연계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 중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인 대상자를 대상으로 방문, 주간보호, 치매환자가

족지원, 단기가사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유형 네 종류로 다음과 같다.
 - ① 방문서비스(월 27시간 또는 36시간 서비스 제공)
 - ② 주간보호서비스(월 27시간(9일) 또는 36시간(12일) 서비스 제공)
 - ③ 치매환자가족지원서비스(연 6일 서비스 제공)
 - ④ 단기가사서비스(월 24시간 서비스 제공)

-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치매환자가족지원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세부 서비스를 포함한다.
 - ① 방문서비스: 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제공가능하다.
 - ② 주간보호서비스: 심신기능 회복서비스(여가,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등의 기능 훈련), 급식 및 목욕,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의 주간보호서비스
 - ③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치매노인을 보호함
 - ④ 단기가사서비스: 식사도움, 옷 갈아입히기, 외출동행,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

- 서비스 단가
 - 기준 단가
 - ① 평일서비스 기준단가:
 - 방문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포함): 시간당 9,800원
 - 주간보호서비스: 일(日, 9시간 기준)당 29,400원
 -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일당 36,380원

② 야간 및 공휴일 서비스 기준단가:

- 방문서비스: 시간당 10,540원
- 주간보호서비스: 일(日, 9시간 기준)당 31,620원

③ 가산금액: 방문(시간당 740원), 주간보호(일당 9시간 기준 2,220원)

※ 1일 가산단가 적용은 실시간 결제 건에 한하여 최대 3시간까지만 인정된다.

○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원

- ① 지급 대상: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도서·벽지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및 읍·면지역 거주 노인에게 방문서비스 및 단기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
- ②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도서·벽지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 노인에게 서비스 제공시마다 1회당 원거리 교통지원금 6천원이, 읍·면지역 거주 노인에게 서비스 제공시 1회당 원거리 교통지원금 3천원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제공인력에게 사후 일괄 지급된다.

○ 서비스대상자 선정기준

① 방문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

- 연령(공통): 만 65세 이상
-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한다.

※ 서비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 등급(1~5등급)을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등급 판정일자가 속한 월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서비스 대상자의 장기요양 판정결과는 행복e-음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② 단기 가사서비스

- 대상: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 대상자 건강기준: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로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중 1개로 확인한다.
- ※ 단, 입원으로 2개월 경과시에는 퇴원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 ※ 골절(관절증, 척추병증)은 상병코드와 관계없이 의사진단서(소견서)등 증빙서류에서 ‘골절’, ‘관절’, ‘척추’ 임을 확인하고, 중증질환 수술의 경우 의사진단서(수술확인서)에 기재된 상병코드로 중증질환 수술여부를 확인한다.
- 대상자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 ※ 독거노인 또는 부부 노인가구는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확인(단, 실제로 홀로 살고 있거나 노인가구만이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현장 확인서 등을 구비 후 가능)

부표 2-5. 단기가사서비스 개요

구분	내용
서비스 내용	- 가사·일상생활 및 신변·활동지원(취사, 청소, 세탁, 외출동행 등) - 서비스 제공기간 및 횟수(2개월 이내 원칙, 1회당 2시간)
서비스 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의 부부노인가구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건강기준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5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적용

출처: 보건복지부(2015b).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II).” p.138

□ 경로우대제도

○ 공영 경로우대제도

① 철도

- 통근열차: 운임의 50% 할인
- 무궁화호: 운임의 30% 할인
- 새마을열차 및 KTX 30% 할인(단,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② 수도권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공원 및 국·공립미술관 : 운임 또는 입장료 100% 할인
 - ③ 국·공립 국악원 : 입장료 50% 이상 할인
- 민영 경로우대제도
- ① 국내 항공기: 운임의 10% 할인
 - ② 국내 여객선: 운임의 20% 할인
 - ③ 타 경로우대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할인혜택을 준다.
- 각종 요금 감면³⁰⁾
- 국민건강보험료: 월 소득 360만 원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는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³¹⁾받는다.
 - 공과금: 노인복지시설은 도시가스, 전기,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가 감면된다.
- 노인 응급지원 제도
- 노후긴급자금대부³²⁾
- 노후긴급자금대부 제도는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배우자 장례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의 긴급 생활자금을 최고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저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노인보호전문기관³³⁾
- 전국의 2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0) 출처: 복지서비스 가이드북(보건복지부, 2014; p.130)

31) 재산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30%, 재산 9천만 원 이하인 경우 20%,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10%가 경감된다.

32) 출처: 보건복지부(2015d)

33) 출처: 보건복지부(2014).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p.129

- *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전화·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 학대피해노인 상담 및 현장조사, 쉼터 운영을 실시하고 쉼터를 운영한다.
- *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독거노인 지원서비스³⁴⁾

(1) 독거노인 안부확인 서비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일환으로 독거노인가정을 주 1회 방문, 주 2~3회 전화를 통해 안부를 확인한다.
- 목적
 - 독거노인의 고독감 및 안전에 대한 우려를 경감시키고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 서비스 내용
 -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 댁을 주 1회 방문, 주 2~3회 전화를 통해 안부 확인한다.
 - 건강관리가 필요한 경우 방문보건서비스, 결식 우려가 있는 경우 밑반찬 서비스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 자원을 발굴·연계한다.
 - 혹서기·혹한기일 경우, 건강이 취약한 어르신 보호를 위해 생활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및 기상특보(폭염·한파 등)시 어르신께 매일 연락하여 안부를 확인한다.

(2)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서비스

-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서비스는 경증치매 및 건강이 취약한 독거노인의 집에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시 노인돌보미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서비스이다.
- 목적
 - 혼자 거주시 화재·가스누출·건강 악화 등의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

34) 출처: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2014)

응을 통한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 서비스 내용

- 독거노인 거주지에 가스누출·화재감지·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기를 부착하여 위급상황(가스·화재 센서 감지시) 발생시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한다.

※ 2013년 설치가구 수는 8만 가구였다.

※ 2014년 위급상황 대처건수: 응급호출 1,103건, 화재출동 26건, 가스누출 2,090건

(3)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

-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은 민·관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안부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하는 민관·협력 사업이다.

○ 목적

- 이 사업은 민간 자원을 활용한 독거노인돌봄을 목적으로 한다.

○ 서비스 내용

- 이 사업을 통해 민·관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안부확인, 후원물품 등의 서비스 제공을 수행한다.
 - 사랑잇는 전화: 콜센터 상담원 등이 독거노인과 1:1 결연을 맺고, 주 2~3회 전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부확인 및 말벗서비스를 제공한다.
 - 마음잇는 봉사: 자원봉사자가 결연을 맺은 독거노인을 직접 방문하여 보살펴 드리고 후원물품 등³⁵⁾을 전달한다.

○ 서비스 실적

- 2014년 6~8월 총 8억 원 상당의 물품 등을 2만 명에게 전달했다.
-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3.3억 원 상당의 물품 등을 7.2만 명에게 전달했다.
- 2013년 기준 80개 기업·단체가 참여, 3만 7천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를 제공했다.

35) 결식 위험 독거노인에게 분기별로 20kg 쌀 제공, 흑서기·흑한기 식품 및 냉·난방용품(선풍기, 온열매트, 의류)을 제공하였다.

(4)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시범사업³⁶⁾

-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은 도시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시의 독거노인을 발굴하여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를 사귀게 하여 고독사 및 자살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 사업 내용
 - 2014년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1차년도 사업을 통해 61개 노인복지관 등에서 3천5백여명의 독거노인을 은둔형, 우울증·우울증·자살위험군, 관계위축군 등으로 나누어 안부확인·안전확인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4년 대상자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은둔형 노인군: 외부인과 사회적 관계를 전혀 맺지 않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 우울증 자살고위험군: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노인과 의료기관에서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노인 중에서 자살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
 - 관계위축군: 우울감과 고독감이 높고 자살위험이 중간 수준 정도인 노인
 - 2015년에는 사업대상 복지관을 80개로 확대해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2차년도 사업을 실시함. 2015년의 대상자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은둔형 노인군: 외부인과 사회적 관계를 전혀 맺지 않고 있는 은둔형 노인
 - 활동제한형 고독사위험군: 제한적으로 사회적 관계는 유지되나, 만성질환 또는 일상생활 능력제한으로 인하여 외부 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노인
 - 우울증 자살고위험군 :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노인과 의료기관에서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노인 중에서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

36) 출처: 보건복지부(2015e)

부록 3

농촌노인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개요

□ 농지연금³⁷⁾

○ 사업의 목적

- 고령은퇴농과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농지매도와 매입을 지원하여 농지 시장의 안정화와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 자산유동화를 통해 고령농업인의 노후설계에 기여함.

○ 지원자격

- 농지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65세 이상인 영농경력 5년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내용

-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다.
-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 두 가지 지급방식 중 하나를 선택한다.
 - * 종신형: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 * 기간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7) 출처: 농지연금포탈(<http://www.fplove.or.kr/>)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60,000원 이내)의 70%를 지원하며,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로 지원한다.³⁸⁾
 - 국비 70% (최대 42,000원/일), 자부담 30%
- 사업 대상자
 - 이 사업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 행복나눔이 지원사업

- 행복나눔이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고령·취약가구와 경로당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사업의 목적
 - 농촌지역 고령·취약가구 및 경로당에 행복나눔이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사활동을 지원한다.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2일 이내(경로당은 24일 이내)
- 사업 대상자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지역 경로당이 대상이다.
- 행복나눔이 급여: 국고 70%(8,400원/회), 농협부담 30%(3,600원/회)
 - 지원내용: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나눔이(자원봉사자)의 활동비용으로 1인당 12,000원을 지급한다.
 - 지원일수: 지원대상이 되는 세대 당 연간 12일 이내(경로당은 24일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다.

38) 진단·통원·입원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해당 일수만큼 지원금 지급

□ 농촌고령자공동이용시설 지원³⁹⁾

- 농촌고령자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은 농촌에 공동생활공간, 급식시설, 목욕탕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농촌의 고령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목적
 - 고령자 친화형 공동시설의 지원을 통해 농촌 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내용
 -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여 공동시설을 중심으로 복지·의료·문화 서비스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각 부처가 발굴해 공동이용시설에 연계하기로 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복지부: 건강100세 노인운동 서비스, 경로당 활성화 지원 서비스 등
 - 문체부: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운영, 문화 이모작 등
 - 농식품부: 가사도우미, 농촌사랑 의료지원
 -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공동생활홈: 농촌에 거주하는 다수의 고령자(가구)가 모여 식사, 취침 등 주거생활이 가능토록 한 시설 또는 주택
 - 공동급식시설: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내에 또는 별도로 조리 및 식사 제공을 위한 설비를 갖춘 시설
 - 작은목욕탕: 읍·면소재지 등 농촌 중심지에 소규모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예산 및 사업규모
 - 2014년 기준 4,150백만 원(국비 50% 보조)

39) 출처: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2014)

□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사업은 지리적 여건이 나쁜 농촌지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지원과 장수사진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사업시행주체
 - 의료지원: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 장수사진: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 지원대상
 - 지리상 여건으로 의료·문화 서비스 낙후 농촌지역(도서 산간벽지 거주자 신청 시 우선지원) 거주하는 농업인 및 농촌지역의 소외계층이 지원할 수 있다.
 - ※ 의료 우선지원 요건: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
- 지원내용
 - 의료지원: 농촌거주 농업인의 의료 진료비(약재비, 진료기관의 교통비 포함 등) 및 낙후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운송을 위한 차량 비용 등(의료진 이용 차량 지원은 제외)을 지원한다.
 - 장수사진: 농촌거주 농업인의 장수사진 촬영을 위한 비용(이·미용비 포함)을 지원한다.

□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은 2014년 첫 시행한 사업으로, 지역 시·군, 운수사업체, 지역아동센터·복지회관·마을자치회 및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차량과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받아 지역민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 사업목적
 -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을 통해 커뮤니티 교통서비스 활성화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대상자
 - 사업관리주체: 시장·군수

- 사업시행주체: 시장·군수, 운수사업체, 지역아동센터·복지회관·마을자치회 및 기타 비영리법인 등
 - 지원내용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을 위한 대체교통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을 지원한다.
 - 차량구입비: 차량구입·개조비 등
 - 교통서비스운영비: 차량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 인건비 및 이용요금
 - 지원형태
 - 재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지원규모: 19개소, 900백만 원
- ※ '16년 신규 선정 시·군 10개소에 500백만 원, '15년 기 선정 8개소에 400백만 원을 지원한다.